

작은 나눔이 모여 큰 사랑을 이루다

2016/2017 공무원 재능나눔 · 자원봉사 우수사례집
나눔으로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대한민국 공무원들의
아름다운 봉사활동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Contents

2016

뒷골목 떠돌던 자퇴생들에게 희망을 한정일(서울지방경찰청 강동경찰서)	06	재능기부로 함께 만들어가는 과학이야기!! 익산STEAM연구회(익산STEAM연구회)	46
공무원 재능 나눔 우수상소감문 박현성(김해 신안초등학교)	11	사랑과 나눔으로 함께 가요!! 경기도초등보건교육연구회(경기도교육청)	50
함께 나누는 행복 송병권(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21	통계로 보는 세상 통계교실 교육기부단(호남지방통계청 사회조사과)	57
함께라서 더 특별한 재능나눔 수업 함실지도 꿈공동체(대구지초등학교)	29	10만 명의 제자를 꿈꾸며... 허준석(범박고등학교)	62
뭐꼬? 독버섯이랑께! 아너 식용이유! 장현유(한국농수산대학 버섯학과)	34	만화가의 꿈을 박물관에서 이루다 방용진(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박물관 춘천박물관)	69
봉사의 첫 걸음의 시작 양병수(경기남부청 의왕경찰서)	42	일 잘하는 윤보영, 시 잘 쓰는 윤보영 윤보영(보건복지부)	76
		나누고 베푸는 공직이 곧 천직(Calling) 박 종 우(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83
		세상을 따뜻하게 하는 '행복기술', 나눔 행복더하기 봉사단(부산지방방무청)	94
		마음이 따뜻한 사람들이 모여 사랑의 꽃을 피우는 아름다운 동행 경찰병원 나눔의료봉사단(경찰병원)	102
		'같이'하면 커지는 나눔의 '가치' 자봉회(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110



2017

농이로 행복을 나누다(아이와 숨비꼭질) 조연주(울산시 교육청)	118
농업현장에서 우리 농업의 희망을 찾다 박서준(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130
보일러의 온기로 사랑을 전달하다 조수련(경북지방경찰청)	136
행복한 이야기가 있는 따뜻한 동행 사립사랑스토리봉사단(보건복지부 국립춘천병원)	143
푸르고 질긴 외뿔처럼 울곧은 삶을 꿈꾸다 김창근(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서울전파관리소)	152
세상을 밝히는 무료급식소 오일수(포항지방해양수산청)	156
봉사는 베푸는 것보다 그들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것이다 부산경찰 동백 ICT봉사단(부산지방경찰청)	163
봉사, 나눔, 헌신의 자리에는 언제나 서산교육행정나눔회가 있다 서산교육행정나눔회(서산교육지원청)	168
신나는 문화봉사! 뿌듯한 집청소 프로젝트 완료! 우분 행복나눔 봉사단(우정사업본부)	172
보육원에서 꿈을 펼친 태권소녀와 교도관 사범님 고상원(법무부 수원구치소)	177



나눔과 봉사로 얻은 행복 박상재(서울당초중등학교)	186
내 인생의 전환점에서 나눔의 부메랑 윤애경(경찰병원)	192
나에게 기회를 준 많은 이들에게 감사하며... 이승민(부산경찰청)	196
따뜻함을 함께 나눠요, 경기도 학교보건강사봉사회(경기도 교육청)	201
해양경찰 인성교육은 '봉사활동'으로 시작합니다 해양경찰교육원 신입경찰 봉사활동단(해양경찰교육원)	207



★
2016 ✨ ✨



업무 현장에서 우리는 모두
각자의 능력을 키워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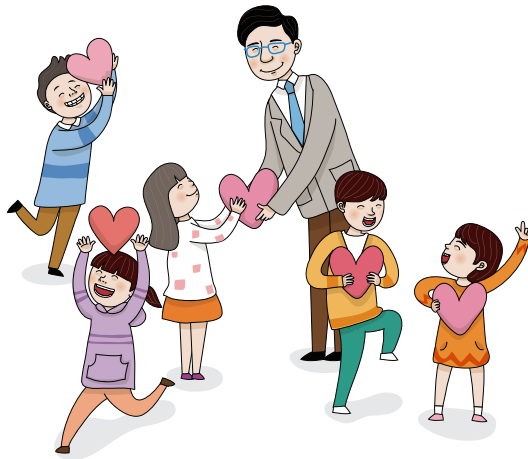
가끔은 자기 안에 숨겨진 재능을
발견할 때도 있습니다.
다양한 재능을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나누는 대한민국 공무원.
이들의 작은 재능이 모여
국민의 큰 기쁨이 됩니다.





최우수상

뒷골목 떠돌던 자퇴생들에게 희망을



한정일(서울지방경찰청 강동경찰서)

2011년 12월 겨울. 색상별로 사회적 지위를 나타낸다는 소위 명품 점퍼 강취사건이 빈번히 발생할 때였다. 문제의 청소년들은 흠친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며 중고등학생들의 값비싼 점퍼를 강제로 빼앗아 자신들이 입거나 중고시장에 판매했다. 당시 서울시교육청에 파견근무를 하고 있던 나는 서울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과 소속으로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폭행이나 성폭력 등의 사안을 조사하고 수사부서에 연계하는 한편 학교폭력예방교육과 폭력대책위원회의 자문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다.

겨울방학 무렵 서울 ○○경찰서에 19명의 청소년들이 명품 점퍼 강취사건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그들 중 17명은 학교를 그만둔 청소년들이었다. 아울러 그 사건은 내가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고민하는 계기가 되었다.

학교라는 이름의 보호 울타리를 벗어난 학교 밖 청소년들은 어른들이 지켜 줄 수 없는 범죄의 사각지대에서 밤거리를 헤매고 결국 배고픔을 이기지 못해 사회규범을 어기곤 한다. 혼자서 사회의 어두움을 밝힘으로 변화시킬 수는 없었다.



나는 무작정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지원 부서를 찾아가 예산을 요청하는 한편 지역교육청의 학습장소를 물색하였고, 서울 각 대학교에 공문을 보내 학습 재능기부를 할 자원봉사 대학생들을 모집하기 시작했다.

경찰 한명이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해 무언가를 해보겠다고 여기저기 뛰어다니는 것이 안쓰러워 보였는지 그 대답은 긍정적이었다.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을, 지역교육청은 학습공간을, 서울권 각 대학교에서는 과목별 학습재능을 기

부하겠다는 대학생들의 문의가 빗발쳤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들의 재능기부는 참으로 고마운 봉사였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 국사 등 대부분의 과목을 재능기부해 준 그들에게 내가 해줄 수 있는 일은 봉사실적 등록과 약간의 학점인정이었지만 그들은 언제나 웃는 얼굴로 최선을 다해주었다. 하지만 역시 쉬운 것은 없었다. 교육기관은 개인정보를 이유로 학교를 떠난 청소년들의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고 나는 단위학교 전체를 찾아다니면서 명함을 돌리고 본 프로그램의 취지와 목적을 설명했다.

그렇게 학교 밖 청소년들의 명단이 손에 들어오기 시작했고 그들을 위한 프로그램의 명칭은 “꿈을 키우는 희망교실”로 정해졌다.

공부를 가르치기 위한 여정은 험난했다. 중국 보이스포싱이라는 오해로 경찰에 신고까지 당하면서 한 집 한 집 전화를 해서 아이들을 모았다. 지역교육청의 강의실은 학습공간으로 탈바꿈했고 공부를 배우러 온 청소년과 가르치러 온 대학생들로 꽤나 북적북적했다. 사실 언제나 재능기부 대학생들의 수가 더 많았다. 당시 내 일과는 경찰업무가 끝나면 지역교육청으로 달려와 3층 계단에 쭈그리고 앉아서 청소년들이 다 올 때까지 기다리며 전화하면서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 가는 것이었다.

개인적인 사유로 학교를 그만두거나 학교폭력의 가·피해자로 부득이 학교에

서 벗어난 이 친구들의 개인적인 캐릭터는 꽤나 강했다. 어떤 친구는 “선생님! 여자 친구가 임신을 했는데 앞으로는 돈을 벌어야 할 것 같아요”라면서 공부를 중간에 포기를 해야만 했고, 또 어떤 친구는 “무면허운전으로 경찰서에 왔는데 선생님이 경찰이니까 우리 좀 빼내주세요”라고 하는 등 그들과의 공존이 처음부터 쉬운 것은 아니었다. 그렇게 그들과 아웅다웅 하면서 검정고시 공부를 하고, 등산을 다니며 지금껏 사회를 상대로 얼어붙었던 마음을 녹여주는 한편 지역 상담센터와 연계하여 심리상담 치료를 병행해 갔다.



드디어 검정고시 시험 날. 한 명 한 명에게 잔소리를 하면서 시험장까지 같이 동행했다. 떨리는 마음으로 시험의 결과를 기채점하고 “선생님! 저 졸업장 땀어요”라는 말을 듣는 순간의 떨림은 정말 지금까지도 행복한 여운으로 남아있다. 그러한 여운은 그 이후에도 계속되었고, 그들의 엉덩이는 그렇게 의자와 찬해져 지금은 대학생으로, 또는 회사원으로, 또는 공시생으로 사회에 진출해 있다.



며칠 전, 그들이 경찰서로 찾아왔다. 부대찌개를 먹으면서 당시의 웃고 울었던 사건들을 떠올리자 그들은 말한다. “그땐 너무 어렸어요”라고. 그래서 나도 말했다. “너희에게 재능을 기부해준 선배들이 있기에 현재의 너희가 있듯이 너희들도 어려운 이들을 위해 각자의 재능을 기부해”라고.



현재 여성가족부 “학교 밖 청소년”의 슈퍼멘토로 활동하고 있는 나의 눈에 주위에 어른들의 보살핌을 벗어난 어린 청소년들이 너무나 많다. 그들은 항상 강력범죄에 노출되어 있고 자신의 정체성을 스스로 망가뜨릴 수도 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그들의 마음이 닫히지 않도록 우리 어른들은 노력해야 한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작은 것에도 정성을 기울인다면 언젠가는 그들도 어른이 된다. 이 사회를 이끌어 나갈 어른이 된다.



우수상

공무원 재능 나눔 우수상소감문



박현성(경상남도교육청)

1+1 기부문화 조성

공무원 재능 나눔 공모전 우수상 수상 소식을 접하고 가장 기뻐던 것은 플러스하트 아동센터 학생들의 제주도 여행을 위해 100만 원의 상금을 기부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올 겨울 아동센터 학생들이 처음 비행기를 타고 제

주도 여행을 간다는 소식을 접하고 내가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없을까 고민하였는데, 이번 상금으로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게 되어 더없이 행복하다.

2014년부터 여러 대회에서 상금을 받으면 1+기부라고 하여 상금에 상금만큼을 더해 기부하고 있다. 올해 공무원 재능 나눔 우수상을 받고 상금 100만 원은 플러스하트 아동센터에 전액을, 그리고 나의 기부금 100만 원을 더 내어 동광육아원에 기부하고자 한다. 사실 상금 전액을 기부하기는 쉬워도 1+ 기부를 실천하기에는 지금까지 어려움도 많았다.

2014년은 올해의 과학교사상 500만 원을 받아 500만 원을 더 기부해야 했고, 작년에도 우리의 상상을 현실로 사제동행 봉사단이 전국 메이저 봉사대회에서 모두 상을 수상하여 상금 350만 원을 받아 700만 원을 기부해야 했다. 상금에 상금만큼의 기부금을 더 모아 기부하면서, 부인에게는 구박 아닌 구박까지 받았다.

매달 봉사활동 하면서 재료비로만 50만 원을 기부하면서, 그 고생으로 상금을 받았다면, 그 상금을 기부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그만큼 더 돈을 모아 기부한다는 것에 애들 두 명을 키우는 부인으로서는 수상 소식이 반갑지만은 않은가보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 1+기부라는 새로운 기부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나의 노력이 결실을 보아 우리 사회에 더 많은 기부문화가 조성될 것을 알기에 올해 공무원 나눔 공

모전 수상도 14기부 실천으로 나눔 수상을 통해 더 많은 나눔을 실천하고자 한다.

봉사활동의 시작

지금도 중학교, 고등학교 때 학생들에게 봉사활동을 강조하지만 내가 중고등학교를 다닐 땐 대학을 가기 위해 봉사활동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았고, 봉사활동 대한 경험이 없던 나는 남에게 도움을 받아만 왔지 도움을 줄 생각을 하지 못하며 살았었다. 그러다 진주교육대학을 가고 ROTC를 하면서 처음으로 봉사활동을 하게 되었다. 장교가 되기 위해서는 봉사활동 시간이 필요했고, 그래서 장애인 시설에 ROTC 동기들 전체가 봉사활동을 가게 되었다. 사실 처음에 장애인 시설에서 장애인들을 접하고 많이 무서웠다.

우리가 가자 장애우들이 반갑다고 다가와 손을 잡고 우리를 안아주려고 했는데, 처음 하는 봉사활동인지라 장애인에 대한 두려움에 그날은 이리저리 눈치만 보면서 장애우들과 따뜻한 접촉을 하지 못한 채 봉사활동을 마무리하였다.

이렇게 첫 시작은 어려웠지만 한 번 두 번 봉사활동이 계속되자 내가 장애인들을 보는 시선이 편견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그들을 나의 친구로 생각하면서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는 봉사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난 그때 봉사활동을 하면서 앞으로 시간적 여유가 되면 내 주위의 사람들을 돌아보며 살아야겠다는 스스로의 다짐을 했다.

그리고 봉사활동은 처음에 어떤 계기로 하든지 그것이 계속되면 그 속에서 진실된 마음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것도 나의 경험을 통해 알 수 있었다.

그래서 난 대학을 졸업하고, 2년 4개월의 군복무를 마치고 선생님이 되어 내가 그때 생각했던 봉사활동을 시작할 수 있었는데, 교사가 되고 지금까지 11년 동안 매주 1회 이상 봉사활동을 실천하고 있다.

스승과 제자가 함께하는 봉사활동

내가 처음에 봉사활동을 갔을 때 장애인을 보는 나의 잘못된 시선 때문에 봉사활동에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봉사활동을 계속하면서 봉사활동의 진정한 보람을 알고 해야겠다는 마음이 생긴 것처럼 나의 제자들에게 자원봉사활동의 꽃을 피워주기 위해 2009년부터는 시간이 되면 제자들과 함께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처음에는 제자들에게 과학 마술을 가르쳐 주고 육아원, 장애인시설, 노인 복지 시설 등을 찾아 과학 마술 공연 봉사활동 및 레크레이션의 시간을 제자들과 함께 가졌었다. 2011부터는 그 영역을 확대하여 제자들이 과학마술 분야

뿐만 아니라 자원봉사할 수 있는 자신들의 재능을 찾아 재능 나눔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가령 댄스에 재능이 있는 친구들은 사회복지시설에서 댄스공연을 통해 봉사활동을 하고 있고, 연극, 노래 분야에 재능이 있는 친구들은 연극 및 노래 공연을 통해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난 대학 때 처음 봉사활동을 하고 봉사활동의 보람을 맛보았는데, 나의 제자들은 어려서 봉사활동의 기쁨을 맛보고 나보다 더 훌륭한 자원봉사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들과 함께 하는 자원봉사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다.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선택을 했지만
 그 선택은 내 인생 최고의 선택 중 하나
 인 것 같다.

다양한 곳에서 진행된 봉사활동 사례들

2004년부터 현재까지 매주 수요일(총 500회) 동광육아원을 방문하여 육아원 학생들에게 부모님으로부터 받지 못하는 부모로서의 사랑을 주어 육아원 학생들이 비행의 길로 접어들지 않고 건전한 청소년으로 자라 우리 사회의 일꾼으로 성장하도록 하도록 봉사하였다.

이 사례는 2012년 EBS 선생님 선생님 우리 선생님을 통해 전국에 방송되기도 했다.





플리스
하트아동센터
봉사활동



2013년부터 현재까지 매주 화요일 (총 170회) 장유 지역 아동센터를 방문하여 부모님이 맞벌이 등으로 돌볼 수 없는 시간에 아동센터 학생들에게 과학 마술, 과학 체험 등 다양한 재능 나눔을 실천하여 아동센터 학생들이 바른 인성을 가지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열심히 봉사활동을 하였다. 이 또한 2014년 김해 자원봉사 TV를 통해 사례 방송이 되었다.

또한 2004년부터 현재까지 한 달에 한 번(총 50회) 장애인 시설을 방문하여 장애를 가진 청소년들에게 과학 마술, 스피드스택스, 컵타 등 다양한 재능을 가르쳐 주어 장애인들이 자신의 재능을 신장시켜 자신감을 형성하고,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봉사활동을 하였다. 2012년 KBS 다큐멘터리로 공중파 방송을 통해 전국에 방송되었다.

2004년부터 현재까지 한 달에 한 번(총 100회) 노인복지시설을 방문하여 어르신들을 위하여 과학 마술, 스피드스택스, 컵타 등 다양한 재능을 가르쳐 주어 어르신들이 자신의 손자 손녀들에게 그 배운 내용을 통해 행복을 느끼도록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노인
복지시설
봉사활동

2015년부터 더 많은 사람들에게 봉사활동을 실천하기 위하여 100명 이상

의 대형 어린이집을 방문하여 사제동행 봉사단의 재능 나눔 공연 및 과학 미술, 과학 체험 봉사활동을 실천하고 있다. 대형 어린이집 봉사활동은 미술 도구를 저렴한 것으로 준비해도 약 30만원이 소요될 정도로 많은 비용이 필요하지만 학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봉사활동이라 꾸준히 봉사활동을 실천하고 있다.



대형
어린이집
봉사활동



2010년부터는 다문화 가정 자녀들을 위하여 수시로 다문화 가정 가족 캠프를 개최하여 부모와 학생이 함께 과학을 통하여 즐기면서 가정의 화목을 도모하여 다문화 가정 자녀들이 바른 청소년으로 자라도록 봉사활동 하고 있다.

한편 2012년부터는 김해시 청소년 지도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한 달에 2번 김해 취약 지역을 순찰하면서 취약지역을 청소년이 활동하기 가능한 안전 공간으로 바꾸는 청소년 선도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야간 순찰활동 중 어두워 청소년 범죄가 발생하기 쉬운 곳은 시청에 가로등을 건의하여 학생들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 사제동행 봉사활동으로 새로운 깨달음을 얻다

사제동행 봉사 동아리의 운영은 어린 학생들의 인성 변화에 상당히 긍정적이라는 것을 10년간의 활동을 통해 알 수 있었다. 작년 모 학생의 경우 학교에

서 도저히 감당하기 힘들다고 하여 초등학교 때부터 포기하다시피 한 학생인데, 그 학생이 봉사활동을 통해 조금씩 변화하는 모습에서 우리 교육에 시사하는 바가 너무 많았다. 입시위주, 경쟁위주, 성적지상주의식 교육 환경에서 학생들이 어려서부터 선생님과 함께 봉사활동을 통해 남을 이해하고 배려하고 남에게 봉사하는 맘을 함양하면 그것이 자신의 맘에 바른 인성의 씨앗을 퍼트린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에 무너져가는 교육의 희망이 바로 사제동행 봉사 동아리 운영에 있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어려운 점도 많았다. 일주일에 3~4회 봉사활동을 하다보면 그 한 주는 참 빨리 지나간다. 또한 늘 시간에 쫓기다 보니 가족이 우선순위 밖으로 밀려나는 일도 허다하다. 학생들의 선생님이기 이전에 5살 어린 아들 민기와 2살이 된 지민이의 아버지로 놓고 보면 나는 참으로 부족한 사람이다.

그러나 다행히 이런 나를 잘 이해해주는 아내를 만났고, 그 아내 역시 나와 같은 마음으로 물심양면 나를 도와주니 나는 여러모로 복이 많은 사람임에 틀림없다. 어느 분의 말처럼 가족 간의 사랑이 함께 한 시간에 비례한다치면 나는 내 가족에게 참으로 미안한 일이지만, 나는 지금 내가 하는 봉사활동에 대해 만족하고 늘 감사한다.

봉사활동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결국 나 아닌 다른 사람, 내 이웃과 주변에 대한 끊임 없는 관심과 배려다. 관심과 배려는 하루아침에 누가 시켜서 체득되는 일이 아니다.

내가 시간을 쪼개 한번을 움직이면, 6~7명의 학생들이 나와 함께 봉사활동을 실천한다. 그 학생들은 나눔이라는 따뜻한 경험을 통해 자연스럽게 관심과 배려를 배우게 되고, 그 관심과 배려는 우리 사회를 보다 더 아름답게 만드는데 일조한다. 두 손 가득 내 것을 움켜지고 있으면 다른 이를 위해 내어줄 손이 없어진다. 그러니 이제 한 손쯤은 다른 이를 위해 비워보는 건 어떨까?

상상을 현실로 바꾸는 힘

도종환 시인은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하였다. 세상 모든 일을 행함에 있어 어려움 없이 그저 되는 일이 어느 하나 있을까? 지금까지 봉사활동 관리자로서 봉사활동을 기획하고 진행해오며 있어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와이프와 함께 봉사활동을 하던 중 임신 중인 아내가 봉사활동을 갔다 풀어 놓은 개에 물려 고생한 적도 있었고, 학생들을 태우고 봉사활동을 갔다 차가 고장이 나서 저녁 12시가 넘어서 집으로 돌아온 적도 있다.

그러나 늘 감사한 마음으로 그것들을 극복해왔고, 그리하여 현재는 내게 국가공인 봉사활동 1,200시간 이상이라는 자랑스러운 훈장이 주어졌다. 그런데 내가 이 훈장을 받기 위해 노력하는 시간 동안 나와 함께 했던 내 고마운 제자들의 시간을 모아보니 2만 시간이 넘어 나의 시간은 아예 견줄

바가 못 된다. 그러니 나는 더 분발할 수밖에 없다.

사제동행 봉사단 봉사활동 12년! 그동안 무수히 많은 제자들이 '상상을 현실로 사제동행 봉사단'의 이름으로 봉사활동을 하였고, 그 제자들은 내 삶의 일부가 되었다. 결혼식, 돌잔치, 스승의 날이면 항상 찾아와 함께 하면서 예전 봉사활동가서 힘들었던 이야기, 즐거웠던 이야기를 하고 있노라면 교사로서 평생 이 일을 멈출 수는 없을 것 같다.

요즘 어디에서나 학생들의 바른 인성교육이 절실하다고들 한다. 그게 뭐 어렵나? 나는 오늘도 우리 학생들의 올바른 인성 함양을 위해 슬며시 학생들의 손을 잡아끌고 사회복지시설로 향한다. 나에게 손을 잡힌 학생들이 앞으로는 부디 기꺼운 마음으로 내 손을 붙들어주기를 소망해본다.

함께 나누는 행복



송병권(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농촌진흥청에 근무하면서 농촌지역으로 출장을 다니다보니 햇볕에 그을린 주름진 얼굴들을 자주 만나게 된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소박하고 화사한 웃음을 지니고 있는 농촌지역의 어르신들을 뵈 때마다 이분들을 위해서 내가 해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고 고민을 했다. 그러다가 농촌진흥청에 근무하는



직원들 중 악기를 다룰 줄 아는 분들과 함께 농촌진흥청 문화봉사단 황금물결을 결성하여 농촌지역을 다니며 공연을 해주기로 하였다. 중·고등학교 때 밴드부에서 색소폰을 불던 직원, 육군 문선단에서 베이스기타를 치던 직원, 대학 다니면서 음악 동아리 활동하던 직원, 대학을 다니며 등록금을 벌기위해 야간무대에서 드럼을 치던 직원, 그리고 교회에서 음악활동을 하던 내가 함께 밴드를 구성하니 멋진 사운드의 밴드가 구성되었다.

♡ 2004년 2월부터 음악 활동을 시작 했는데 생각 이상으로 호응이 좋아 많은 보람을 느끼며 활동을 하게 되었다.

농촌진흥청 안에는 행사를 위한 넓은 잔디운동장이 있다. 주말이면 잔디운동장 주위의 나무그늘아래서 가족들끼리 나들이하며 쉬는 모습을 보면서 5월 가정의 달 이벤트로 주말마다 잔디운동장에서 공연을 하였다.

가족들끼리 즐거운 시간을 지내다가 공연이 펼쳐지니 모두가 공연에 흠뻑 취하고 가족노래자랑을 통해 자신들의 장기를 뽐낼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주니 한마음으로 즐거워하는 모습이다. 어린이날에는 어린이들을 위해 이벤트복장을 하고 레크리에이션을 진행하고 페이스페인팅을 얼굴에 그려주니 행복해하는 아이들의 모습에 시간가는 줄 모르게 하루를 보내곤 했다.

🌿 농촌전통테마마을 강릉해살이마을과의 인연

강릉해살이마을은 마을추진위원장의 열정과 헌신 그리고 강릉시농업기술센터의 지원으로 마을에 으나무단지를 조성해서 봄철에 나오는 으나무순인 개두릅을 테마로 개두릅 축제를 준비하였다. 축제를 통해 마을을 홍보하고 개두릅을 판매할 준비를 하며 분위기를 이끌어갈 이벤트를 수소문 하다가 농촌진흥청 문화봉사단 황금물결이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강릉시농업기술센터를 통해 연락이 와서 해살이마을을 지원하였다. 중앙에서 온 공무원들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앰프와 스피커 등 음향장비를 설치하고 악기를 준비하는 모습을 마을사람들은 지켜만 보고 있었다.

한바탕 신나는 공연을 하며 축제분위기를 만들고 쉬고 있는데 마을추진위원장과 마을주민들이 조심스럽게 다가와서 자신들의 이야기를 하였다. 국가공무원인 농촌진흥청 공무원들이 행사를 도와준다고 했을 때 많은 걱정을 했다고 한다. 공무원들은 늘 지시하고 군림하는 위치에서 자신들을 이끌어 가려고만 하는 사람들인데 그분들이 선뜻 도와주겠다고 해서 어떻게 우리를 도와 줄 것인지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다고 했다. 그런데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봉사로 성심성의껏 자신들을 도와주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감동을 받았노라고 했다.



그러면서 문화봉사단 황금물결과 자신들의 마을과 자매결연을 맺자고 하였고 그동안의 공무원에 대한 생각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며 우리를 강릉 해살이 마을 명예주민으로 위촉하였다.

봄에는 개두릅 축제로 여름에는 산골음악회로 해살이 마을을 지원해 주다 보니 이곳저곳에서 음악회를 해달라는 요청이 쇄도하여 강원도에서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 잊지못할 경남 통영 옥지도 공연

농촌진흥청 문화봉사단 황금물결은 전국을 다니며 음악으로 농업인들과 소통하고 있다. 한번은 경남 통영에서 배를 타고 한 시간정도 가야 나오는 옥지도의 농업인에게서 연락이 왔다. 옥지에서 젊은 농업인들이 고구마농사를 짓는데 도시 분들을 모시고 작은 음악회를 준비했으니 도와달라는 부탁이었다. 젊은 농업인들이 귀농을 해서 의욕적으로 농사를 짓겠다는 마음에 용기를 북돋아 주기 위해 옥지도로 향하였다. 섬 날씨는 변덕이 심해서 통영에서 배를 타고 옥지도로 향할 때는 날씨가 쾌청했는데 옥지도에 도착하니 안개비가 내려 분위기가 차분히 가라앉아 고즈넉한 분위기를 만들고 있었다.



음악회가 열리는 장소에 도착하니 젊은 부부 20쌍 정도가 우리를 반기며 멀리서 왔다고 좋아했는데 하필 그때부터 비가 예사롭지 않게 쏟아지기 시작했다. 비를 피해 처마가 있는 쪽에 음향기와 악기를 설치해 놓고 관객들인 젊은 부부들은 비를 맞아가며 음악회를 감상했다. 비바람이 한 번씩 몰아치면 음향 장비에 비가 쏟아져 마이크를 잡은 손에 전기가 찌릿찌릿 하는데도 불구하고 비를 맞아가며 열광하는 젊은 부부들의 환호성을 들어가며 공연을 하였다.

흥천 단호박 축제에서 펼쳐진 무대

흥천군 내촌농협 단호박 명품화사업 추진단에서는 내촌면에 단호박 단지를 만들고 지역 주민들에게 단호박을 심게 해서 농가소득을 올리도록 하고 있다. 매년 단호박 축제를 가는데 한번은 우리의 공연 때 무대 앞에서 신명나게 춤을 추는 부녀회원들을 볼 수 있었다.



공연이 끝나고 부녀회원들에게 “올해 단호박 농사가 잘 되었나 봐요? 신이 나셨어요?”하고 물어봤더니 올해는 역병이 돌아 단호박 농사가 잘 안되었다며 그래도 오늘만큼은 신나게 즐기고 내일 걱정은 내일 하겠노라고 하시는 모습에 콧등이 찡했다. 이분들은 단호박 농사가 잘되면 잘되는 대로 안되면 안되는 대로 걱정들이 많으신 분들이다. 우리는 농산물이 싸네 비싸네 하지만 이분들은 1년 농사가 수입의 모든 것이다. 농사수입으로 살림살이를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농촌을 지켜가며 농업을 이어가는 이분들이 계시기에 우리나라에서 건강한 먹거리가 생산이 되고 우리국민의 건강을 지켜나가고 있는 것이다.

오랜 인연으로 맺어진 수봉재활원과의 만남

농촌진흥청에서 매년 명절 때가 되면 이웃돕기 차원에서 수봉재활원에 성금을 기탁하고 연말이면 직원들이 대청소를 해주곤 했다. 수봉재활원 직원분들과 친근하게 지내며 여러 얘기를 나누던 중 수봉재활원 원생들에게 생일파티

와도 같은 이벤트를 해주고 싶은데 아쉬움이 많다는 얘기를 들었다. 그래서 황금물결에서 분기별로 생일파티와 연말송년잔치 그리고 시간이 되면 여름 수련회를 지원해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생일파티를 해주었다. 원생들의 호응은 기대 이상이었다. 어디에 숨겨져 있었는지 그들의 재능 또한 대단하였다. 송년 행사 때는 산타클로스복장을 하고 선물을 나누어 주었고 수련회와 운동회를 통해 친근해지면서 사회복지사를 공부해서 좀 더 전문지식을 갖고 봉사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수봉재활원은 이후 사회복지사, 웃음치료사, 레크리에이션지도사, 행복지도사 등 자격증을 취득하여 좀 더 전문성을 가지고 봉사활동을 하는 계기가 되었다.

수원트럼펫동호회 활동

농촌진흥청 문화봉사단 활동을 통해 재능나눔을 실천하다보니 수원지역의 트럼펫을 부는 분들이 우리도 함께 악기를 통해 재능나눔을 하고 싶다고 했다. 그래서 수원시 장애인 종합복지관과 함께 수원시민이 함께하는 턱없는 세상 사랑의 경사로 이어가기 캠페인을 매월 마지막 토요일 수원역 광장에서 거행하였다.

수원역을 오가는 많은 사람들이 트럼펫의 신명나는 소리에 어깨춤을 절로 추며 호응하였고 함께 노래를 따라 부르기도 하였다. 손님을 기다리는 택시운전사들은 차에서 내려 박수를 치며 호응 하였고 수원역 광장을 삶의 터전으로 삼

고 있는 노숙인들까지 함께 어우러져 신나는 축제의 장을 만들어 갔다. 성금함을 마련하여 모은 성금으로 수원지역 30여 곳에 경사로를 만들어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장애인들의 불편을 덜어드렸다.

워커힐 실버타운 효사랑 공연

고전무용을 하는 분이 자신의 재능으로 봉사 할 곳을 찾고 있었다. 마침 아시는 분이 워커힐 실버타운을 소개해 주셔서 그곳에 계신 어르신들을 위해 매월 둘째 주 일요일에 공연을 하게 되었다. 흘러간 노래, 고전무용, 색소폰연주 등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분위기로 공연을 하다보면 가끔씩 마음이 찡한 상황이 연출되곤 한다.

한번은 우리나라 대표가요라고 할 수 있는 눈물 젖은 두만강을 노래하는데 할머니께서 엉엉 우시길래 “할머니 왜 우세요?” 했더니 자신이 열일곱 살 때까 지 두만강에서 빨래를 했으며 “내 나이 구십이 넘었지만 아직도 두만강에서 빨래하던 생각을 하면 눈물이 난다”고 하신다. 할머니의 손을 꼭 잡고 할머니 통일 될 때까지 오래 사셔서 두만강에 같이 가지자고 하였더니 함께 있던 모두가 같이 우신다.

또 한 번은 군세어라 금순아를 부르는데 한 할아버지가 목 놓아 우셔서 “할아버지 왜 우세요?” 했더니 할아버지는 14 후퇴 때 함흥에서 마지막 미군 군함을 타고 부산으로 와서 지금도 살아 있다고 말하신다. 노래를 들으면 그 추운 겨울 미군 군함을 타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이 생각나서 울음이 터진다는 그 할아버지.

대한민국 지키고 경제개발을 통해 부강한 나라를 만들어낸 우리의 부모님들이 쇠약한 모습으로 요양원 생활을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더 헤드리지 못하는 아픈 마음을 담고 돌아올 때가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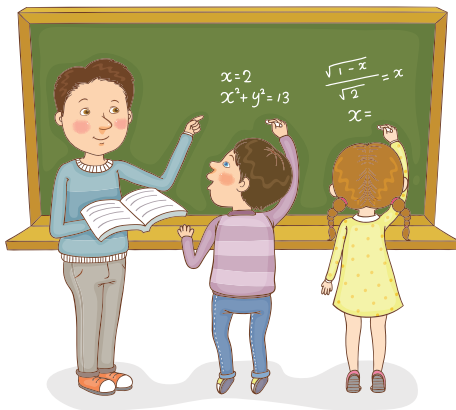
우리의 작은 재능나눔이 어르신들에게 큰 기쁨이 되는 모습을 보며 재능나눔의 기쁨과 보람을 누리는 나 자신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 생각한다.





우수상

함께라서 더 특별한 재능나눔 수업



함실지묘 꿈공동체(대구지묘초등학교)

우리 사회의 무한경쟁 풍토에서 비롯된 압박감은 교육 현장에도 그대로 적용되었다. 서로 이해하고 소통하며 힘을 합하여 뭔가를 배우고 이루려는 노력보다는, 개개인이 경쟁적으로 지식과 능력을 갖추어 더 높은 지위와 더 많은 부를 취해야 함을 강조해온 것이다. 당연히 아이들은 과도한 경쟁과 맹목적인

지식 습득을 강요당하며, 서로 마음을 나누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일은 뒷전으로 밀려나버렸다. 과거 우리가 훨씬 더 궁핍하고 어려웠던 시절에는 굳이 강조하지 않아도 누구나 나누는 것이 자연스러웠다. 좋은 일이 생기면 이웃과 같이 기뻐했고, 불상사가 생기면 도움의 손을 더해 슬픔을 나누었다. 물질이든 감정이든 공유하며 나눔의 즐거움을 누리 왔으며 인성교육이라는 거창한 말을 붙이지 않더라도, 우리는 배려와 공감을 배우고 서로를 북돋으며 살아가는 법을 터득해왔다.

이제 다시 사회 각계각층에서는 나눔의 문화를 통해 아이들에게서 미래사회를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공감과 소통능력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때 '나눔'이라는 것은 단순히 사회의 약자를 향한 베품의 의미를 넘어선다. 그것은 다른 사람과 함께 하면서 자신이 더욱 기쁨을 느끼고 더욱 성장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그것이 미래 교육의 핵심이어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그리고 아이들이 생활 속에서 함께 나누는 삶을 체득하기 위해서는 학교와 가정, 사회의 여러 기관에서 어떻게 함께 살아갈 수 있는가를 가르치고 훈련하는 일이 필요하며 재능기부 참여를 통한 나눔과 배려 문화 확산 역시 강조하고 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어느 나라의 속담처럼 미래를 선도할 창의적인 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학교는 물론 지역사회와의 상호 유

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다. 이와 같은 취지로 2012년 7월 말 본교와 팔공산지역아동센터가 우리마을 교육공동체 운영 관련 협약서를 체결하였다. 그리고 이것을 계기로 본교 교사들이 '함께 배우고 실천하는 지모 꿈공동체'를 결성하여 2013년부터 현재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마다 교사 재능기부를 꾸준히 실시해오고 있다. 2015년부터는 본교 학부모님 중 희망하시는 분도 재능기부 봉사활동에 함께 참여하고 있다.

팔공산지역아동센터 참여 학생은 3명 이상 다자녀가정, 교육급여대상가정, 전 국평균소득가구 70%이하 가정,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 지원 계층, 국민기초 생활보장수급권자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 교사와 학부모 봉사자는 계절과 시기에 따른 다양한 활동 주제를 선정하고 학생들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위한 교육취약계층 학생 돌봄 및 창의적 체험활동 기회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학년 초에 교사들은 재능기부 운영 프로그램을 논의하며 활동 내용을 대략적으로 선정하고 차후에 활동주제에 맞는 세부내용을 구체적으로 구상하였다. 주로 학교 교육과정 내에서 지도하기 어려운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의 교육요소를 추출하였다. 수업 전 프로그램 일지를 작성하며 활동내용을 다시 한 번 점검하고, 수업 실행 후 간단한 반성 일지를 적으며 자기평가를 통한 성찰과정을 가진다. 또한 동료 교사와의 협력을 통해 창의적인 수업 설계 및 수업 자료 개발에 힘쓰고 상호 피



드백 기회도 가지면서 재능기부 수업의 질을 높이고자 한다. 교사와 학생의 상호 작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때 교육의 효과가 극대화되므로 학생들의 잠재 능력을 최대한 이끌어 낼 수 있는 교수방법 개선노력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지역아동센터학생들은 알파벳 블록을 활용한 놀이를 통해 기본적인 영어 철자와 소리 간의 관계를 인식하여 단어 형성감 신장 및 유창성을 향상시키고 손가락 인형극으로 감정 표현을 연습하며 협동심을 기르게 되었다. 자신감과 자아 존중감을 높이기 위한 감정 나누기 및 감정 정화 기법도 실습해보았고 십자수 놓기 활동으로 주의집중력 및 성취감도 맛보았다. 그밖에도 학생들은 명화를 이용한 에코백 만들기, 목공예 인형 만들기, 냅킨아트 만들기, 메모지 북아트, 아트비드로 가방걸이 만들기 등의 미술 관련 활동과 숫자게임, 수학교구 게임, 창의 수학 등 수학 관련 활동 등 다양한 수업을 경험하게 되었다.

모든 교사가 재능기부 수업에 책임감과 열정을 가지고 학습의 개인차가 고려된 수준별 학습과 협력 학습을 전개하여 창의적, 자기주도적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업을 재구성하며 학생들과 활발히 상호 의사소통하면서 지속적으로 돈독한 신뢰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힘썼다. 또한 지역아동센터 학생들의 특기나 소질을 파악하여 격려하고 진로 지도 자료 및 정보 제공에도 심혈을 기울였다. 이 과정에서 우리 함살지모 꿈공동체 교사들은 함께 나누는 삶이 사회공동체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알게 되었고 나누는 기쁨과 마음의 성장을 깊이 깨닫게 되었다.

앞으로 봉사활동의 다변화를 위해 지역아동센터뿐만 아니라 일반 복지기

관이나 고아원 등 도움이 필요한 곳을 대상으로 활동의 폭을 넓히고 봉사단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교직원과 학부모뿐 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인사도 적절히 활용하여 구성원을 확충해나갈 계획이다.

교사와 함께 학급의 학생들이 친구들과 나눌 수 있는 재능기부의 종류에 대해 생각해보고 기부카드를 만들어 교실에 게시하며 재능기부를 생활에서 지속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학생들도 독려할 예정이다. 시간, 지식, 마음 등 누구든 나누려고 하는 마음만 있다면 당장이라도 손쉽게 나누는 삶을 실현할 수 있음을 우리 학생들에게도 알려주고 아이들이 이러한 나눔의 의미를 쉽게 이해하고 재미있게 실천해볼 수 있도록 잘 안내해 주고 싶다.



진정성 있는 나눔에 대한 교육이 교실에서 이루어진다면 학교가 더 이상 지식만을 전달하며 아이들의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곳이 아니라, 학생들의 자존감을 살려주면서 나눔의 즐거움을 누리며 사회에 꼭 필요한 가치를 배우는 희망의 공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우기 위한 배움과 돌봄이 있는 희망의 교육을 우리 사회 전체와 나누고 싶다.



장려상

뭐꼬? 독버섯이랑께! 아녀 식용이유!



장현유(한국농수산대학 버섯학과)

1982년 따듯한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기 시작할 즈음이었습니다. 혈기 왕성한 젊은 나이에 농촌진흥청에 입사하여 농업연구사로 첫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본인은 농진청 재직 기간 내내 버섯에 관한 연구만 담당했는데 입사한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선배 연구관님께서 다음과 같은 의미심장한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세상에는 말이야. 자식보다 더 말을 안 듣는 놈이 하나 있거든! 그게 버섯이란 놈이야! 버섯은 독종 중에서도 완전 독종이야!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잘 자라다가 이번에 새로 다시 해보면 뭐가 못마땅한지 전혀 크질 않아! 혹은 뭐 불만이 그리 많은지 그냥 오염이 나버리거든! 정말 제멋대로라고! 그 이유를 알 수 없을 때가 수도룩하니까 화병에 걸릴 수밖에 없는 게 버섯 연구사나 연구관의 운명이라구!”

떠그랄! 그리고 현재 재배가 안 되는 특히 외생 균근성 버섯(식물의 뿌리나 기주체에 기생하여 공생하는 버섯. 예: 송이버섯)을 재배하려고 하다가는 수명이 심히 단축될 수 있어! 그러니 너무 열심히 연구하다가는 남들보다 빨리 골로 갈 수 있음을 명심하라고! 하하하!”

당시에는 그 누구보다 더 열심히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넘쳤기에 선배님의 말씀에 공감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말씀이 100% 옳다는 것. 그리고 나라고 뽐족한 수가 없다는 약간의 좌절감을 맛보게 되는 데에는 결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니다. 다년간 정말 여러 연구를 진행하는 동안 수많은 어려움에 부딪히기 일쑤였습니다. 그런데도 부단한 노력을 통해 조금씩 문제를 해결해 나가다 보니 희열을 느끼는 날도 점점 더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버

섯 연구에 온전히 사로잡혀 있는 저 자신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정말 자나 깨나 버섯 연구에 완전히 미치다 보니 어느새 휴일 반납은 기본이 됐고 야근도 자청하며 끊임없이 버섯 연구에 매진하였습니다. 심지어 화장실에서 볼일을 볼 때도 “아~ 진짜 그게 왜 안된다냐? 선배님 말씀대로 버섯은 정말 떠그랄이구먼!” 이렇게 혼잣말로 마구 버섯에 대한 분노를 분출하며 궁시렁거리는 경우도 잦았습니다.

이렇다 보니 때로는 가족보다 또 때로는 저 자신보다 버섯 연구가 우선인 날이 많았습니다. 신혼 때 집사람이 이럴 거면 애초에 버섯하고 결혼하지 왜 나하고 했냐는 식의 핀잔을 주기 일쑤였고, 어쩌다 집에 일찍 들어간 날에는 “아니, 버섯쟁이 양반이 어인 일로 일찍 행차하셨대?! 살다 보니 별일 다 있네! 내일은 해가 서쪽에서 뜨려나?” 등의 혹독한 반응과 그 외에 본인만 알고 있는 여러 고된 시련(?)을 종종 겪어야 했습니다.

이처럼 15년을 농진청에서 열심히 버섯을 연구하다 1997년 한국농수산대학 버섯학과 교수로 치열한 경쟁을 뚫고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학교에 와서도 부단히 연구를 진행하였고 그러던 중 2008년 가을, 경사스러운 일이 찾아 왔습니다. 소위 국내 농업계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대산농촌문화상 대상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실 지금도 끊임없이 버섯에 관한 연구 강의, 그리고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만 농진청 재직 시절의 열정과 현재와의 열정은

비교할 수가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버섯 연구에 관한 열정은 여전히 뜨겁다고
감히 자부합니다.

이렇게 버섯과 함께한 세월이 어느덧 35년을 넘다 보니 본인이 연배상 버섯
업계 공무원 중 최고참이 됐습니다. 최고참이 됐다는 생각에 잠시 기쁘기도 했
지만, 결국, 내가 나이를 너무 많이 먹어서 고참이 됐다는 생각을 하니 서글픈
감정이 갑자기 쓰나미처럼 밀려와 공허감에도 빠지기도 했습니다. 버섯 연구에
수십 년을 매달리다 보니 본인의 재주 혹은 재능이라고 내세울 만한 것이 버섯
에 관한 이론과 실습, 또 그와 관련된 강의나 연구가 전부가 돼버렸습니다.

2011년 9월 첫 일요일 북한산 둘레길(도봉산 무수골 지점)을 등산하다 어
느 등산객 일행이 야생 버섯을 채집하여 각자 서로 다른 버섯의 이름을 주장
하며 독버섯이니 식용버섯이니 갑론을박하는 광경을 우연히 목격하였습니다.
상황을 지켜보다 본인의 신분을 밝힌 후 조심스럽게 논쟁에 개입하여 버섯의
분류동정을 해주었더니 뜻하지 않게 큰 박수와 갈채를 받았습니다. 한 등산객
이 흰가시광대버섯(독버섯)으로 콩팥 및 간 손상으로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을
식용버섯으로 주장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후 그 일행과 함께 산행을 즐
겼고 등산 내내 버섯에 관해 많은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농진청에서 한국농수산대학으로 자리를 옮긴 후부터 늘 사회에 금전 이외
의 무엇인가를 기부하고 싶은 생각이나 혹은 해야 한다는 의무감 또는 사명감
이 있었는데, 마침 도봉산 등산객의 버섯 분쟁 사건으로 인하여 등산객 중에

는 버섯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꽤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특히 등산객 중에 퇴직을 앞둔 사람이나
혹은 이미 퇴직한 사람 혹은 버섯에 관심
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무료 버섯 강의
를 하여 재능 기부를 해보면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어느 나라와 달리 불확실성 회피 지수(UAI, Uncertainty Avoidance Index: 애매모호한 상태를 얼마나 불편하게 체감하는지를 측정하는 지수)가 매우 높고, 또 장기지향성이 강하며 집단주의 성향이 뚜렷하다는 것을 평소에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간단명료한 내용 위주로 버섯 재배에 관한 무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되 장소를 교회로 할 수 있으면 재능 기부하는 데 안성맞춤일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주말이나 공휴일에 도봉산 등산객 수가 얼마나 되나 알아보니 족히 1,000여 명 이상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됐고 적당한 장소를 찾고자 도봉산 등산로 인근에 있는 교회를 알아보다 한 교회에서 장소 사용을 허락받았습니다.

도봉산 각 등산로 인근에 방을 붙이고
또 교회 사람을 통해 이리저리 수소문한
결과 첫 강의 수강자로 17명이 나타났습
니다. 강의 장소를 '마중물 버섯 아카데
미'로 명명하고 첫 교육을 3시간 가량 진



행했습니다. 이렇게 시작한 강의가 본인의 재능기부의 시작이었습니다. 첫 교육생들의 반응이 예상과 달리 너무 좋아 3시간 강의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바로 추가 강의를 요청하여 이에 3시간씩 4회 강의를 매주 일요일에 하기로 했습니다. 농업의 미래, 버섯업계의 현황, 버섯농사의 소득 등 농업과 버섯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공짜라는 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는 점, 또 일반인이 모르는 버섯에 관한 재미있는 얘기를 쉽게 전한다는 점 등이 등산객과 교회 신자들 사이에 소문이 퍼져 계속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2011년 가을부터 매주 일요일 오후에 무료로 3시간씩 강의를 해왔습니다. 이론 강의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귀농귀촌 희망자 중 버섯 농사에 관심이 있는 분들을 위하여 크린벤치시가 800만 원, 고압 살균 기사가 400만 원, 기타 실험재료(플라스틱 등)가 300만 원 등 버섯 관련 실험 도구를 자비로 제공하여 실습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나아가 여러 버섯 농가를 소개하여 실무 현장 교육도 가능하게 도왔습니다.



이렇게 마중물 버섯 아카데미 수료생들이 스스로 이야기를 퍼뜨려 수료생들이 새로운 수강생을 데려오는 선순환 구조가 됐습니다. 이리하여 지금까지 한 기수 당 20명씩 3기 수를 배출하여 약 600명 이상의 사람이 강의를 수료

하였습니다. 강의 수강생 중 현직 공무원이 몇 분 계셨는데 이분들이 도봉구청에 본인의 버섯 강의에 관한 이야기를 전해서 구청장님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이에 구청에서는 5,000만 원을 할애해 도봉 구민 150명에게 버섯 교육과 실습 지원하여 더 활발한 버섯에 관한 교육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수강생들은 버섯 이론과 실습을 마치고 가정에서 직접 안전하고 신선한 버섯을 길러 먹어보는 체험도 했습니다. 한편 아파트 지하의 유휴 공간을 활용하여 도시농업을 진행하던 SH공사와 연계하여 본인으로부터 버섯 전문 재배 교육을 받은 사람들에게 한하여 일자리가 주어지는 기회도 생겼습니다.

이처럼 도봉산 등산객의 독버섯 분쟁 사건 개입으로 얻은 아이디어로 시작한 재능기부가 다음과 같은 놀라운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수강생의 80%가 국가 기술 자격증인 버섯 종균 기능사를 취득했으며, 은퇴 후 마중물 버섯 아카데미를 수료하신 분 중 버섯을 키우고자 성공적으로 귀농하신 분들이 지금까지 약 50명 정도 되고, 현재도 여러분들이 귀농-귀촌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은퇴 후 소일거리와 안정적인 소득을 희망하시던 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 큰 보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진은 제주도로 귀촌하여 표고버섯 농사에 성공하신 분이 감사의 뜻으로



직접 재배하신 표고버섯을 선물로 가져온 것입니다. 일주일에 단 하루 몇 시간을 할애하여 본인의 지식을 나누었을 뿐인데 이처럼 은퇴자들의 제 2의 삶을 살아가는데 작은 경제적 도움과 기쁨을 드릴 수 있다는 것. 그리고 특히 그분들의 얼굴에 나타나는 활력과 미소를 보는 것만으로도 제게는 너무나 큰 기쁨과 보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작은 재주재능을 타인에게 나눌 수 있다면 대한민국이 더 행복한 세상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글을 읽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

봉사의 첫 걸음의 시작



양병수(경기남부청 의왕경찰서)

경찰관이라는 직업을 가지고 직장과 집 외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바쁘게 살아가던 내가 자원봉사가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자원봉사를 한 지 어느덧 18년이 되어간다.

1997년경 기동대 근무 중 수원역 시위 상황을 대비하다가 한쪽에 줄을 서 있는 사람들을 보고 궁금하여 기보았다. 어디선가 봉고차량이 오더니 차에서 무언가를 내리고 있었다. 밥통 및 기타 반찬통을 내리고 있어 물어 보았더니 여기 줄서고 계신 분들께 식사배식을 하려고 한다는 말을 들었다. 주로 어떤 분들이냐고 물었더니 노숙자, 어르신. 그밖에 기타 여러 사람들이 식사를 하신다고 하였다.

봉사하는 분들 중 나이가 지긋한 어르신도 눈에 띄었다. 나는 그 분에게 다가가 말을 걸면서 이것저것 이야기를 나누었다. 근무를 마치고 사무실에 있는데 그 어르신이 머릿속에 스치는 것이었다.

잘 지내시는지 궁금하여 며칠 뒤 수원역에 다시 기보았다. 그날도 변함없이 식사 및 배식을 하고 계시는 어르신께 인사를 하면서 어떻게 참여를 하면 되냐고 물어 보았다. “봉사하려고? 그러면 이 시간에 다시 오면 돼”라고 하여 다시 며칠 뒤 수원역에서 처음으로 국을 푸게 되었다. 처음에는 얼마큼 퍼야할지 몰라 국의 양이 넘치기도 하고 부족하기도 하였다.

그렇게 아무생각 없이 봉사가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마음을 굳게 먹고 시간 나는 대로 툼툼이 봉사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지만 직장 근무 여건상 비상근무, 기타 등으로 몸과 마음이 피곤하여 생각한대로 되지 않았다. 월 1회로 봉사할

마음은 먹었지만 생각처럼 되지 않았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직장근무 여건도 바뀌고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게 되면서 봉사에 한발 더 나아가게 되었다.

나는 인터넷 봉사 카페에 가입하여 월 1회 장애인시설에 방문하여 목욕 및 청소도 진행했다. 하지만 날짜와 시간이 제대로 맞지 않아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고 있던 중 한 자원봉사자로부터 조언을 들을 수 있었다. 가끔씩 찾아가는 봉사활동은 기관에서 많은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환영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한곳을 지정하여 주기적으로 참여하기로 하였다.



마침 집 옆에 노인복지관이 있어 그곳을 방문해 봉사하러 왔다고 이야기를 하였다. 상담사가 잘 오셨다며 복지관에 대하여 설명해주셨다. 그곳은 모 교회 재단에 속해 있고 여러 복지사업을 진행한다고 했다.

그 중 복지관은 시에서 위탁을 받아 운영 중이며, 어르신들이 점심식사를 하시고 각종 취미활동 및 여가생활 즐기는 곳으로 활용되었다. 주로 65세 이상 어르신이고 이용 인원은 400여 명. 어르신들에게 점심식사 제공하기 때문에 음식 준비 등 도와줄 일이 많다며 우선 설거지를 도와달라고 했다. 위생상 복장은 비닐로 된 앞치마, 고무장갑, 고무장화, 모자 등 완전복장을 해야 했다. 세척기가 있었지만 세척기 크기가 작아서 제대로 닦이지 않기 때문에 뜨거운 물을 사



용해야 한다고 말하셨다. 그리고 밥과 국을 푸고 반찬 배식도 해야 했다. 배식이 시작되자 앞 싱크대에 쌓여가기 시작하는 식판들을 보며 걱정이 앞섰다.

그렇다고 못하겠다고 할 수도 없었다. 정신없이 닦다보니 식사배식이 끝나갔다. 몇 개 식판을 남겨놓고 점심식사를 하는데 더운 열기와 땀으로 젖어 온 몸이 냄새가 나고 이렇게 설거지가 힘든줄 몰랐다. 집에 오자마자 피곤해서 잠 들고 말았다. 이후 본격적인 봉사활동을 시작하게 되었고, 월 4회는 무슨 일이 있어도 봉사에 참여하겠다는 생각으로 모 단체가 운영하는 이동식 밥 차량에도 참여하여 식사배식을 하는 등 지금까지 봉사활동에 참여 중이며 630여 차례에 걸쳐 1,300시간이라는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앞으로도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 있으면
힘 닿는 날까지 봉사에 참여할 계획입니다.
생색내기로 봉사하기 보다는 진정한 마음
으로, 버림받은 이들을 모른 척하기보다는
진정한 마음으로 베풀어 줬으면 좋겠다.



장려상

재능기부로 함께 만들어나는 과학이야기!!



익산STEAM연구회(익산STEAM연구회)

토요일 아침이면 분주한 하루가 시작된다. 우리 연구회가 매년 해오는 나눔과 배려의 교육기부를 제공하는 날이기 때문이다. 익산스팀연구회는 Science(과학), Technology(공학), Engineer(기술), Art(예술), Mathematics(수학)의 이니셜을 딴 '스팀(STEAM)'이란 명칭이 말해주듯 '융합인재'를 양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

며, 농촌학생들을 위한 찾아가는 과학교실을 매주 토요일에 열고 있다.



토요일 하루의 봉사활동을 위하여 연구회 각 분과별 선생님들은 일주일 동안 재료를 준비하여 맡은 바 역할에 따라 아이들에게 재능기부를 선물하기 위한 시간을 갖는다.

처음 과학교과 모임으로 시작했을 때에는 분과 구분 없이 활동하였으나 회원 수의 증가와 연구회 안에서 전문적인 분야를 확충하기 위해 총 4개의 분과를 두어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선생님들 각자의 관심과 적성에 따라 로봇, 메이킹, 생활과학, 물리화학 분과로 나누어 각 분과장 및 분과별 선생님들을 구성하고, 분과별 활동주제를 정하여 이에 따라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우리의 이런 모임은 201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과학교과 교육에 관심이 높은 23명의 선생님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만들어진 연구회였지만 교과 이상의 다양한 활동 전개를 위해 새로운 마음으로 2013년 익산스팀연구회로 출발하였다.

익산스팀연구회의 구성목적은 익산지역 소외계층 대상 학생들에게 재능기부를 제공하는 데 있지만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지역과학축제 및 다양한 분야에서 열성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각 분과별로 연구한 주제에 따라 로봇, 액체 탐 썰기, DNA팔찌, 탕탕볼 만들기, 연기 뽑는 용가리, 매직풍선, 글라이더 날리기, 에어로켓, 솜사탕, 슬러시 만들기, 마술 시연, 3D 펜과의 만남, 진동펜, 로봇과의 만남 등 신기하고 재미있는 교육이 이뤄진다. 연구회 선생님들이 참여 학생들과 함께 즐기면서 원리를 배우고 학습하기 때문에 참가하는 교사 및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다.



우리 연구회는 매년 지역사회 농산어촌을 방문하며 각자 자신 있는 과학 분야의 재능을 기부한다. 한 달 평균 2번 이상 농산어촌 학교를 방문하여 아이들과 만나며 서로의 이야기를 속삭이며 대화를 나눈다. 그리고 연 2회 지역 과학축제 부스운영을 참가하여 익산지역 학생 및 학부모들에게 과학의 세계를 알리고 홍보한다. 늘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기 위해 노력하기 때문에 우리 연구회를 바라보는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의 시선은 언제나 우리를 응원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다.

“선생님 너무 신기해요. 이걸 어떻게 이렇게 된 거예요? 너무 재미있어요!”라는 말들을 들 때 연구회원들은 힘을 낸다. 그리고 또 다시 다음 봉사활동을 준비하게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역 장애학교를 방문하여 장애우들과 함께 즐거운 시

간을 선물하고 돌아온다. 단지 일회성으로 끝나는 봉사활동이 아닌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 봉사활동이 갖는 의미를 찾게 된다. 비록 말을 잘 하지 못해 말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그들의 표정을 보면 너무나 즐거워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말하지 않더라도 느낄 수 있는 친밀감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시골학교이기 때문에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이 어렵다는 편견보다 이를 보완하고 교육의 다양성을 접해주기 위한 지역사회 부스운영 등 다양한 활동을 기부형태로 제공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연구회 존재 이유이다.



과학을 통한 꿈 이야기를 나눠줄 수 있는 시간들을 앞으로도 계속 전할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 익산스팀연구회는 더욱 더 발전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언제나 노력하는 우리 스팀연구회 회원님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다.



장려상

소통하GO, 배우GO, 나누GO, 사랑과 나눔으로 함께 가요!!



경기도초등보건교육연구회(경기도교육청)

건강한 학생, 안전한 학교, 행복한 교사를 위한 다양한 시도와 아낌없는 노력을 쏟아 부으며 나눔과 사랑으로 푹푹 뭉친 경기도초등보건교육연구회(회장 전은경 장학사)는 2006년 몇몇 뜻있는 보건교사들이 모여 첫 발을 내딛은 지 올해로 10여 년을 넘어서고 있다. 건강한 학생교육을 위한 연구 활동과 함께

소외지역 학생은 물론 장애인 시설을 방문하며 시작한 작은 나눔 봉사는 이제 연구회의 중요한 필수 사업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보건교육봉사 및 의료봉사 등 건강나눔 활동이 뿌리를 내리게 된 데에는 20명의 연구위원과 필요할 때마다 흔쾌히 손을 맞잡고 멀고 꼬불꼬불한 시골길도 마다하지 않고 적극 지원해준 120여 명의 회원들의 노고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병원 응급실만큼은 아니어도 쉬는 시간이면 종이에 베인 아이부터 축구공대에 매달리다가 팔이 빠진 아이, 눈에 모래가 들어간 아이까지 다양한 증상을 가진 아이들로 대부분의 학교 보건실 앞은 장사진(?)을 이루곤 한다. 학교 내의 유일한 의료인으로 '간호사로서 의료인 면허와 교사로서 보건교사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보건교사는 응급처치와 예방안전교육으로 손과 입이 빠르게 움직이는 시간이다.



이런 바쁜 학교생활 중에 교사와 간호사라는 2개의 직함을 적극 활용한 보건교육 및 의료봉사 등 건강나눔 봉사는 지역아동센터, 장애인시설 등을 찾아다니며 작은 사랑을 실천하는 활동이다. 최근 들어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다양한 척도 중에 건강은 선택이 아닌 필수요건으로 건강 분야에 대한 요구도가 점점 높아



지고 있다. 소외지역 등 학생과 지역 사회에서도 보건의교육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교육 대상도 점차 확대되고 있어 본 연구회의 다양한 활동 중에서도 교육 기부와 나눔 봉사의 요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회에서는 경기도 내 도서벽지 학생 대상 교육봉사로 시작된 나눔 활동을 난치병학생지원, 장애우시설 목욕 봉사, 외국인근로자 대상 심폐소생술교육 등 교육 및 의료서비스 제공 응급처치 교육봉사로 확대하여 다양하게 펼쳐오고 있다. 2014년에는 한국을 넘어 마추픽추의 나라 페루까지 날아가서 찬차마요시(시장:마리오 정)에서 지역주민을 위한 혈압과 당뇨체크 등의 의료봉사지원과 학교관리자와 교사 대상 심폐소생술의 보급, 학교보건 시스템의 정착을 위한 다양한 정보제공 활동을 하여 국내를 넘어 세계를 향한 힘찬 시도를 성공리에 마무리하였으며, 또 다른 세계로 향한 기회를 얻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초등보건의교육연구회 10여 년간의 교육 기부와 나눔 활동을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하나, 나눔의 행복, 함께하는 기쁨 “건강교육캠프·건강나눔”

지역과 단체의 각기 다른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는 맞춤형 나눔을 실천해가고 있는데, 건강교육나눔, 성교육, 약물오남용예방교육, 심폐소생술을 포함하는 안전교육, 구강교육, 손씻기 등 개인위생교육을 아우르는 건강증진교육을 실천하고 있다.

외국인근로자 자녀 및 시설 청소년들에게 교복 및 참고서 지원을 위한 사

랑 나눔 축제, 안산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혈압 및 혈당검사, 건강상담 및 건강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외국인 자녀 및 시설보호 청소년들에게 건강체험 부스 운영을 통한 흡연예방교육, 심폐소생술교육, 성교육을 실시하였다.



장애우시설 등을 정기방문하여 장애우와 교사들에게 등 개인위생 교육 및 장애우 눈높이에 맞춘 성인권 교육을 실시하였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 및 시설 청소년 대상 성교육, 건강체험교육, 장애우와 함께하는 동행 참여 등 함께 나누는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있다.

🌱 들, “나누면 반이 되는 아픔, 함께하면 배가 되는 희망”

보건선생님과 함께하는 희귀난치병 학생 지원은 2008년 5월 10일 오산 공설운동장 난치병 친구 돕기 베품시장, 바자물품 기증, 보건교육 체험학습활동 전개로 학교보건 교육활동 홍보, 학부모와 지역사회 주민들의 자기건강관리능력 향상을 위한 기회 제공 등의 활동을 시작으로 경기도교육청(2010.10.23.), 수원영통지구잔디구장(2011.10.08.), 용인아르피아공원(2012.10.20.), 이천온천공원(2013.10.12.), 평택공원(2014.10.18.)까지 실시되었고, 희망과 꿈을 나누는 릴레이 나눔 봉사 활동이 지속되고 있다.



🍃 셋, “한국을 넘어, 보건교사가 함께 하는 해외 봉사활동”

2015년 1월 13일부터 25일까지 11박 13일의 페루 찬차마요시 해외 봉사활동 실천으로 Global Leadership 함양과 찬차마요 주민과 학생의 건강증진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또한 찬차마요 학교 관리자 및 교사 등 학교보건인력의 역량 강화는 물론 건강검사, 심폐소생술 등 연수를 통해 학교보건의 중요성을 알리고 학교보건 봉사활동을 통해 현지인에 대한 화합과 배려, 존중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페루 최초 한인 시장이 있는 찬차마요시는 찬차마요 시민 건강의 날 행사, 건강체험코너 운영, 태권무, K-POP 등 문화교류를 진행하였다. 찬차마요 학교 교장 및 보건교사를 대상으로 학교보건 교류, 연수 및 체험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한 해외 자원봉사 활동은, 방학기간이었음에도 교사 및 학생들의 많은 참여로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



초등보건교육연구회는 경기도 내 소외지역 학생 대상 작은 교육봉사로 시작되어 난치병학생지원, 학교 밖 청소년성교육, 흡연예방교육, 건강증진교육 등 교육봉사로 이어졌다. 나이가 몸이 아파도 진료비가 부담되어 제대로 병원 진료를 받을 수 없는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혈당검사, 혈압측정 등 건강상담과 필요 시 병원의뢰 등의 활동을 실시하였고, 외국인근로자들의 높은 호응에 힘입어 보건교육도 실시하게 되었다. 흡연예방, 성교

육, 심폐소생술교육 등 근로자들은 생소하지만 처음 받아보는 보건교육에 높은 관심을 나타내며, 많은 질문과 함께 다음 교육날짜를 손가락으로 꼽아보는 그들의 태도를 보면서 초등보건교육연구회 회원으로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었다.

또한 페루 찬차마요시의 학교보건시스템 정착 활동의 행복한 영향으로 캄보디아에도 한국 학교보건시스템 매뉴얼과 건강검사 기구가 제공되었고, 학생과 교사 대상 보건교육을 확산하는 등 한국을 넘어 세계를 향한 보건봉사 영역이 확장의 계기를 갖게 되었다.

초등보건교육연구회 회원들은 소박하지만
다부진 꿈을 꾸며 살아간다. 원하는 곳이면 어디든 달려간다! 원하는 소리와 눈빛을 듣고 본다!

보건교사가 미배치된 벽지학교, 학교 밖 청소년이 있는 시설, 외국인 근로자 마을 등 건강한 나라 꿈꾸며, 우리들의 손길을 기다리는 곳이라면 어디든, 누구에게든 달려갈 준비가 되어 있다. 이를 위해 우리들 자신을 담금질할 마음 또한 준비되어 있다. 교육봉사 전문 인력 확대를 위한 매뉴얼 제작 및 보급, 봉사 참여자 확대를 위한 다양한 홍보, 난치병 학생을 위한 보건서비스 제공 및 기금 마련활동 등이 바로 그것이다. 아울러 아직 낙후된 다른 나라에도 경기도의 우수한 학교보건 매뉴얼 보급, 학교 보건실 설치 방법 안내, 학생 스스로 자신의 건강관리능력을 터득할 수 있는 교육 기회 제공 등 세계를 향한 학교보

건 시스템 보급에도 노력을 경주하고자 한다.

작지만 소중한 무엇인가를 향해 갔던 길은 때론 멀기도 했고, 때론 꼬불꼬불한 산길의 막다른 길목에 있기도 했으며, 가까운 곳이라도 주차를 못해 발을 동동 구르기도 했다. 오래된 냉방장치는 제 기능을 다하기에 역부족이었고 우리들은 대부분 땀범벅이 된 적도 있었다. 짙은 땀이 눈 안으로 들어가서 눈물이 되어 흐르기도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것은 어쩌면 땀이 아니었을지도 모르겠다.

그곳에서 마주친 천사들에 대한 경이로운 눈물이었을까? 돌아오는 길에 손을 흔들어 주던 그들의 손길에서 우리들이 본 것은 헤어짐의 인사가 아니라, 다음 만남을 기약하는 소리 없는 약속이 아니었을까? 오늘도 초등보건교육연구회 회원들은 알고 있다. 그들을 향한 작은 나눔이, 커다란 희망과 행복이라는 열매를 맺을 거라고 말이다.

통계로 보는 세상



통계교실 교육기부단(호남지방통계청 사회조사과)

나는 통계조사를 하는 통계청 공무원이다. 내가 하는 업무는 가가호호 방문해 첫 만남을 갖고 가계조사와 경제활동인구조사를 설득하는 일이다. 실제로 조사를 해보면 응답자들이 통계에 대해 무척 생소해 하고 어려워한다. 통계가 무엇인지, 이 조사를 왜 하는 것인지, 통계가 정책에 어떻게 사용되는지 등

대부분의 사람들이 통계를 어려워한다. 아이들 또한 그렇다. 학생들 모두 정규 교육 과정으로 통계라는 과목을 배우지만, 어려운 수학의 일부라고만 생각할 뿐 아주 어렵게 느끼곤 한다.



우리 호남지방통계청은 미래세대 응답자이자 통계이용자인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통계활용에 대한 이해와 재미를 돕고 충분한 공감대 형성으로 조사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신입 직원들을 중심으로 찾아가는 통계교실이라는 통계교실 교육기부를 하기로 했다.

사실 호남청 어린이 통계교실은 1990년대 후반부터 결성되어 연 1~2회 정도 간헐적으로 실시되었다가 2009년도부터 체계적인 통계교실 재능기부 활동이 시작되었다. 우리 통계교실 재능기부단은 통계교육을 원하는 학교를 직접 찾아가 통계청이 무슨 일을 하는 곳인지 소개하고 통계가 무엇인지, 그리고 실생활에서 통계가 어떻게 이용되는지에 대한 이론 강의를 한다. 이론 강의를 끝내면 본격적으로 통계 포스터그리기 실습을 한다.

통계 포스터란, 주제를 정해 그 주제에 대한 통계 자료 수집 및 해결 방법에 관한 내용을 한 장의 발표 자료로 완성하는 것을 말한다. 보통 2시간 내외의 짧은 시간이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과자나 막대 사탕을 준비해가서 아이들이 직접 분류해 보고



표로 정리해서 그래프를 그려볼 수 있도록 하는 실습만 진행한다. 이러한 놀이 위주의 체험활동을 통해 아이들이 통계에 대해 어려워하지 않고, 생활 속에서도 이렇게 통계가 많이 쓰이는 구나를 깨달을 때 보람을 느낀다.

이런 뿌듯한 감정을 도시의 아이들뿐만 아니라 교육사각지대인 산간오지낙도의 학생들에게도 전하고 싶다는 의견이 모여져 올해 2016년도에는 교육기부의 중점 추진방향을 소외지역으로 설정하고 교육기부활동을 시작했다.

4학년 이상 전교생이 8명에 불과했던 제주도 추자면의 추자초등학교를 방문했을 때는 광주에서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에 도착하여 여기서 또 하루에 2~3편 운행하는 배를 타고 추자도로 들어갔다. 파도가 세서 배 멀미가 심하다는 말을 듣고 멀미약까지 미리 사먹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배에 몸을 실었다. 다행히도 그날 바람이 세지 않아 우리들은 모두 무사히 추자도에 도착할 수 있었다. 추자도에 도착해서도 교통편이 좋지 않아 펜션 사장님의 차를 얻어 타고 서야 학교에 겨우 도착할 수 있었다.

어렵사리 학교에 방문해 담당 선생님과 대화를 나눠보니 지금도 전교생 수가 정말 작은 학교지만 이마저도 해마다 육지로 전학을 가는 학생들 때문에 폐교위기에 몰린 학교였다. 수업을 하러 교실에 들어가 보니 개구쟁이들처럼 뛰

어 노는 모습이 도시의 아이들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었다. 학생 수가 적다보니 오히려 더 가족 같고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다. 육지에서 온 선생님을 처음에는 낯설어 하더니 어느새 친해져서 이것저것 질문을 하기 시작했다. 우리가 사용하는 스마트폰 사용시간, 일주일에 받는 용돈도 통계가 될 수 있다고 하니 무척이나 신기해했다. 또한 선생님처럼 통계청에서 일하고 싶다고 어떻게 하면 통계청에 들어올 수 있냐고 질문하는 아이들도 많이 있었다.

처음에는 지식을 전달 할 목적으로 시작한 재능기부였지만, 우리의 교육이 소외계층 아이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으며, 통계를 알리고 차후에 아이들이 통계조사 응답자가 되었을 때 정확한 조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생각에 정말 뿌듯했다.



이 글을 통해 공직사회에서 봉사활동이나 교육기부 문화가 더 활성화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끝으로 우리 호남지방통계청의 교육기부도 정확한 조사를 위해, 어린이들의 미래를 위해 계속될 것이다.

통계가 가까운 곳에 속속들이 숨어 있어요.

추자초등학교 6학년 이소연

오늘은 특별한 수업이 있는 날이다. 호남지방통계청 제주사무소에서 어린이 통계 교실을 운영하러 여 선생님 다섯 분이 우리 교실을 방문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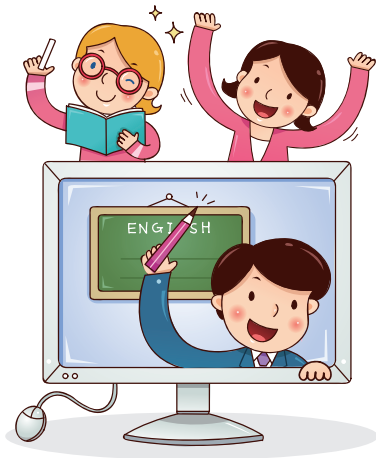
강사 선생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통계가 뭔지, 통계청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를 물어보았다. 나 뿐만이 아니라 우리 반 친구들 모두 조용히 강사 선생님만 쳐다보았다. 선생님께서는 통계의 뜻과 통계청에서 하는 일을 설명해 주셨는데 통계란 수집된 자료를 정리하고 그 내용에 따라 숫자로 나타내는 것이라고 알려주셨다.

수업은 강의와 실습으로 이루어졌는데, 모두 흥미롭고 재미있었지만 특히 수업 시간에 사탕을 먹어가면서 공부를 한다는 게 정말 재미있고 신났다. 두 모듬으로 나누어서 활동하였는데 미니팝스라는 사탕을 이용하였다. 표와 그래프로 나타낼 수 있도록 사탕의 맛에 따른 사탕을 나누고 그 수를 세어보았는데, 나는 그 내용을 표로 나타내는 역할을 맡았고, 한별이는 그래프로 나타내기, 자훈이는 사탕의 맛에 따라 분류하는 역할, 난주는 발표를 맡았다. 그렇게 맡은 역할에 따라 활동하다보니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어느새 두 시간이 훌쩍 지나 있었다. 4절 도화지에 그래프를 작성하고 소감까지 완성한 뒤 두 모듬의 발표가 이어졌다. 난주가 발표를 잘 해주었다. 선생님께서는 두 모듬 모두 잘하였는데, 우리 모듬이 소감까지 정성스럽게 잘 썼다고 하시며 우리 모듬에게 특별한 선물을 더 주셨다.

나는 통계가 어렵고 나오는 별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고, 쉽고 가까운 곳에 있으며 일상 생활 곳곳이 숨어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통계청도 나와 가까이 있는 기관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선생님들께서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고, 선생님 두 분은 나의 친척이 사는 광주에서 오셨다고 하셔서 더욱 짝짝 놀랐다. 정말 뜻 깊은 시간이었고, 수업을 진행하고 보조 역할을 해 주신 모든 선생님들께 감사하다. 다음에도 이런 기회가 꼭 왔으면 좋겠고, 배운 것을 활용하면서 생활해야겠다.

10만 명의 제자를 꿈꾸며...



허준석(범박고등학교)

2005년 3월, 교사가 되어 처음으로 교단에 섰을 때의 떨림이 기억난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교육 경력이 점점 쌓여가면서 떨림보다는 교육 철학에 대한 고민이 시작되었다. “교사는 교실에 있을 때 가장 아름답다”고 말씀하신 선배 교사가 계셨다. 하지만, 그 교실이라는 게 비단 물리적인 교실만을 의미하는 것

은 아닐 것이다. 내가 근무하는 학교에서 담당하는 교실은 10개가 채 되지 않지만, 어느 산촌 해가 지는 곳과 바다 내음이 느껴지는 어촌 마을의 학교에도 내 수업을 좋아해줄 학생들이 있으리라.

물리적으로 동시적인 수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는 데는 한계가 있겠지만,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발달로 비동시적인 수업을 진행하는 것은 가능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한국의 '칸 아카데미'를 꿈꾸며 적금 통장을 용감히 꺼고 영상 제작 자금을 마련했다. 사실 인강 사이트 수준으로 영상을 제작할 업체를 찾았고 바로 강의를 제작했다. 동시에 다양한 인터넷 플랫폼을 사용해서 영상 노출을 시작했다.

물론 쉽지 않은 여정이었다. 무료가 넘쳐나는 세상이었고, 진짜와 가짜 콘텐츠가 섞여 있는 정보의 홍수 속에 교사로서 '겸손'을 강요받다가 적극적으로 내 것을 홍보한다는 것은 참으로 낯 뜨겁고 어려운 일이었다. 하지만 네이버 카페, 블로그, 페이스북, 유튜브 채널 등 다양한 플랫폼을 사용해 보면서 시행착오를 거쳤고 플랫폼 각각의 장단점을 파악하게 되었다.

온라인 강의는 서서히 조회 수가 올라가게 되었고, 사람들을 만날 때가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영어 파티를 기획하고, 자원봉사를 도울 스태프들을 온라

인에서 모집했다. 다행히도 온라인에서 내 강의를 들었던 온라인 제자들과 카페 회원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다. 그러나 장소 대관은 쉽지 않았다.

회비를 걷어 운영하는 행사가 아니었고,
학교보다 더 자유로운 느낌의 공간을 선호
하는 나에게 대관은 가장 큰 난관이었다.



다행히도 SNS 활동을 다양하게 하면서 만난 지인의 도움으로 그가 운영하는 홍대 부근의 공간을 통째로 빌릴 수 있었고, 무사히 제1회 행사를 치를 수 있었다. 첫 행사에 무려 60여 명의 사람들이 찾아와 주었다. 이후 2회, 3회 행사를 치르면서 멀리서는 통영, 대구, 춘천에서까지 모임을 찾아주는 분들도 계셨다. 그분들과 영어로 이야기하고 영어 공부의 근원적인 고민을 이야기하였다. 이렇게 모임은 쉽게 정리화될 줄 알았다. 하지만 그것은 내 착각이었다.

나는 '고3 답임'이다. 주중은 학교에서 온전히 소화해야 하고, 주말마저 이스터디 봉사활동이 차지하다 보니 가정생활과 병행하기가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다. 두 아이의 아빠이기에 여러 차례 어려운 문제가 있었지만, 와이프의 도움과 훗날 내 아이가 영어로 즐겁게 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든다는 생각으로 그 순간을 극복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내 원어민 친구들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한국에 와서 오랜 시간을 머무르는 원어민들인지라 이 행사에 참여할 것을 권했고 그들은 약속이나 한 듯 흔쾌히 승낙했다.

그렇게 영어로 노는 '영어 파티'는 온오프라인을 활용하며 다양한 사람들을 받아들였다. 왕초보 학습자들도 처음에는 두려워하다가 1시간이 지나면 영어로 곧잘 말했고, 모르는 것을 적극적으로 질문하는 등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굉장히 즐거운 일이었다.

또한 모임을 진행하다보니 한국 사람들의 영어에 대한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의 원인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었다. '성적향상', '승진' 외에도 '공부자체가 목적인 영어 학습', '자아실현형 영어 학습자'가 아주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 요구들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 준다면 사교육비도 줄일 수 있고, 무엇보다 사람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다고 생각했다.

문제는 강의를 제작할 물리적 공간과 비용이 더 이상 없다는 점이었다. 적금 통장이 더 없었기(?) 때문에 철저하게 저비용 고효율 전략을 써야만 하는 상황이었다. 이미 사설 업체를 통해 제작을 해보았기 때문에 그들의 시설, 음향장비, 편집프로그램 등에 대한 정보는 알고 있었다. 그래서 일



단 학교에서 캠코더를 빌리고, 지인에게 튼튼한 삼각대를 빌렸다. 아울러 시세를 파악한 뒤 가성비가 가장 좋은 방송용 무선 핀 마이크를 거금을 들여 구매했다. 장비는 더 할 나위 없이 완벽했다. 남은 것은 스튜디오. 대여비가 만만치 않았고, 대여 시간에 큰 제약이 있었기 때문에 가장 어려운 문제였다. 그리하여 교육청부터 경기도 내의 학교들을 찾아봤지만 사설 스튜디오의 시설과 맞먹는 동시에 내 일정대로 쓸 수 있는 곳을 찾기란 하늘의 별 따기였다. 지인이신 장학사님께서 평택 교사 연수원의 스튜디오를 소개해주셨지만 왕복 4시간에 가까운 거리는 큰 걸림돌이었다. 스튜디오 봉사를 하던 홍대 부근에서 촬영이 가능했지만, 고정된 칠판 시설이 없었고 손님들이 있으면 강의를 찍을 수 없었기 때문에 이 또한 사용할 수가 없었다. 이렇게 내 고민은 커져만 갔다.

원룸을 전세로 구입해 스튜디오를 구축할까도 고민을 했다. 하지만 와이프와 상의에 상의를 거듭한 뒤, 대출을 받아야 하는 문제와 시설 관리 문제 때문에 힘들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렇게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 촬영을 하지 못하는 쪽의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결국 다시 돈을 모아 사설 스튜디오를 빌리는 쪽으로 생각하게 되었지만, 여전히 지속가능한 방법은 아니었다.

그래서 SNS상의 많은 지인들에게 자문을 구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송도에서 학원을 운영하는 한 원장 선생님께서 편한 시간에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겠다고 연락이 왔다.

그 어떠한 홍보나 금전적 거래 없이 비는 공간을 마음껏 사용해달라는 말씀에 눈물이 날 것 같았다. 답사를 해보니, 빔 프로젝터와 칠판, 나아가 강의실 크기까지 인터넷 강의를 제작하기에 딱 안성맞춤이었다. 심지어 높은 천정과 조명시설까지 있어 더할 나위 없는 환경이었다. 그렇게 나의 두 번째 강의 제작이 시작되었다. 학교생활에 지장이 없는 방학 때와 주말 아침을 활용했다. 새벽 5시부터 일어나서 스태프들을 픽업하러 가고, 촬영 대본을 숙지하고 간식을 제공했다. 모든 일이다 잘될 것 같았다. 하지만 막상 촬영에 돌입하니, 오디오 문제와 카메라 앵글 등으로 인한 소소한 문제가 계속 발생했다. 이 또한 시행착오라는 생각으로 임했고, 특히 온라인에서 제자였던. 이제는 대학생이 된 스태프들의 도움으로 무사히 촬영을 끝마쳤다. 오디오 확인, 자막 작업, 인코딩 작업 등을 다 같이 했고 최종적으로 유튜브에 업로드 작업까지 다 마쳤다.

스스로 제작부터 출품까지 하는 공정을 해 보니 쉽지 않았지만, 노하우가 조금씩 축적되는 것이 느껴졌다.

이제 강의용 무료 책자 편집, 강의용 교안, PPT 등을 제작하는 것도 자원봉사 팀과 함께 진행하는 시스템을 견고히 구축했다. 이 모든 것들이 결과가 아닌 과정을 직접 겪어가며 쌓아놓은 것이고, 나 혼자서가 아닌 많은 사람들과의 협업을 통해 다진 것이기 때문에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동시에, 이제 구독자 5500명을 넘긴 유튜브 채널도 내년에는 10,000명을 넘어 언젠가 10만 명을 목표로 달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10만 명의 제자. 그들에게 3만 원의 사교육비만 절약해줘도 30억 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산술적 계산이 나온다. 그래서 이미 내 마음은 30억 부자가 된 것 같다. 그렇게 강의를 마음껏 찍을 수 있는 방학이 오길 간절히 기다린다. 새벽에 자동으로 눈이 떠지는 떨림과 두근거림의 시기가 곧 다가온다. 야호!

만화가의 꿈을 박물관에서 이룬다



방용진(국립춘천박물관)

2002년 개관한 국립춘천박물관은 매년 전국에서 20만 명 이상의 관람객이 찾아오고 있으며, 강원지역 역사·문화의 중심으로서 확고히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자연경관과 건축물이 아름다운 이곳에 근무하면서 한 가지 꿈을 더 이룰 수 있었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만화와 캐릭터를 너무 좋아해서 고등학교와 대학시절에도 전공과는 무관했지만 틈틈이 그림을 그리고 연습을 했습니다. 의무경찰로 중앙경찰학교 교재계에서 근무하던 시절에는 특기를 활용해서 중앙경찰학교 신입경찰교육용 책자에 각종 삽화를 그리기도 했습니다.

독학으로 만화와 캐릭터 공부를 했기에 전문적으로 만화를 공부한 작가들에 비하면 실력이 많이 모자랍니다. 크고 작은 만화-캐릭터 공모전에 여러 번 응모했지만 지방의 문화재단에서 개최한 전국 캐릭터 공모전에 입선한 것이 유일한 수상경력이었습니다.(춘천 애니타운 페스티벌 캐릭터부문 입선, 2003) 그래도 워낙 그림 그리는 일을 좋아해서 펜과 종이만 있으면 하루 종일 심심하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매일 그린 그림을 한 장 한 장 모으다 보니 이전에 그린 그림에 비해 조금씩 실력이 나아지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2005년 국립춘천박물관에 임용된 후 2년 동안 박물관의 전반적인 업무를 익혀나가면서, 2007년에는 우리 박물관을 홍보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어린이용 웹툰과 박물관 캐릭터를 직접 제작해서 저의 재능을 기부해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당시에는 신임관장님께서 직원들의 숨은 능력까지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근무여건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제게는 재능을 기부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제가 그린 홍보 웹툰이 박물관 홈페이지에 게시되고, 캐릭터를 이용한 만화연하장, 캐릭터 볼펜, 캐릭터공책 등이 배포되었습니다. 홍보 웹툰에서는 국립춘천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국보 제124호 한송사석조보살좌상이 일제강점기에 일본에 무단 반출되었다가 반환받은 일화와 같은 역사 관련 이야기들을 주로 다루었습니다.

박물관의 다양한 전시·교육 프로그램에 제 그림이 활용되면서 모든 직원들이 저의 기부내용에 대해 알게 되었고, 이후 전시와 유물보존처리 등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학예연구실에서는 전시와 관련하여 삽화가 필요한 경우 조금씩 제게 그림을 부탁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예산이 충분하다면 미술을 전공한 전문일러스트레이터(삽화가)를 초빙하여 정당한 비용을 지급하고 작업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한정된 예산으로 이런 작업을 하는 데에는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저 또한 미약한 실력이지만 중요한 전시에 그림을 그릴 기회를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최선을 다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 덕분에 연간 3~4회 정도의 기획전에도 삽화(일러스트)가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도움을 드릴 수 있었고 제 그림도 회차를 거듭할수록 조금씩 더 자연스럽게 발전하여 스스로도 많은 보람과 기쁨을 느꼈습니다.



국립춘천박물관의 상설전시실에는 조선시대의 여러 고문서(古文書)들이 전시되어 있는데, 고문서의 내용이 짧은 설명으로만 되어 있어 관람객들의 이해가 어려웠기 때문에 문서 아랫부분에 삽화를 넣어 이해를 돕기로 학예연구사 선생님들과 협의하였습니다. 이전의 고문서 코너는 내용이 어려워 관람객들이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많았으나, 만화형태의 삽화가 들어간 이후에는 관람객들이 그림에 관심을 보이며 그에 관련한 내용들을 더 꼼꼼히 보게 되었고, 2007년부터 현재까지 인기코너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상설전시실에 기부된 저의 일러스트(삽화)는 고문서 코너 이외에도 '대한제국 군대해산', '항일의병 활동' 등이 있으며, 청동기시대 코너에는 길이 6m 정도의 대형 패널에 당시 사람들의 생활상을 그린 삽화가 전시되고 있습니다.

전시용 일러스트 이외에 우리 박물관 소장 유물 및 강원도내 중요 유물들의 이미지를 모티브로 하여 '국립춘천박물관 종이가방'을 직접 디자인했으며 2007년부터 현재까지 홍보분야에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5만㎡에 달하는 박물관 경내 숲과 산책로, 잔디밭에는 여러 종류의 나무



들이 식재되어 있는데, 관람객들이 이 나무들의 이름과 정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박물관 캐릭터를 활용한 나무이름표를 제작하여 활용하였습니다. 이때는 캐릭터 디자인 외에도 제가 대학에서 임학(林學)을 전공한 것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국립춘천박물관은 유물의 전시, 발굴, 보존, 연구와 같은 업무 외에도 문화교육·강좌, 시설대관, 국악·클래식 공연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고 있는데 이를 홍보하기 위해 홈페이지, 홍보전단, SNS 등을 활용하고 있으며, 이런 분야에도 담당부서의 지원요청이 들어오면 만화와 캐릭터 등을 그려 제공하고 있습니다.

만화를 그리다보니 미적(美的) 감각도 좋아져서 사진과 표어부문에서도 그 효과를 보기도 했습니다. 2008년 제18회 공무원 미술대전에서 사진부문 동상(작품제목:고요한 식사)을 수상했으며, 2009년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이웃돕기 직원표어공모에서 차석을 차지하였습니다(함께 나누는 情, 따뜻한 우리 文化).

외국어에도 관심이 많아 능숙하진 않지만 영어와 일본어는 일상적인 대화가 가능하며, 중국어도 이제 시작단계이지만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소속된 기획운영과 고객지원팀은 대민서비스와 고객안전이 주요 업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계화 추세로 인해 우리 박물관을 방문하는 외국관광객이 증가하고



있어 외국어 공부는 필수사항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수년 전 우리 박물관과 업무협약을 맺은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소재 에르미타주 박물관 직원들이 방문을 했을 때 환영회식 자리에서 제가 우리나라에도 잘 알려진 러시아 노래 '백만송이 장미'를 러시아어로 외워 불러 에르미타주 박물관 직원들이 감동하여 함께 따라 부르기도 하였습니다. 외국어도 더욱 열심히 공부하여 이 분야

의 재능기부가 가능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개인적으로 우리 박물관 관람객뿐만 아니라 세계인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스누피'나 '미키마우스'와 같은 장수하는 만화캐릭터를 만들고 싶은 꿈이 있습니다. 세상의 어린이들에게 밝은 꿈과 희망을 심어줄 수 있는 만화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박물관에서 세계 소중한 기회를 주셨기에 꿈으로 그칠 뻔했던 만화가의 소망이 이루어졌고, 더 큰 꿈을 꿀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끊임 없이 박물관과 관련된 모든 분야를 공부하여 언제나 박물관에 꼭 필요한 직원이 될 것이며, 그림이 필요할 때는 언제나 종이와 펜을 들고 최선을 다해 그려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공직에서 묵묵히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전국의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제가 박물관에서 만화가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신 관장님과 박물관 가족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 잘하는 윤보영, 시 잘 쓰는 윤보영



윤보영(보건복지부)

“어르신! 윤보영 시인 만나고 싶으세요?” 일흔이 넘으신 김수현 시인과 윤보영 시인의 만남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2012년 가을, 보건복지부 소속기관인 국립재활원에 근무 중이었던 나는 서울

강북구 우이동 계곡에 있는 한정식&카페 백란에서 시화전을 겸한 독자 만남 행사를 가진 적이 있다. 당시 백란에서는 행사가 끝난 후 바로 시화를 내리지 못한 채 그대로 두었지만 식당을 찾아 온 손님들이 계속해서 사진에 담아 가는 모습을 보고 하루만 더 하루만 더 하다가 한 달 넘게 전시해 두고 있었다. 200여 점의 시화에 담긴 내용들이 대부분 짧은 감성시였기에 시화를 보는 손님들은 감동을 받았다. 차츰 시를 적은 시인이 궁금해지는 사람들이 생겼고, 그날 오신 어르신도 그 중 한 분이셨다. 나중에 얘기를 들어서 알았지만 당시 대학 문화센터에서 수필을 배우는 중이었고, 좋은 시가 있다는 친구 소개로 백란에 오게 되었다고 했다.



“어쩌면 이렇게 시를 적을 수 있을까?” “윤보영 시인은 얼마나 고운 여성일까!” 함께 온 일행과 주고받는 얘기를 듣고 모처럼 백란에 식사를 하러 간 우리 일행 중 한 사람이 그 어르신께 말을 건넸다. “어르신! 윤보영 시인 만나고 싶으세요?” “만나고 싶다마디요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나요?” 이 말을 듣고 앞에 앉은 나를 가리키며 이 사람이 윤보영 시인이라고 얘기를 했다.

어르신께서는 놀란 마음을 추스르고 나도 이렇게 시를 적고 싶지만 상처가 있어 못 적는다며 말을 이어 갔다. 이유인즉 지금 다니는 문화센터 수필반

에서 1년 전에 어머니 생각에 적은 진달래 시를 어떡냐고 물었다가 수필이나 잘 쓰라는 말로 무안을 당하고 그 상처로 더 이상 시를 못 적는다고 얘기를 했다. 대학 다닐 때 도시에서 혼자 지내는 딸 생일 선물로 딸이 좋아했던 진달래를 소포로 보냈다는 시골 어머니 사랑 얘기! 사연이 고와 시로 적고 시집을 낼 수 있게 도와 드리고 싶어 한 달에 두 번 월요일 점심시간마다 만나 시 쓰기 공부를 시작했다.

당시 시집을 여러 권 출판하다 보니 강의 요청이 들어왔고 강의 자료를 만들기 위해 그동안 발표한 시를 정리하다가 발표한 시가 한결 같이 일정한 형식을 갖추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이 형식을 정리해서 ‘윤보영 시인의 시 쓰기 공식 10’을 만들어 원하는 사람들에게 재능기부로 알려 주던 나는 보람되게 수업을 이어갔고, 그 어르신께서는 1년 반만에 시집을 발간하여 ‘김수현 시인’이 되었다. 이 과정에서 다른 어르신 두 분도 공부 모임에 합류해서 2권의 시집이 세상에 나오게 되었다.

윤보영 시인의 시화가 전시된 백란에는 지금까지 참 많은 일이 일어났다. 시를 읽으면서 고민이 해결되거나 우울증이 치유되었다는 고백은 수시로 듣고 있고 심지어 시를 읽고 자살을 포기했다며 고백하는 사람까지 있다고 들려주었다. 시의 힘은 위대하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시. 이 시 쓰기 공식을 산골마을 어린이들에게도 나누어 주자!’ 이런 결심을 하고 문경시 문경읍 갈평리에 있는 전교생 30여명의 용흥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메일을 통한 인터넷 시 쓰기 재능기부 지도를 시작했다. 처음 적는 글이라 내용이 투박했지만 글 속에 담긴 내용들이 진솔하고 깨끗해서 한 편 한 편 글을 대할 때마다 어른인 내가 아이가 되어 산으로 들로 내달리는 기분을 느끼기에 충분했다.



2013년 봄에 시작한 산골마을 어린이 시 쓰기 지도는 한 학기 동안 계속되었고, 9월 중순에 시화로 제작되어 백관 뜰에서 한 달간 전시를 했다. 전시를 시작하자 곧바로 폭발적인 반응을 보였다. 보는 사람마다 사진에 담아갔고, 심지어 자녀들과 함께 와서 60여 점의 시화를 한 점 한 점 읽어 나갔다. 그렇다. 환경이 좋지 않아 학원을 제대로 다니지 못한 어린이들도 자연과 벗하며 지내다 보면 무궁무진한 창의력이 담기게 된다. 어느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리더가 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은 시화는 한 달 뒤 학교로 돌아갔고, 시화 속 시들은 『송월숲 아이들의 휘파람 소리』라는 시집으로 탄생해 인근 학교로 보내지고, 학생들의 가슴 속에 담기는 계기가 되었다.

그렇게 시 쓰기 재능나눔을 하던 중 2014년 3월 충북 청주시에 있는 보건복지부 소속기관 오송생명과학단지 지원센터로 발령을 받게 되었고, 이곳에 머무는 동안 지리적 여건 등으로 시인에게 시를 배울 수 없는 지역 거주 직장인 13명을 대상으로 한 달에 두 번씩 평일 저녁 시 쓰기 재능나눔 공부반을 만들었다.

처음에는 험클어진 사상과 상상에 치우치는 습관 등으로 힘들었지만 짧은 감성시 중심의 시 쓰기 공식을 사례 중심으로 수업한 결과 1년 만에 동인지 『행복 스위치』 발간과 두 명의 회원이 개인 시집 『사과빛 행복』, 『뭇으로 그리움을 그리다』를 발간하는 결실을 거두었다.



이 과정에 서울 거주 독자들도 시 쓰기 공식 공부를 하고 싶다는 건의가 있어 서울역에 '직장인 시 쓰기 공부' 모임방을 만들고 한 달에 두 번씩 화요일 저녁에 재능나눔 수업을 시작하여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다. 사실 업무가 끝나고 KTX로 서울에 오가는 동안 왕복 운임 3만 7,000원에 저녁값 5,000원을 더한 4만 2,000원의 비용 지출은 적지 않은 금액이다. 1년간 계속된 수업에 80여만 원이 고스란히 현금으로 지출되었으니 보람이 아니라면 결코 할 수 없는 일이다.

하지만 시를 만나서 자기 시를 만들어 가는 사람들의 행복한 표정과 시집을 발간하

고 기뻐하는 가족들 모습을 보면서 나 아
니면 할 수 없는 일이라는 생각에 자부심
을 갖기에 충분하였다.

시를 적으면서 참 많은 행복을 맛보았다. 또 적은 시를 나눔으로 인해 얻은 행복은 달콤하다고나 할까. 미국 세인트루이스주 한인회에서 한인회에 기부된 나의 시로 시화를 만들어 판매한 이익금을 한인회 신축기금으로 사용한 일이나 전국 16개 시도를 대상으로 윤보영 시 쓰기 공식 순회 특강을 하면서 가는 곳마다 참가자의 감성을 자극하여 SNS 주도층으로 이끌어 낸 점도 보람 있었다.

내가 적은 시를 시각장애인에게 들려주기 위해 기부하여 KT에서 낭송CD로 제작한 일이나 북한산 자락에 모신 독립운동가 16위를 직접 찾아다니며 적은 시를 강북구청에 기부하여 '애국시 낭송 콘서트'를 개최한 점은 두고두고 애깃거리가 되고 있다.

앞으로도 윤보영 시인의 시 쓰기 공식 재능기부 강의는 계속 이어질 것이다. 여가 시간을 이용해 적은 시로 사람들 가슴에 행복을 담아주고, 시를 적으면서 축적된 시심과 글 힘을 업무에 적용할 계획이다. 이제는 정책도 세일이다. 세일하는 정책을 국민들이 쉽게 만날 수 있도록 잘 포장하는 기술도 필요하다.





시를 적으면서 얻은 글 힘으로 남들보다 더 일 잘한다는 소리를 들어왔듯 앞으로 일반 대중을 뛰어 넘는 창의력과 포장 기술로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일익을 담당하고 싶다. 많은 사람들이 일 잘하는 윤보영, 시 잘 쓰는 윤보영!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하겠다.

나누고 베푸는 공직이 곧 천직(Calling)



박종우(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서른 살이 넘어 늦게나마 공직에 첫 발을 내딛은 계기가 국비장학생 특채였고, 게다가 위탁교육을 통해 석사학위 취득까지 하게 되어 남보다 더 국가로부터 혜택을 받았다고 여기던 나에게 봉사활동과 재능나눔은 결코 어렵고 부담스러운 일이 아니었다. 마치 주인이 맡긴 달란트를 밀천으로 이윤을 많이 남겨

칭찬받은 충성스런 종과 같지는 않더라도, 최소한 주어진 재능을 묵혀두고 사용하지 않아 책망 받는 종이 되지는 않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공직생활(公職生活)을 본인의 천직(天職)으로 여기는 공무원의 기본 임무를 다하는 것과 더불어 나누고 베푸는 삶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비록 작지만 소박한 사랑과 봉사를 토대로 '내 주변인에게 좀 더 유익한 게 무엇일까?'를 염두에 둔 신변잡기에 불과한 몇 가지 이야기들을 감히 '우수 사례'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공직자의 모든 직무는 다만 하늘이 준 소임(所任), 천직(天職)이라는 불변의 진리라 여기고 부끄럽고 부족하나마 약간의 의미를 덧붙여 조심스럽게 몇 글자 적어본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말이 있듯 선행을 나열하게 되면 그 의미가 퇴색되겠지만, 굳이 동키부여가 무엇인지를 묻는다면 말은 바 소임을 다하면서 우연한 기회에 주변 소외된 이웃들을 돌아보게 되고 더 나아가 내 주변에 좋은 영향력을 끼쳐야 한다는 공복의식(公僕意識)을 찾게 되었다는 점이다.

처음에는 미약한 봉사활동에서부터 시작해서 음악활동과 디자인 재능기부

활동에 이르기까지 스스로 순수한 마음에서 기쁘게 감당하며 주변을 돌아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어렵고 까다로운 일은 아니었다.

첫 번째, 자원봉사활동을 통한 재능나눔

그 시작은 직장동료 몇 명이 함께 뜻을 모아 봉사 동아리인 '나눔티'를 만들어, 주변 가까운 곳에 위치한 영종보육원을 방문하면서부터였다. 김장 담그기 행사를 지원하고 각종 학용품과 간식으로 만든 선물 꾸러미를 개인별로 전달하는 한편, 함께 게임, 놀이 등 다채로운 행사를 진행하였는데, 가장 호응이 좋았던 것은 바로 아이들과 함께 조를 나눠 레크리에이션을 가졌던 시간이었다. 여기서 착안하여 이후로 쉽게 접하기 힘든 대학로에서의 아동극, 뮤지컬 관람 등 문화체험을 보육원생들에게 제공하면서 좀 더 많은 시간을 함께하고자 노력하였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문화행사 후에는 식사를 제공하기도 했다.

그러나 동아리 회원들의 십시일반(十匙一飯) 돕는 회비 운영만으로는 턱없이 예산이 부족하였다. 다행히 친지나 주변인에게 봉사활동에 동참해 주기를 호소하여 상당 부분의 후원금과 도움을 얻게 되어 적극적인 봉사활동을 지속할 수 있게 되었다.



여기에는 많은 독지가들의 자원하는 조력도 있었는데, 음식점을 운영하던 친구를 통해 알게 된 강남의 중국음식점 사장님이 “평소에 생각만 해왔던 내게 이런 기회를 주어서 고맙다!”며 동참한 것을 비롯하여 공직과는 무관한 주변인들의 결단과 동참이 이어지는 가운데 봉사활동은 더욱 힘을 얻게 되었다.



그리고 25년 전부터 해 오던 극단 활동을 바탕으로 연극·뮤지컬 감상기회를 무료로 제공한 것은 값어치로 환산할 수 없을 정도로 좋은 기회를 제공했다고 자부한다.

연예인축구단과 함께하는 체육행사, 어린이날 삼겹살파티, 놀이공원 견학, 어린이뮤지컬 관람 후 짜장면, 탕수육 식사제공 등의 행사를 진행하였는데, 평소에 단체로 배달해서 먹기만 했던 짜장면을 직접 중국음식점에서 먹어본 것이 처음이라는 어느 초등학교 보육원생이 또 언제 오실 건지 묻는 질문에 마음이 아팠다고 동아리 회원이 털어놓기도 하였다. 또한 인천지역 세 군데 보육원생 120명을 초청하여 사랑을 주제로 하는 연극 관람과 함께 식사로 최고급 햄버거와 음료를 제공하는 등 그야말로 아이들에게는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하기도 하였다. 그러던 중 어느덧 동아리 회원들이 많아져서 같은 부서원뿐만 아니라 타 부서원들도 함께 일부 후원금으로 조력하고 활동에 동참하는 가운데 나보다 못한 소외된 이웃을 돌아볼 줄 아는 본격적인 사랑나눔 행사로 크

게 확대되어 갔다.

그 결과, 단순한 동아리 수준이 아닌 '더나눔봉사단'이라는 기관 차원에서
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 봉급 원천징수로 재원을 더욱 견고히 확보하고,
힘 있는 봉사활동을 통하여 물질적 지원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일회성 행사가
아닌 정기적으로 찾아가는 봉사활동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The 나눔 '더 나눔, 나누는 사람들'이라는
복합적 의미를 가진 '더나눔봉사단은 안양
지역 자원봉사센터와 사회복지관과 연합하
여 사랑의 연탄쌀 배달, 지역사회 독거노
인 내복 전달, 사랑의 김치 담그기, 설거지
봉사, 소외계층 아동들과 방과 후 활동 함
께하기 등 다양한 활동으로 지역사회를 섬
기는 봉사단으로 자리매김하였다.

그러던 중에 정부조직 개편으로 농식품부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옮겨
충북 청주 오송 지역에서 근무하게 되었다. 이곳에서도 지역사회 정신지체우
복지시설을 월 1회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예배와 레크리에이션을 진행하는 등
진정한 이웃사랑과 훈훈한 동료사랑을 확인하며 나눌 수 있었다.

이웃사랑은 밖으로만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동료들에 대한 사랑에서부터”
라는 생각을 가지고 동료들의 경조사에 서로 돕는 분위기를 각양각색으로 더

하면서 살 맛 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힘썼다. 그 중 대표적인 사례를 소개한다면 직장동료가 말기암 판정으로 낙심에 빠져 있을 때 성금 모금을 주관하였으며, 병문안 독려, 수술 전 성금전달 및 휴직 전 송별행사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위로행사를 하였다. 뿐만 아니라 모든 직원들이 공감하는 가운데 살 맛 나는 따뜻하고 좋은 직장만들기 운동으로 확대하기 위해 노력도 하였다. 예를 들면 직장동료 및 선배들 자녀 결혼식에 100여 회에 이르는 결혼식 축하(전체는 200여회), 10여 회의 돌잔치 초대장 제작 및 이벤트행사 지원, 20여 회의 퇴직공무원 송별덕담판 제작·증정 등이 그것이다. 이처럼 동료애를 발휘하는 가운데 뜻을 같이 하는 동지의식을 가지고 생활하면서 직장 내 분위기메이커로서도 한 몫을 감당하여 각종 내외부 행사, 레크리에이션 진행 및 사회자로서 행사진행 등 크고 작은 행사를 지원하였다.

두번째, 음악활동을 통한 재능기부

2000년 10월에 창단하여 기관 안팎의 각종 행사에 참여하고 있는 음악동아리인 '베테글리중창단'은 각종 학회 등 연주 지원, 농식품부 월례조회 식전연주, 장관 주재 국제행사 만찬 축하공연 등에 참가해 공직자의 새로운 면모를 보여주며 기관 홍보 역할을 톡톡히 해내기도 하였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Veterinary(수의학)의 'Vet', Expert(전문가)의 'E', Glee(남성중창)의 합성으로 네이밍(Naming)하여 수



의계 전문가들의 남성중창으로 다양한 대내외 행사에서 음악을 통한 하모니를 이루며 기관 위상 제고와 즐거운 일터 만들기 등 좋은 활동을 이어나갔다. 2011년 6월 동·식물 검역과 축산물 위생, 수산물 검역검사 등 세 개의 기관이 통합, 발족함에 따라 구성원도 확대하여 다양한 직렬로 재편성했다. 명칭도 '아름드리중창단'으로 개칭하여 아름답리 큰 나무처럼 하나가 되어 음악을 통한 통합전령사 역할을 수행하기도 하였다.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이체된 후에는 중전 음악동호회인 '노래향'과 연합해 '오선지와 달팽이'라는 토속적이고 구수한 명칭으로 네이밍하여 정식으로 합창단을 결성했다. 각종 대내외 행사는 물론 타 기관과 연합팀을 구성해 전방위적으로 활동을 전개하여 '오송보건의료행정기관연합합창단'으로 출전, 제8회 공무원음악대전에서 '은상'을 수상하였다.

또한 농식품부 근무 시절 활동해온 '베테글리', '아름드리중창단' 등의 구성원들과 하모니&시너지 남성중창단, 식약처 합창단 '오선지와 달팽이'의 남성파트로 구성된 별도의 남성중창단(식약처·농식품부·해수부 연합)을 창단하여 출전한 제9회 공무원음악대전에서 영예의 '대상'을 수상했다. 수상 이후 화성시소년소녀합창단 연주회에 동물사랑캠페인의 일환으로 찬조연주를 하는 등 재능기부 활동을 거듭해오고 있다.



♥ 한편, 결혼식 축하를 통한 음악재능기부는 교회 성가대 봉사와 고교시절 중창단, 합창단 활동을 시작으로 해를 거듭해 오면서 200여 회에 이르고, 2009년 당시 '대한민국 최고기록공무원'에 출품, 비공식 기록으로는 '최고'라는 인정을 받은 바 있으며, 현재까지도 직장 동료·후배에서

부터 직장상사와 선배 자녀 결혼식에 이르기까지 찬조연주를 통해 재능기부를 하고 있다.

🌿 세 번째, 디자인 작업분야 재능기부

오랫동안 디자인 분야에서 관심을 갖고 쌓아 온 경력을 바탕으로 보다 알기 쉽고 유효직접하게 홍보하는 데 주력하여 각종 홍보물을 제안·제작·배포하는 등 홍보대상에 따라 차별화된 디자인으로 업무를 추진하였다. 이로 인하여 기관 GI 제작과 기관 종합홍보판넬 제작, 각종 전시회·박람회의 기관 종합홍보관 기획·운영 지원에 이르기까지 국정홍보의 새로운 시도와 눈높이를 국민의 시각에 맞추는 데 기여하였다.

또한, 가축방역분야에서도 구제역으로 인하여 국내 축산업에 막대한 피해가 한참이던 시기에는 긴급방역대책 수행을 위하여 군복무 때의 국방부 차트병 경험을 토대로 종합대책상황실(본부) 설치·운영의 기초를 다지는 데 도움을 주었다. 가축전염병 발생지도를 통일화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약 150회의 발



생지도 게시를 통하여 초동방역의 기틀을 다지고 조기에 질병을 종식시킬 수 있는 근간을 이루었다.

또한 각종 설명자료 및 해외가축전염병 발생 동향 및 세계발생지도자료 등 홈페이지를 통한 약 50회의 정보 게시를 통해 발 빠르게 대응하는 등 과학적인 국가방역시스템 마련 및 체계적인

가축방역 홍보에도 혁신적인 소임을 다하였다. 특히 가축전염병 발생지도 게시는 종전에 비상방역대책을 수행하기 위해서 중앙정부, 산하기관, 시도 및 시군별로 각자 상황실을 설치하고 운영하면서 발생상황지도 제작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던 것을 크게 단축시켰으며, 인터넷을 통하여 언제 어디서

나 누구든지 상황지도를 출력하여 방역현장에서 차량 이동통제, 소독조 설치 등에 활용하도록 하는 등 초동방역에 큰 도움이 되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래서 당시에 영향력 있는 지도 게시를 통하여 얻은 별명은 “검역원의 지도도식”이었다. 우스운 이야기이겠지만 농촌지도사의 ‘지도’가 아닌 ‘지도제작 게시(Mapping Service)’를 일컫는 이야기였던 것이다. 이처럼 대국민 홍보의 다양한 시도와 접근을 통하여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다각적인 효과를 얻으며 국정홍보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이루었다고 정의를 내릴 수 있겠다.



업무 분야 이외에도 퇴직하시거나 공로연수를 통해 공식생활을 마무리하시는 공식선배를 위하여 동료 및 후배들의 글을 모아 사진을 배경으로 편집해 ‘덕담판(Rolling Paper)’ 액자를 제작하여 퇴임식 등 공식행사 또는 송별외식연에서 대상자에게 직접 증정하였다.(퇴직자 송별덕담판 18회, 순직1주기 추모사 보드 1회, 동료직원 추모사보드 1회 등 총 20회에 걸쳐 직접 제작증정) 이는 훈훈한 직장문화 만들기의 미담사례로 퇴직자를 위한 좋은 전통으로 자래매김하여 퇴직자분의 입장에서는 그 어떤 감사패나 선물 증정보다도 더욱 뜻 깊은 소중한 선물로 간직되고 있다.

아파트 현관 입구의 미술품 대신에 벽 한 면을 장식하니 가족들이 드나들면서 오랜 공식생활을 인상 깊게 마감한 사실과 은공을 늘 기억할 수 있도록 해줘서 고맙다는 인사를 듣기도 하였다.

또한 ‘상상발전소’라는 내부제안마당에 일명, ‘청렴서약사과나무’라는 아이디어로 사무실 출입구 쪽 화분에 직원의 청렴서약 및 서명을 포함한 사과모양의 표식을 매달아서 표출함으로써, 내부 직원에게는 청렴의식을 되새기도록 하고, 외부 고객에게는 정부 기관의 청렴이미지를 나타내도록 하였다. 이는 용인검사소에서 시작하여 경인지방식약청으로 확대 실시하였고, 식약처 감사담당관실에서 이를 수용해 전 직원의 청렴서약식 이벤트 행사로 확대하는 데 기여하기도 하였다.

이 모든 활동을 통하여 포토샵, 파워포인트 및 각종 영상편집프로그램 등을 다루는 재능과 감각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 가운데, 이를 업무에 자연스

럽게 연계하여 다양한 업무성과를 나타내었다고 자부할 수 있겠다.

지면을 통해 이것저것 서술하며 나열하다보니 내 자랑만 하는 것 같다. 그렇지만 “나 혼자만...”하는 극도의 이기주의가 팽배해져가는 현대사회에서 대한민국의 국가공무원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슴에 품고, 맑은 바 소임을 다하면서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겸손히 빛을 갈아가는 생활을 할 따름이다.



민원인이나 동료공무원이나 누구든지 하루 하루 만나는 분들을 소중히 여기고 섬기는 자세로 무슨 일을 당하든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맑은 바 소임을 다하는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세로, 한 사람의 평범한 공무원으로서 오늘도 내일도 최선을 다해야겠다! 라고 부족하지만 지면을 통해 다짐해 본다.

세상을 따뜻하게 하는 ‘행복기술(幸福技術)’, 나눔



행복더하기 봉사단(부산지방병무청)

우리가 매일 먹는 하얀 쌀밥이 초봄부터 가을걷이까지, 이른 새벽부터 노을빛 물들 때까지 농부의 한 땀 한 땀의 정성스런 손길이 있어야 우리의 밥상에 오르듯, 우리가 건강하게 어른이 되기까지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세상의 첫 빛을 본 순간부터 부모의 한없는 사랑과 보살핌이 있어야 했듯이, 우리는

작게는 가족으로부터, 크게는 연대의 정신 아래 각자의 역할을 해나가는 사회 속에서 서로를 돕고 보살피며 살아가고 있다. 그저 인식하지 못할 뿐 사람은 함께 더불어 살고 있으며,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우리 주변에는 당연할 것 같은 보살핌을 받지 못하며 세상이 제법 춥고 외롭다고 느끼며 살아가는 이들이 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겐 소소한 것이 누군가에게는 절실할 수 있고, 우리에게엔 작은 것이 누군가에게는 큰 것이 될 수 있다.

나눔 봉사는 신기한 마법을 부린다. 작은 것을 크게 만들고, 나누며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동시에 나누는 이에게 따뜻한 행복과 건강을 선물로 주기 때문이다.

나눔이 더욱 고귀한 것은 특별한 자격이나 부(富)가 없어도 다양한 형태로 할 수 있어 누구에게나 열려 있기 때문이다. 영국의 자선구호단체인 CAF(Charities Aid Foundation)가 매년 '낮선 사람 돕기, 봉사활동, 금전기부'를 기준으로 조사하여 발표한 기부지수 발표 결과, 놀랍게도 가난한 나라 미얀마가 2014년과 2015년에 연속하여 1위를 한 것을 보면, 나눔은 부의 절대적 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누고자 하는 연대의 마음에 있다.



우리 부산지방병무청 직원들도 비록 크진 않지만

만, 나누고자 하는 작은 마음들이 더해져 그간에 받은 주변의 사랑을 조금이나마 돌려주려는 노력을 펼치고 있다.

13년간의 인연, 따뜻한 초록우산을 어린이들에게

2003년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인연을 맺은 한 직원의 권유로 삼삼오오 후원을 시작한 것이 계기가 되어 그해 12월에 약 60여명의 직원들이 후원회를 결성했다. 매월 계좌후원을 하면서 직장 행사에 초대하거나 아이들이 좋아할만한 야구경기 관람 등 행사를 기획해 매년 2회 이상 함께 하는 시간을 보냈다.

13년간의 긴 인연은 약 1억 5,000여만 원의 후원액을 넘어, 우리 부산병무청 직원들에게 부모의 심정을 느끼게 하는 소중한 인연이다.

국경 넘어, 아프리카 신생아의 생명을 지키는 모자뜨기 캠페인

가난한 아프리카 여러 국가에서는 열악한 위생과 국가 인프라로 인해 2007년 기준 생후 5세를 맞이하지 못하는 영유아가 880여만 명에 이르렀고, 국제아동권리기구(Save the Children)는 일교차가 심한 아프리카 지역의 저체온증 사망 신생아를 예방하기 위해 2007년부터 모자뜨기 캠페인을 시작했다.

한 직원이 따뜻한 마음을 보태기 위해 모자뜨기를 시작했고, 옆자리 직원이 이어받자. 옆 사무실에서도 이어 받았다. 이윽고 부산병무청은 2011년부터 청차원에서 본격적으로 모자뜨기를 지원하여 희망자를 받아 캠페인에 동참했다. 매년 120여 개의 모자를 떠 올 때까지 약 750여 개의 모자를 기증했다. 지

금은 모자뜨기 시즌 10에 동참하여 점심시간이나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 신생아의 체온을 보호할 모자를 한 올 한 올 따뜻한 손길로 뜨고 있는 약 70여 명의 직원들이 있다.



한 사람의 작은 용기와 시작이, 전 직원 동참으로 이어졌다. 앞서 말했듯, 나눔 봉사하는 시작은 작더라도 그 끝은 크기 마련이고, 작은 사랑이 모여 행복은 더 크게 자라는 것 같다.

골목 골목, 사랑을 담은 행복 도시락 배달하는 발길

부산병무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후원을 발전시켜 직원들의 나누고자 하는 마음을 더욱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015년 ‘행복더하기 봉사단’을 발족시켰다. 직원들의 나눔 열정을 펼치기 위한 여러 프로그램을 고민하던 중 지역 이웃인 망미동 희망복지센터의 지역 홀몸어르신 도시락 배달 사업을 알게 되었다.

직원들의 참여는 폭발적이었다. 매주 목요일 점심시간을 활용해 구내식당에서 마련한 국과 반찬을 들고 골목골목을 누비며 망미동 홀몸어르신 다섯 가정에 행복도시락을 배달하고 말뱃이 되어 주었다. 한 어르신이 집 앞을 나와 직원들을 반기며 도시락을 전달하는 손을 꼭 잡고 “늘 따뜻한 국과 반찬을 배달해 줘서 고마우이. 내 아껴서 잘 먹고 있어”라며 웃으며 하신 말씀에 대수롭지 않았던 발걸음은 썩썩 썩썩 뛰었고, 남긴 반찬을 함부로 버리는 모습이 못내 부끄러워진다.



손끝에 흐르는 사랑, 시각장애인 점자도서 제작 지원

시각장애인은 책을 볼 수 있다. 점자를 통해 손끝으로 본다. 하지만 다양한 분야, 원하는 만큼 보고 싶을 때 책을 볼 수 있는 우리와 달리 그들은 보고 싶어도 점자책이 많지 않다. 수요가 적기 때문에 시중 출판사는 점자책 제작에 관심이 없고 그래서 점자도서관과 같은 자선단체를 중심으로 점자책 발행이 이뤄지고 있다.



우리 행복더하기 봉사단은 2015년부터 점자책 제작을 지원하기 위해 교정 봉사를 하고 있다. 부산점자도서관과 연계해서 시각장애인들이 보고 싶어하는 책을 점자책 인쇄를 위한 규격에 맞도록 인쇄

파일을 교정하는 봉사인데, 올해 연말까지 약 35권을 완료했다.

직원들의 관심이 많아 올해 8월에는 직원들로부터 약 80권의 책을 기부 받아 부산 점자도서관에 기증했고, 9월부터는 점자책 지원을 위한 개인계좌 후원을 시작했다.

일부 직원들은 점자책 교정 봉사에 자녀들을 참여시켜 장애인에 대한 지원과 나눔에 대한 교육을 시키고 있다.

매월 시장 장보는 날, 지역 전통시장과의 정감 넘치는 결연

전통시장을 가면 정감과 옛 추억이 돈다. 우리 행복봉사단 구성원들은 때때로 청사 인근에 있는 망미중앙시장에 가서 모임을 갖고는 했는데, 올해 5월에 갈수록 어려워지는 경제사정과 편의와 가격을 무기로 확대되는 마트형 유통업체의 성장에 전통시장은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치는 현실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망미중앙시장과 자매결연을 맺었다.

이전에도 명절 앞에 장보기 행사를 가지고 삼삼오오 시장에서 직원들이 모임을 가졌던 것을 정례화해 매월 부서별로 점심시간을 활용해 장보는 행사를 가지고 되도록 직원 모임 시 망미중앙시장을 찾고 있다. 기대 없이 참여했던 직원들도 옛 추억이 돈는 시장 음식을 나눠먹고 합리적인 가격에 좋은 물건과 재

료를 구입해 쓸쓸한 재미를 느끼고 있다. 직원 간 소통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어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 나누면 즐거움도 따르는 것 같다.

🌱 사랑나눔봉사단, 든든한 나눔천사 사회복무요원들의 재능기부

우리 행복더하기 봉사단의 활동은 우리와 같은 공간에서 함께 일하는 사회복무요원에게도 그 마음이 전해진 것 같다. 악기 연주, 쿠키, 성악 등 여러 분야에 재능이 있는 사회복무요원 10여명이 올해 5월 사랑나눔봉사단을 꾸려 재능을 나누기를 시작했다.

아직은 서투르지만 사회의 든든한 나눔천사이자 아름다운 청년인 그들의 모습이 눈부시다. 나눔은 전염이 될수록 우리 사회를 더욱 건강하게 해주는 행복 바이러스인 것 같다.

우리 행복더하기 봉사단의 나눔을 공개하는 것이 부끄럽고 지금 이 순간에



도 묵묵히 어딘가에서 남을 위해 봉사하고 분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든다. 우리 봉사단은 특별한 재능이나 거창한 나눔을 하지는 않는다. 그렇지만 혼자 할 때보다 ‘함께’ 나눌 때 더욱 큰 용기와, 큰 힘을 갖는다는 것을 조금씩 깨달아가며, 우리가 할 수 있는 나눔을 끊임없이 찾고 실천하고 있다.

우리 행복더하기 봉사단이 주변 골목골목에 작지만 결코 작지 않은 나눔 봉사를 계속 이어나가길 희망해 본다.

마음이 따뜻한 사람들이 모여 사랑의 꽃을 피우는 아름다운 동행



경찰병원 나눔의료봉사단(경찰병원)

경찰병원은 현직 경찰공무원과 소방공무원들의 건강관리와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설립된 공공 의료기관이다. 공공 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함에 있어서 의료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의료사각지대에 있는 농촌지역과 소외계층의 어르신들, 그리고 장애인들과 'Korean Dream'을 꿈꾸며 대한민국의 노

동현장에서 자신의 건강을 돌볼 틈도 없이 밤낮으로 일하는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에게 의료 혜택을 공유하고자 했다.

본원에서는 의료봉사단을 창립해 활동해야겠다는 열정을 가지고 2005년 응급의학과 전문의, 내분비내과 전문의, 비뇨기과 전문의와 총무인 간호조무사 4명이 발기하여 경찰병원 불자회 의료봉사단을 창립하여 약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임상병리사, 행정직원 등 회원 30여 명으로 의료봉사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다. 창립당시 본원에서는 무료 의료봉사활동에 약품과 차량



등의 지원은 없었으며, 회원들의 회비로 약품과 봉사
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고, 회원들의 개인 차량을
카풀하여 휴일을 반납하고 전국을 다니며 봉사활동
을 진행하였다. 의료 봉사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
록 지역과 장소를 섭외해 주시는 지역 관계자 분
들이 후원금을 지원해 주면서 이제는 무료 진
료를 해달라고 요청하는 상태가 되었다. 2006
년에는 경기도청에서 주관하는 팜뱅크 사업
에 우리 봉사단이 선정되어 약품을 지원받아
큰 부담 없이 무료 진료를 진행하였다.

2007년 본원에서 동호회 활성화 계획을 발표하면서 봉사단 명칭도 '경찰병원 나눔 의료봉사단'으로 변경하였다. 의료진과 회원을 보강하여 40여 명으로 발대식을 하고 원내 자원봉사 동호회로 등록하여 몇 년간 쌓아온 노하우를 토대로 자부심을 가지고 의료봉사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였다. 경기도 남양

주 지역 의료봉사를 하면서 지역 남성 어르신들에게 피검사용 시약회사의 후원으로 피를 채혈해서 전립선암 검사를 진행했는데 암이 발견되어 본원에서 수술과 치료를 받은 어르신도 계신다.

나눔 의료봉사단 덕분에 생명을 연장하면서 건강하게 살아간다고 고마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재능기부를 통한 무료진료가 한 생명을 살렸다는 뿌듯함을 맞볼 수 있었다.

2007년 4번째 의료봉사는 1박2일로 강원도 정선에서 워크숍과 함께 무료진료 자원봉사를 하면서 회원들에게 힐링의 기회를 만들어 주었다. 2008년 11월부터 본원에서 약품과 차량 등을 지원해 주면서 무료진료 자원봉사가 더욱 활발해지는 계기가 되었다. 무료진료를 원하는 지역과 장소는 너무 많은데 의료진들의 개인 일정과 각종 학회 일정을 조율하면서 자원봉사 날짜를 정하다 보니 자주 실시할 수 없어 안타깝다. 단체로 진행되는 자원봉사활동이라 참석하는 회원들의 일정을 체크해야 하는 일이 가장 큰 어려움이다.

10년간 무료진료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동안 정형외과, 내과, 비뇨기과, 가정의학과, 산부인과, 안과, 피부과, 치과, 이비인후과, 한의사 등 많은 의료진들이



함께해 주셔서 거의 움직이는 종합병원 규모로 무료진료를 할 수 있었다. 지난 10년간 총 33회의 무료진료 활동을 했으며, 총 진료인원은 9000여 명에 이른다.

2008년 10월 성북 장애인복지관에서 의료봉사를 진행한 후 2009년에는 본원과 자매결연을 맺어 복지관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에게 매일 무료진료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올해까지 연 1회는 외국인 이주 노동자를 대상으로 무료진료를 진행하였다. Korean Dream을 안고 낯선 나라에 와서 무거운 짐을 나르며, 염색공장에서 화공약품 냄새를 맡으며, 옷 공장에서 각종 먼지를 마시며 몸을 아끼지 않고 온갖 고된 일을 하는 외국인들을 보면 마음이 시리다.

몸이 아파도 병원에도 가지 못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대부분이다. 적법한 체류기간 중에는 많지 않은 임금도 체불되지 않고, 대한민국의 의료보험 혜택도 받으면서 치료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전락되는 순간 불법으로 취업하는 상태로 변하게 되어 업무 중 사고나 질병이 발생하면 기업체에서 임금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사퇴 처리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법적으로 임금을 요구하지도 못하고 건강은 악화되고 본국으로 돌아갈 형편도 못되는 외국인 노동자들. 그들은 병원을 찾아가서 진료를 받으려 해도 언어가 통하지 않아 본인의 건강 상태를 표현하기도 어렵고 한국



의 의료진들도 말을 알아듣지 못해 서로가 답답한 마음이라 너무 안타깝게 느껴졌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의지하고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는 곳은 본국의 종교 지도자들이 운영하는 쉼터에서 지내면서 도움을 받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외국인 이주 노동자를 대상으로 무료진료 봉사를 적극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사명감을 가진 한국인들이 외국인 노동자 쉼터나 종교시설에서 봉사를 하는 분들의 도움으로 의사소통이 되어 무료진료를 하는데 불편함은 없다. 외국인 노동자들끼리 소통하는 공간에 우리 경찰병원 나눔 의료봉사단이 무료진료를 한다고 홍보하면 경찰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니까 진료 받으러 가면 잡혀 간다며 진료 받지 말라고 외국인들끼리 서로 소식을 주고 받는다고도 한다. 도움을 주기 위해 무료진료를 하는 봉사단인데 잡혀가서 본국으로 추방당할까봐까지 말라고 한다니 너무 안타깝다.

몇 번 진료를 받아본 외국인들은 걱정이 없이 진료를 받고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본국의 음식을 정성스럽게 만들어 우리 봉사단에게 식사 대접을 하면서, 내년에도 또 와달라고 부탁하기도 한다.

또 우리나라에는 열악한 곳에서 근무하는 경찰, 소방공무원들이 많다. 하지만 무료로 건강을 체크하고 질병을 치료 받을 수 있는 곳은 서울의 경찰병원 한 곳뿐이다. 산간 오지에 있는 마을로 무료진료 봉사를 가면 현지에서 근무하

는 경찰공무원들도 진료를 해줄 수 있어서 더욱 보람을 느낀다. 우리 봉사단원들이 가지고 있는 전문 재능을 살려 기부하는 보람된 일이다.

2007년 봉사단 회원을 모집할 때만해도 직원들이 관심이 적었는데, 10여년의 세월 동안 자리가 잡혀가는 모습을 보면서 직원들이 지금에서야 봉사단 회원으로 등록하고 싶다고 연락을 준다. 하지만 현재 의료진 외에 다른 봉사단원은 마감되었다고 전하면서 퇴직하거나 탈퇴하는 회원이 발생하면 그때 신입 회원을 영입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다. 우리의 숨은 노력이 외부에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많은 직원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이다.

원내 홍보팀에 근무하는 사진 전문가 직원이 올해 신입회원으로 영입되었다. 그러면서 산골지역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가족사진 및 영정사진을 찍어드리는 재능기부를 더불어 하고 있다. 이 또한 천군만마를 얻은 기분이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살려서 봉사를 하겠다는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직원을 보면서 더욱 보람을 느낀다. 그동안 퇴직하신 의료진들도 명예회원으로 추대하고 봉사활동에 계속 참여해주고 계셔서 든든하다.

우리 나눔의료봉사단은 체계가 잘 잡혀있으며, 봉사단원 역시 다양한 전문직종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명실상부한 원내 최고의 자원봉사 동아리라고 자부할 수 있다. 봉사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는 회원들이 연회비로 후원

하여 일정한 금액을 적립해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고, 뜻있는 지인들을 통한 후원금과 중앙행정기관에서 지원하는 동호회 활동 지원금을 받아 활용하고 있다.



지금까지 진행된 봉사활동 사례는 원내 전산망에 공지를 통해서 직원들 간에 서로 공유하고 있으며, 본원 홈페이지 병원소식에 게시하여 홈페이지를 방문하는 국민들에게도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과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나눔의료봉사단을 소개하고 있다.

2017년부터는 공장 밀집지역인 경기도 광주, 안산, 양주, 평택, 김포지역 공단 등을 연계하여 연 2회 외국인 이주 노동자를 대상으로 무료진료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의료진도 보강하고 의료 기기도 보강할 계획이다. 외국인들은 치과 진료를 많이 원한다. 감기가 들거나 통증이 있으면 병·의원에 가지 않더라도 약국에서 약을 사서 먹을 수 있고 진통제를 사서 통증을 완화할 수 있지만, 치아와 잇몸에 생기는 염증과 충치는 병·의원에 가지 않으면 치료를 받을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향후 모아진 후원금으로 Potable 장비를 구매할 예정이다.

그래서 무료진료이지만 진료를 받는 대상자들이 만족하는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 또한 국내에 지진이나 태풍 등으로 인한 재난발생 지역도 찾아가 무료진료와 또 다른 자원봉사활동을 할 예정이며, 해외에 재난발생 지역도 철저히 준비해서 무료진료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열정이 넘치는 봉사단원들의 따뜻한 마음
이 모이면 못할 자원봉사 활동이 없을 것
이라고 믿는다.

명절 즈음에 요양원 등을 방문하여 진료뿐만 아니라 청소, 목욕, 빨래, 이발 봉사, 발마사지, 쌀을 비롯한 생필품 후원 등 자원봉사 분야를 확대하고, 노후된 건물 고치기, 김장 김치 담그기, 연탄배달 등의 분야도 확대할 계획이다.

재능기부를 통해 채워지는 우리의 행복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같이’ 하면 커지는 나눔의 ‘가치’



자봉회(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는 그 중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른 이에게 나누고 도움을 주는 '봉사야말로 가치 있는 삶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축산자원개발부 봉사동호회 '자봉회'는 연구소 인근 복지시설에 대한 봉사활동 추진으로 지역 주민과의 친밀한 교류와

직원 상호 간 소통과 친목을 목적으로 2014년 12월 11일에 발족하게 되었다.

이에 더욱 더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한 75
명의 회원이 그 뜻을 함께하기 위해 따뜻
한 마음으로 동참했다.

사실 우리 축산과학원은 불과 8년 전까지만해도 넓게 펼쳐진 초지와 200년 넘은 오래된 나무들로 이루어진 자연환경으로 인해 주변 학교들에게는 최고의 소풍 장소였고, 아름다운 영상을 담을 수 있는 영화촬영 장소였다. 하지만 최근에는 구제역·HPAI을 발생시키는 병원체가 시험연구현장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차단방역을 실시하고 있어 그동안 이어왔던 지역 주민들과의 교류도 많이 축소된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우리는 생각을 바꾸었다. ‘그동안은 지역 주민들이 우리에게 다가왔었다면 이제는 우리가 봉사를 통해 그들에게 다가가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자봉회’를 조직하게 되었다. 동호회 발족식 후 회원으로 가입하는 직원도 더욱 늘어나면서 운영위원이 조직되고 행사계획도 수립하는 등 신생 동호회답지 않게 모든 일이 빠르게 진행되었다. 아마도 각자 가슴 깊은 곳에 이웃돕기와 봉사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품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까? 우리는 가장 먼저 후원기관을 선정하기로 했다. 연구소 인근에 있는 모든 복지시설을 알아본 뒤 지역아동센터 2개소와 노인복지센터 1개소를 선정해



MOU를 체결하게 되었다.

그리고 처음으로 연구소 주변에 있는 한 마을회관을 방문하여 어르신들께 음식대접을 하게 되는 날, 설렘을 안고 발걸음을 옮겼다. 이날은 우리 축산과학원의 자랑 중 하나인 '우리맛닭'으로 요리한 닭계장을 대접하고 교류 및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처음으로 추진되는 행사였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이 많았지만 인정 많은 어르신들께서 이해해 주시고 맛있게 음식을 드셔주셨다. 어떤 어르신께서는 한 그릇을 싹 비우고, 가실 때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손을 잡아주시며, '정말 고맙다. 맛있게 잘 먹었다고 인사해 주셨는데 그 한마디가 힘이 되어 아침부터 준비하느라 고생했던 몸과 마음이 한 번에 씻겨 내려가는 느낌이었다.



첫 번째 행사가 성공적으로 끝나자 우리는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다. 아동복지센터 봉사를 원하는 회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두 번째 봉사는 연구소 인근 지역아동센터로 정해졌다. 이곳도 첫 방문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이들과 친해지기 위해 첫 번째 프로그램으로 '보드게임을 활용한 신나는 놀이교육'을 계획하였다. 처음에는 서로 서툴고 어색했지만 게임을 하는 동안 여기저기에서 웃고 떠드는 소리에 어색했던 공기는 따뜻함과 부드러움으로 바뀌었다.



아이들과 교감하는 시간을 통해서 한 걸음 다가간 것 같은 느낌이 들면서, 그동안 프로그램을 준비하기 위해 바쁜 시간을 쪼개 틈틈이 모여 연습했던 시간들을 보상받는 것 같았다.

이후 우리는 명절 때에는 떡, 과일 등 음식을 들고 아이들을 만나기 위해 센터를 방문했고, 12월에는 크리스마스 트리를 꾸미며 따뜻한 겨울을 나기 위한 준비도 함께 했다. 또한 새 학기가 시작되는 3월에는 학용품을 지원하여 아이들의 학습환경도 조성해주었으며 가정의 달인 5월에는 아이들과 직접 카네이션을 만들어 보면서 부모님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는 시간도 가지게 되었다.

노인복지센터에도 잊지 않고 방문하여 김장담그기 등 일손을 지원하였으며 그 후로도 정기적으로 식재료를 지원하고, 행사차량을 지원하는 등 현재까지 긴밀한 협조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우리 연구소는 총 5과 1팀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직원들 대부분이 자봉회 회원이다. 매년 명절에는 '1과 1마을' 자매결연을 맺고 각 과마다 연구소 주변에 있는 마을을 하나씩 담당해 그 마을의 불우이웃 및 독거노인에게 쌀, 과일 등을 전달하기 위해 방문하여 지역주민과의 교류를 강화하고 따뜻한 정을 나누는 시간을 가진다.

길어야 한두 시간 정도의 짧은 만남이긴

하지만 풍성한 마음을 전하고 오면 우리의 마음도 넉넉해지는 건 봉사자들의 특권인 듯하다.

이렇게 외부적으로 지역주민과 소통하는 시간을 마련하였다면 이제 내부적으로도 작은 활동을 시작했다. 우리는 즐거운 직장생활의 일환으로 직원들이 기부한 재능들을 서로에게 나누는 교양 강좌를 개설하여 '애견기르기', '다육식물 기르기', '자개부 숲해설', '꽃꽂이' 등을 추진함으로 직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였다.

또한 매달 '칭찬카드'를 시행하여 직원들에게 긍정적이고 밝은 에너지를 불어넣어 즐거운 직장생활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누군가에게 칭찬을 받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내가 맡은 일에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게 된다.



긍정적인 기대나 관심이 직원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는 피그말리온 효과를 일으키게 된다는 것을 서로의 칭찬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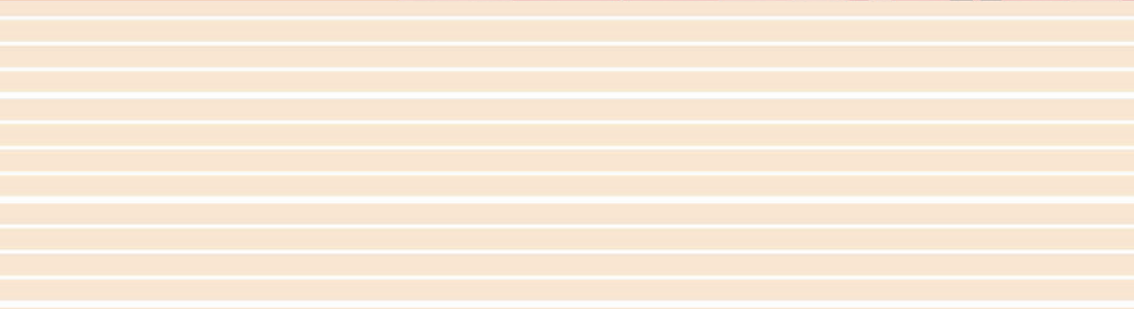
칭찬카드는 매달 마지막 날 가장 많은 득표자를 선정해 단체메일을 띄워 칭찬 내용을 공유하고 축하해 주는데 '칭찬카드'를 통해 업무의 능률도 오르고 직장 생활에 점점 더 활기를 얻게 되었다. 그동안 우리 자봉회는 짧은 시간동안 열심히 달려왔다. 아직은 2년이 채 되지 않은 걸음마 단계인 초보 동호회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자봉회가 도전 할 수 있는 봉사 분야가 넓어질 것이라 기대가 된다.

어느 조직에 속하든 나를 필요로 하고, 나로 인해 다른 사람을 즐겁게 할 수 있는 공동체가 있다면 내가 살아 있음을 느낄 수 있고, 더불어 삶을 살아가는 에너지를 얻기도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보상을 구하지 않는 봉사는 남을 행복하게 할 뿐 아니라, 우리 자신도 행복하게 한다는 마하트마 간디의 말처럼 앞으로도 우리 자봉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사랑으로 나누고 섬기면서 우리 자신 뿐만 아니라 남을 행복하게 하는 봉사를 할 것을 다짐하며, 가치 있는 삶을 사는 사랑 넘치는 동호회가 되길 소망해본다.



2017



고되고 힘든 일상에서도 이웃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편안함보다 타인의 행복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자신의
열정을 불태우는 공무원들.
당신들이 있어 대한민국이 더 따뜻해집니다.





대상

놀이로 행복을 나누다 (아이와 숨바꼭질)



조연주(울산시 교육청)

“힘들지 않으세요?” 진심 어린 수화기 너머 목소리에 울컥 마음이 떨렸다. 공무원 재능나눔 사례공모 관련 담당자의 확인 전화일 뿐인데, 나는 그 떨림을 주체하지 못하고 속에 담은 이야기를 풀어놓고 싶었다.

힘들지 않았다면 거짓말일 것이다. 매주 한 걸음 나아가면서도 이 걸음이 언제 멈추게 될까 내심 두려웠다. 학원에서 귀가 늦어져 모임에 오는 아이들이 줄어들면서,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았냐고 현실과 타협하고 싶은 나날들이었다.

우리가 해산하면 할 수 없는 경험이기엔 마지막이라는 마음으로 단체로만 참석할 수 있는 지역 축제대회에 신청서를 냈다. 반구 대암각화를 주제로 한 선사시대 체험과 선사인 복장으로 퍼레이드를 하며 축제에 참여하는 행사였다.

자체 예비모임에서 아이들은 어른들의 지시가 없어도 자율적으로 움직였다. 퍼레이드를 하는 동안 부를 노래를 개사하느라 토론하고, 가장 나이 많은 아이의 지휘에 맞춰 열심히 노래를 불렀다. 제각기 선사시대 자신의 직업을 상상하며 옷과 소품을 디자인하고, 천전리 화랑, 지혜로운 매의 환생, 쪼꼬매 등 자신의 별명을 만들며 즐거워했다. 행사 당일에는 엄청난 비가 내렸다. 아이들은 개의치 않고 선사인들이 환생한 듯 용맹함을 과시하거나 환한 미소로 퍼포먼스를 해냈다. 움집을 지을 때 재료를 더 가져가려고 다투는 팀도 있었지만, 우리 팀 누군가의 “줄 서서 재료 옮기자!”라는 한 마디에 일사불란하게 줄을 맞추고 친구를 응원하며 옆으로 옆으로 뱃단을 날랐다. 굵은 빗줄기에도 불평하기보다 서로 도우려고 애쓰는 모습이었다. 우리 동아리가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를 깨닫는 그 순간이 가장 보람 있는 순간이었다. “영차 영차” 구호까지 맞



추는 조막손들이 주는 감동에 가슴이 먹먹해졌다. 생각이 자유로운 아이들. 자신과 남을 존중할 수 있는 아이들. 현재에 몰입하여 즐길 줄 아는 아이들. 행복한 아이들. 이 아이들을 만나기까지 우리는 지난 삼년간 매주 휴먼지를 뒤집어쓰며 함께 달렸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한국 사회의 극심한 경쟁과 사교육이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1조의 '놀 권리'를 침해한다며 한국 정부에 시정을 권고한 바 있다. 학원을 가야 친구를 만날 수 있다며 언론에서는 아동들의 놀이 시간 부족 및 그 심각성에 대해 자주 언급했다. 그러나 엄마인 나 자신만의 뚜렷한 주관으로 사교육에 연연하지 않으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다고 생각했기에 이러한 현실은 내 아이와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했었다. 그래서 첫 아이 초등학교 입학과 동시에 엄마는 휴직을 하고, 둘째는 유치원에서 일찍 하원하기로 했다. 친구들이 엄마 손을 잡고 사라지는 뒷모습을 바라보며 텅 빈 보육시설에 혼자 남아 엄마를 기다리던 두 아이가 햇살 아래 마음껏 웃고, 바람 속을 마음껏 달리며 놀 수 있으리라 기대했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다. 오후 4시 30분, 유치원 하원 버스가 아파트에 들어설 즈음에야 아이들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봄이라도 아직은 한기 가득한 텅 빈 놀이터에 남매가 놀아야 고작 몇 분. 축구공을 차며 함께 뛰어보지만 엄마는 금방 숨이 턱에 찬다. 친구가 없다. 일학년 아이 반에서 학원 차를 타지 않고

걸어서 귀가하는 아이는 딱 세 명. 모두 학원으로 향했다. 이걸 아니다 싶었다.



이런 현실을 이해하지 못하는 나에게 이웃 엄마들은 학원 다녀와서 놀이터에서 적당히 뛰어놀면 되니 친구를 만나려면 학원에 보내라고 했다. 어차피 미세먼지가 많아 바깥놀이도 힘들 것이라 했다. 요즘은 놀려면 태권도 학원에 보내야한다고 조언해주는 이도 있었다. 내가 생각하는 놀이는 이게 아니었다. 북한산 자락까지 뛰어다니며 어린 시절을 보낸 나에게 놀이는 좁은 놀이터에서 부딪칠 듯 뛰고 그네 순번을 다투는 게 아니었다.

언제든 부르면 나오는 친구들이 있고 골목길에서 고드름도 따먹고 진흙탕에서 시간가는 줄 모르고 노는 것이었다. 깎두기가 되어도 좋았고 속상함에 뛰어 들어가도 내 일이면 함께 놀 수 있었다. 그런 놀이를 아이들에게 전하고 싶었다.

같은 아파트 엄마들에게 놀이 계획표까지 짜서 보여주며 권하기도 하고, 지역 동아리에 가서 생각을 설명했다. 한 달 원비가 얼마냐는 질문을 들었다. 사교육이 아니라고 했지만 의심의 눈초리를 지우지 않거나 꼭 그렇게까지 놀아야 하냐고 반문했다. 아이들은 어차피 시간만 주면 알아서 잘 논다고 했다. 내

가 별난 걸까? 적당히 남들처럼 학원 보내고 남들처럼 놀릴까 고민이 깊어갈 즈음, 다행히 인터넷 육아카페를 통해 동감하는 어머니를 만나 둘이 첫 회의를 했다. 다른 모임에서 알게 된 서울지역 놀이모임 간사님께서 조언을 해주셨다. 그에 힘입어 지역 생협에 홍보가 가능한지 문의했다. 거절당하면 지역 도서관 모임에도 연락할 생각이었다.



생협 동아리 대표자 회의에 가서 조심스럽게 취지를 설명했는데, 결과는 공지 세 시간 만에 회원 마감! 더 들어오려는 사람들을 거절해야 할 상황이 되었다. 아.., 나와 같은 생각의 어머님들도 많았구나. 내가 헛된 꿈을 꾸는 것은 아니었구나.

봄 햇살이 포근했던 5월, 학교 운동장에서 새로운 가족들과 설레는 만남을 가졌다. 막연히 아이들과 장소만 있으면 어떻게든 놀아지겠지 하던 나의 생각과 달리, 아이들은 내 입만 주목하고 있었다. “선생님~ 뭐하면 돼요?” 한 고비를 넘기니 또 한 고비가 기다리고 있었다.

아이들은 놀이터의 기구에 맞춰 노는 것에 익숙했다. 놀이에 대한 고민이 부족했던 것이다. 오신 어머님들 중에는 육아 휴직 중인 선생님들이 계셔서, 아이들이 학교에 간 시간, 함께 모여 관련 서적을 읽고 진행 방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부족한 대로 규칙도 정했다. 아이들에게 무슨 놀이를 하라고 지시하지 말 것, 다만 아이들에게 다양한 놀이를 소개할 것, 엄마들이 직접 뛰고

즐길 것. 아이가 참여하지 않더라도 억지로 시키지 말 것 등등. 입소문을 타고 매주 들어오는 회원으로 인해, 유치부 담당과 초등 담당으로 역할을 나누고 놀이 시간을 준비했다. 놀이 시간이 끝나면 입에서 단내가 나는 듯했다. 그러나 3주쯤 지난 뒤부터 이런 저런 이유로 사람들이 나가기 시작했다. 내 아이가 잘 어울리지 못하는 것 같다. 특별한 게 없다 등이 주된 이유였다.

게다가 매주 다치는 아이들이 나왔다. 폭신한 아파트 놀이터 바닥이 아닌 흙 위에서 마음껏 달려본 경험이 적은 아이들은 자신의 몸을 다루는 데 익숙하지 않았다. 다행히도 격동의 한 달을 버티면서, 차츰 선생님과 어머니들, 아이들은 놀이의 즐거움을 알기 시작했다. 다치는 아이들이 줄어들고, 무릎의 상처쯤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다시 뛰어놀았다.

술래가 되었다고 속상해 하던 아이들이 서로 술래가 되길 원했다. 술래가 되어도 언제든 다시 벗어날 수 있음을 알게 된 것이다. 그렇게 아이들은 다시 일어서는 법을 배웠다.

어른의 입장에서 유치부와 초등부를 나누는 일부터 그만두었다. 유치부 아이들은 형들보다 못하고 뒤쳐져도 규칙이 복잡한 초등학교 놀이를 하고 싶어 했다.

꼭두기의 탄생! 초등학교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더 어린 아이들을 배려하며

노는 법을 알게 되었고, 시간이 지나니 깎두기 출신의 아이들이 훨씬 잘 노는 것이 눈에 보였다. 첫 해 일학년 아이들이 달팽이집의 속도감을 두려워했던 데 비해 깎두기 출신(?)들은 일학년이 되니 놀이에 몰입하여 즐기는 모습을 보였다.

가장 인기 있는 놀이는 흙 놀이였다. 씨름장 모래바닥을 끝없이 파고 들어가 함정을 만들고는 마치 숲속 사냥꾼이라도 된 듯 상상을 보태 키득거렸다. 물길과 독을 만들어 한없이 물을 흘려보내며 쌓고 허물기를 반복했다. 시판 장난감 모래놀이 도구를 금지했기에 아이들이 도구를 차지하기 위해 다툼 일도 없었다. 떨어진 나뭇가지와 나뭇잎, 열매 모두 훌륭한 놀잇감이 되었고, 흙과 어우러져 아이들의 손길로 예술작품이 되었다. 멀리 떨어진 수돗가까지 뛰어가 물을 떠오는 수고 끝에 친구를 위한 배려와 즐거움을 알게 되었다. 선생님과 어머니들은 그런 아이들을 칭찬하고 격려하며, 사랑스런 모습을 마음에 한껏 담는 역할이면 충분했다.



아이들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쳐야 한다는 압박, 그럴싸한 활동으로 채워야 한다는 압박이 있을 때는 동아리 활동이 조금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그런 부담감에서 벗어나 아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모든 것은 순조로웠다. 청단풍 잎을 바람에 날렸던 첫 모임 이후 우리 모두 그렇게 조금씩 성장하며 단단해졌다.

운동장 놀이가 정착된 이후 학습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다. 어른들이 원하는 내용을 주입하기 위해 학습에 놀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게임을 운영하거나 상이 주어지면 아이들이 즐거워할 것이라는 가정은 옳은 것인가? 아이들이 학습 내용 그 자체를 즐길 수는 없는 것일까?



교과서에 언급되지 않지만 내 삶에 중요한 먹거리에 대해 고민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교과서 지식을 우리 지역 사회의 자연과 기관에서 직접 만나는 것은 어떨까? 학교에서는 제한될 수밖에 없는 체험의 규모를 키워서 아이들에게 확장된 경험을 심어주면 어떨까? 선생님들은 끊임없이 고민했고 각자의 전공을 살려 하나씩 구체적인 활동으로 이어나갔다.

식품안전표시제라는 아이들에게는 어려운 사회적 이슈를 블라인드 먹거리 체험과 김밥 싸기 활동, 바나나우유 만들기 등 아이들이 즐겁게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선생님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의구심까지 표시하던 아이들의 반짝이던 눈빛에서 학습과 지식이 시험을 위한 것이 아닌, 자신의 삶을 영위하는 밑거름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희망이 보였다. 장소를 대어해 공간 전체를 골드버그로 채우거나 제각기 완성한 골드버그를 연결해서 천장에 닿을 만큼 높은 골드버그를 만들어보기도 했다. 아이들의 시선을 확장하는 것,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는 것은 선생님과 어머니들의 몫이었지만, 그 경험 속에서 무엇을 얻어 갈지는 아이의 몫이었다. 숲에서 집짓기를 했지만, 친구와 함께 큰 통나무를 날랐던 아이는 함께 나누었던 경험이 더

크게 남았을 것이다. 역사에는 관심 없지만, 장대비에도 선사시대 사람이 되어 자신의 역할에 최선을 다했던 경험으로 자존감을 키운 아이도 있을 것이다.

즉, 어른의 시선에서 목표로 한 학습을 강
조하기보다 아이의 성향과 생각에 따라 움
직일 때, 무엇을 마음에 담아가든 그것은
소중한 것이었다.

어른들의 불안을 먹고 병들어 가는 아이들. 미래의 보이지 않는 행복을 위
해 현재의 행복을 담보 잡혀야 하는 아이들은 많이 놀러진 만큼 조금이라도
빛장이 풀리면 더 많이 분노하고 폭발한다. 놀이 환경도 참으로 열악하다. 비
싼 장난감을 가진 아이가 부러움의 시선을 받으며, 놀이에서 유리한 입장이 된
다. 유행하는 장난감을 다 모으기 위해 경쟁하기도 한다. 아이들은 본능적으
로 높은 곳으로 기어오르며 자신의 능력을 가늠하기도 하지만, 이런 심리를 반
영하지 않은 놀이터에서 놀이기구를 타고 다니는 아이들은 위험한 존재일 뿐
이며, 실제로 위험하다. 스마트폰에 길들여진 아이들은 삼삼오오 모여 온라인
게임을 즐기거나, 동네를 배회하고 가게들을 기웃거리며 소비한다.



놀이터에서 놀던 아이들이 범죄의 대상이
되었고, 불안한 어머니들은 퇴근할 때까지
학원 뺑뺑이를 시킨다. 이런 환경 속에 아
이들은 놀이 본능을 잃어가고 있다.

놀이 지도에 어느 정도 자신감이 생겼을 때, 놀이 이모로서 고무줄 하나 들고 동네 놀이터에 진출(?)했다. 같은 동요를 30분은 쉬지 않고 부른 듯하다. 아이들은 처음 접한 고무줄 놀이를 재미있어 하며 뛰고 또 뛰었다. 걸릴 수도 있고 못 넘을 수도 있지만, 다시 부딪치고 또 하면 된다는 삶의 이치를 몸으로 터득했다. 아이들 사이에 지옥탈출, 일명 '지탈'이라는 놀이가 유행한 적 있다. 눈을 감고 놀이터의 기구들을 오르내리는 다소 위험한 방식도 문제였지만, 슬래를 벗어날 수 없어 슬래가 느끼는 소외감은 상당한 것이었다. 지금 아이들이 느끼는 현실이 그대로 반영된 놀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 놀이조차 즐길 수 없는 아이들이 더 많은 현실에서 아이들은 무엇을 느끼면서 자라는 걸까? 노는 시간을 늘리는 것 외에 놀이 환경 및 놀이의 질적 내용에 대해서도 어른들이 더 들여다봐야 한다.

어느 선생님은 아이들의 안전을 이유로 쉬는 시간에도 화장실에 갈 때만 교실 밖 출입을 허락하셨다고 한다. 뛰거나 소리 지르는 아이는 문제아로 낙인찍는다면 지인이 괴로움을 토로했다. 그런 가운데 우리 아이 교실을 찾았을 때, 교실 넓은 바닥면에 그려진 사방치기 그림은 참으로 반가웠다. 아이들을 억압할 쉬운 방식을 선택하기 이전에 놀이와 아이들의 성장에 대해 더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모든 이들이 동아리를 만들 수는 없지만, 자신의 주변을 둘러보며 생활 속에서 실천하고 고민은 할 수 있다.

부족한 경험이지만, 생협 강연회 등에 나가 우리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함께 고민하



길 부탁드렸다. 그 결과 인근 지역에 유사한 놀이모임들이 생겨났다는 반가운 소식도 들었다.

다양한 아이들이 모이다보면 자기 감정조절이 힘들거나 함께 어울리기 힘든 아이들도 있는 법이다. 그러나 현직 교사이기 때문에 다양한 상황을 접했던 경험이 있어 당황하지 않고 아이의 입장을 이해하며 지도할 수 있었다. 분노를 참지 못해 주먹이 먼저 올라가던 아이도, 자신의 욕구가 좌절되는 것을 참지 못하던 아이도 놀이를 거듭하는 동안, 자신의 마음을 설명하고 기다릴 줄 아는 모습으로 성장했다. 퇴근 후 놀이 시간을 맞추기 위해 숨이 턱에 차도록 뛰다. 10월만 되도 금방 어두워지는 운동장에서 휴대폰 불빛으로 아이 얼굴을 확인하며 노는데, 몇 분이라도 늦으면 아이들의 실망이 얼마나 클 것인지 알기 때문이다. 만약 봉사를 하겠다는 큰 뜻을 품었다면 우리 동아리는 지속되기 어려웠을 것이다. 아이들과 함께 성장하고 있는 나를 느끼고, 아이들 얼굴에 번지는 웃음에 나 역시 행복해졌기에, 어쩌면 선생님들은 아이들은 물론 자신들을 위해 이런 수고를 감내하고 있을 것이다. 함께 휴먼지를 뒤집어쓰고, 특별활동을 하는 날에는 차 안 가득 쓰레기를 싣고 돌아오는 것을 보며 사람들은 대단하다고 한다. 하지만 교육계에 있는 이상,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고민하고 활동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

아이들에게 놀이를 위한 공간과 시간을 허락하겠다는 애초 목적에는 아이

를 건강하게 키우겠다는 욕심이 있었는데 지난 3년, 오히려 아이들보다 어른들이 성장한 듯했다. 마음껏 뛰어놀고 수용되는 느낌 속에 아이들의 놀이 본능은 깨어났다. 놀기만 하면 학업이 부족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아이들은 놀면서 자신의 그릇에 맞는 경험들을 담아내고, 학습 그 자체의 즐거움도 깨달았다. 이제까지의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는 학교 현장에서 적용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그리고 우리들의 행복놀이가 또한 계속될 것이다.

지역 축제대회 모든 부문에서 시교육감상과 시장상을 받을 만큼 저력을 과시하며, 동아리의 분위기도 살아났다. 공무원 재능나눔 사례공모전 수상 소식 역시 지친 선생님들의 어깨를 토닥여주었기에 이 자리를 빌려 관계자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



아이들이 노을진 운동장을 한없이 달렸던
그 기억을 가슴에 품고 건강한 긍정의 씨
앗으로 세상에서 거듭나길 희망해본다.



우수상

농업현장에서 우리 농업의 희망을 찾다



박서준(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포도 농가의 소득은 나무를 다루는 재배기술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농가 소득은 동일한 지역에서도 재배기술력에 따른 상품화 비율 차이로 상위 농가가 하위 농가에 비해 3.5배 높게 나타난다. 농가에서는 우수한 품질의 포도를 생산하기 위해 나무에 보약이라도 주고 싶은 절실한 마음으로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각종 4종 복비를 주고 있으나, 그 효과는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농가의 실질적인 소득향상을 위해서는 4종 복비 사용을 줄이고 재배기술을 향상시키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판단하여, 매월 주말현장교육을 진행하였다.

지난 2013년 첫 현장교육을 시작한 이래로 매년 4~5개 작목반씩 3년간 매월 1회 주말에 찾아가는 교육을 꾸준히 전개했다. 작목반은 포도 교육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비주산단지 또는 희망하는 작목반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교육내용은 매월 핵심기술을 중심으로 새로운 재배기술을 보급하고, 영농 현장의 애로사항을 선제적으로 해결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향상을 꾀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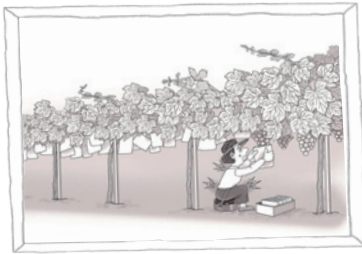
포도나무는 심은 후 열매가 달리는 기간이 짧아 귀농인의 선호도가 높고, 한 번에 많은 힘을 요구하는 작업이 다른 작목에 비해 적어 비교적 쉽게 재배할 수 있다. 포도나무의 형태에 따라 같은 작업도 노동시간에 차이가 나타난다. 나무 형태 중 웨이크만형은 포도송이 높이가 약 100cm 정도로 낮아서 작업자가 허리에 방석 등을 차고 쭈그려 앉아 열매숙기, 봉지씌우기 등을 하기 때문에 효율성이 떨어진다. 반면 포도송이 높이를 올린(100cm → 140cm) 개량일자형은 송이가 작업자의 가슴부위에 있어 관련 작업을 편안히 할 수 있다.

현장 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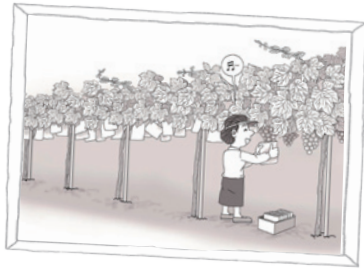
- 참여시군 : 용인, 김포, 포천, 평택, 시흥, 안산, 보령, 논산, 전주, 김제, 강화, 계양
- 교육인원 : 3,084명(13개 작목반, 471농가, '13~'17)

우리는 웨이크만형의 작업효율성 향상을 위해 개량일자형을 권유했으나 농가에서는 일손을 구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나무모양을 개선을 기피하였다.

농기들은 한 번 익힌 기술과 주변에서 사용하는 보편화된 기술을 그대로 유지하려는 경향이 강해 새로운 기술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 듯하였다. 따라서 농가가 신기술을 보다 쉽게 이용하도록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모델과원을 조성하여 신기술을 확산시켰다.



〈웨이크만형〉



〈개량일자형〉

포도원생력화 과원모델시범

- 적용기술 : 수형개선 (웨이크만형⇒개량일자형), 지주시설, 이열식 운반장치 등
- 교육인원 : 121.5ha(23개시군, 435농가)

포도 수확이 모두 끝난 어느 늦가을, 농가로부터 다급한 한 통의 전화가 왔다. 농가에서는 심한 꽃떨이현상 및 열매터짐으로 수확할 포도가 없다고 하면서 간벌에 대한 현장컨설팅을 요청하였다. 다음날 농가를 방문하여 포도원을 살펴보니 그 표현대로 온전한 송이가 거의 없을 정도로 꽃떨이현상과 열매터짐 현상이 심했다. 우리는 농가의 의견을 좀 더 경청한 후 간벌방법에 대하여 설명해 주었고, 비교구로 30주 정도 남긴 후 모두 간벌하도록 하였다.

또한 포도나무 간벌에 대한 좋은 사례라고 생각하여 '최고품질 포도 생산 현장접목연구' 과제와 연계시켜 농가를 주기적으로 방문해 나무관리, 토양관리 및 시비관리 등의 기술도 교육하였다. 그 결과 전년도에 심한 꽃떨이현상 등으로 거의 수확하지 못했던 농가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포도가 잘 달렸다. 잘 익어서 흐뭇해했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하다. 하나의 좋은 기술이 큰 시름에 잠긴 농가의 마음을 가볍게 한다는 것을 현장에서 배우는 기회였다.



〈간벌 전 모습〉



〈간벌 후 모습〉



〈현장평가회〉

아울러 우리는 현장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농가와 쉽게 소통할 수 있는 표준화된 교육도구를 사용하였다. 예를 들면 포도나무의 힘을 표현하는 수세를 말할 때 막연히 '강하다', '적당하다', '약하다' 등으로 하면 농가마다 느끼는 정도에 차이가 있다. 따라서 포도나무 수세의 객관적인 측정 및 판단이 가능한 수세판단기를 활용해 농가와의 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었다. 또한 교육 자료는 매월 핵심기술을 7~8개 선정해 사진 중심으로 작성하여 가독성을 높였고, 교육 방식도 기존의 한 방향 전달식 교육에서 벗어나 현장에서 자유롭게 질의-응답하는 양방향 교육방식으로 진행한 결과 농가의 생산량을 10~15% 정도 증가시킬 수 있었다.



〈수세판단기〉



〈현장교육〉

마지막으로 현장교육이 매월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장소 등을 제공해주신 작목반 대표님을 비롯한 농가 분들께 감사드리며,

향후에도 'THREE TEN' 전략(은퇴 전 10년, 은퇴 후 10년, 농가소득 10% 향상)으로 영농 현장과 지속적으로 교류를 확대해 재배기술력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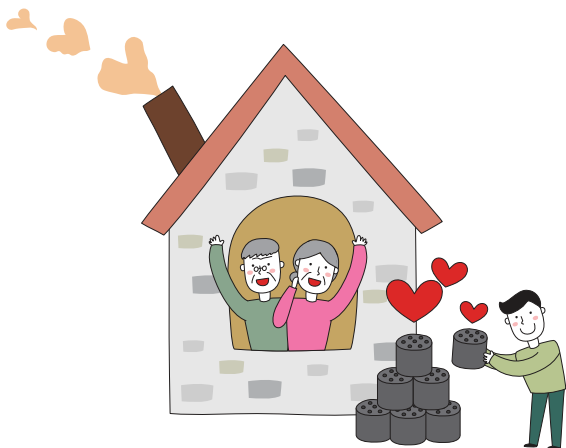
포도 현장교육 참여 작목반

시 군	단지명	농가수	대표자	주 소	교육기간
용인	용인포도연구회	28	김충식	경기도 용인시 백암면 근창로	'13~'15
김포	김포친환경G연합회	28	이돌찬	경기도 김포시 하성면 가금로	'13~'15
포천	수목원포도	77	류재성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광릉수목원로	'13~'15
평택	평택시포도연구회	20	박정규	경기도 평택시 오성면 서동대로	'14~'16
시흥	수암포도연구회	22	윤구열	경기 시흥시 금화로	'15~
안산	대부탑영농조합법인	20	이익영	경기 안산시 대부동	'16~
보령	사현포도21	50	김원영	충남 보령시 남포면 사현1길	'13~'15
논산	논산포도연구회	41	김종태	충남 논산시 광석면 장마루로	'14~'15
김제	용지향도포도연구회	15	안창명	전북 김제시 용지면 구암리	'15~'16
	백구포도공선회	80	서의동	전북 김제시 백구면 번영로	'17~
전주	전주리더포도회	20	박복진	전북 전주시 용정동	'17~
강화	양도포도작목회	57	전영목	인천광역시 강화군 양도면 강화남로	'13~'15
계양	경인아라뱃길포도회	13	노재형	인천광역시 계양구 장제로	'15~



우수상

보일러의 온기로 사랑을 전달하다



조수련(경북지방경찰청)

에너지 분야에서 최고의 숙련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술자. 에너지관리기
능장. 에너지관리기능장이라고 말하면 사람들은 잘 모를 것이다. 조금 쉽게 설
명하면 보일러를 관리하고 고쳐주는 사람이면서 동시에 공무원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에너지관리기능장 외에도 기술 자격증을 30여 개나 보유하고 있어

사람들은 나를 ‘걸어 다니는 해결사’라 부른다.

개인적으로는 국가기술자격증 보유자이면서 고용노동부에서 2013년 우수 숙련기술자로 선정되었으며, 2016년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로 위촉받아 청소년 진로지도 활동을 하고 있다.



이처럼 직장에서는 기술직공무원으로서, 그리고 밖으로는 전문기술을 활용해 생활이 어려운 이웃과 에너지부족 세대의 보일러 수리교체 봉사활동을 수백 가구, 190회, 816시간 진행했고, 연탄배달과 13,445장의 사랑의 연탄기부 등 각종 봉사활동을 통해 얻은 별명이다.

지난 30년의 경험과 지식은 재능나눔 기부활동의 밑거름이 된 것은 물론, 직장 내에서도 노후 청사 시설에 대한 아이디어를 통한 공정개선, 공사 중인 신청사의 활용, 관련 매뉴얼 개발 등에도 도움을 주었다. 또한 2011년부터는 에너지절약 아이디어공모에 수십 건을 응모해 일부 제품이 개발·도입 되는 등 업무의 효율성은 물론이거니와 에너지 절약과 같은 실질적인 예산 절감까지 이룰 수 있었다.

결코 혼자 갈 수 없는 길, 혼자서 다 할 수 없는 이러한 일들 속에는 에너지 기술인 동료들의 동참과 애정이 있었다. 전국 에너지기술인협회에는 1만 3,000

여 명의 회원들이 있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과 지식을 합친다면 아마도 화력발전소 몇 개 짝은 거뜰하지 않을까 싶다.

처음 에너지기술인 단체의 재능기부활동에 대한 인식은 미약했다. “기술로 어떻게 봉사가 가능하지?”, “차라리 돈을 모아서 도와주는 것이 더 좋아.” 이처럼 우리가 가진 재능을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사용하자는 의견에 호응을 보내면서도 선뜻 나서려 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지성이면 감천이라 필요하면 통한다고 했던가. 회원들이 하나 둘 재능나눔 봉사에 참여할 의사를 보내온 것이다. 이렇게 에너지사랑 재능나눔봉사단이 만들어졌고, 15년의 긴 역사를 가진 어엿한 봉사단체가 되었다.

출퇴근이 명확하고, 자유롭게 휴가를 쓸 수 없는 공무원으로서 봉사활동을 다닌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다. 주말과 휴일, 퇴근 후에도 다 하지 못한 일들은 어쩔 수 없이 휴가를 내야만 했다.



하지만 지난 15년간 난방이 되지 않는 주거 시설에서 생활하고 계시는 몸이 불편한 이웃들과 따뜻한 방에서 주무시지 못하는 어르신들에게 경찰청 기술직공무원으로서 사회주거생활안전시설을 개선하는 데 일조하였다는 자부심은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휴식처가 되었다.

한 어르신의 모습이 떠오른다. “뜨끈뜨끈한 방에서 자본 자가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손들이 와서 정말 따뜻하게 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라며 몇 번이고 눈물을 흘리며 감사의 인사를 하신 할머니. 지금도 건강하게 잘 계셔서 참으로 다행이다.

겨울이 다가오면 여러 사회단체나 개인들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사랑의 연탄 배달을 많이 해주신다. 정말 고마운 일이고 꼭 필요한 일이다. 하지만 ‘보일러 기술쟁이’ 입장에서 보면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 연료는 있는데 정작 연료를 태우는 보일러는 사람들이 잘 몰라서 관심을 두지 않기 때문이다. 연탄을 아무리 제공해도, 아무리 큰불로 태워도 보일러가 정상적이지 않으면 열에너지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다. 우리 회원들의 활동은 아마도 이러한 빈틈을 메꾸어 주는 활동이 아니었나 생각한다.



대한민국의 최동단, 우리 국토의 막내둥이 독도는 경북지방경찰청 독도경비대에서 지키고 있다. 이곳에는 우리의 아들들이 극도의 추위와 더위, 외로움을 견디며 생활하고 있는 곳이다. 독도는 대한민국의 동쪽 끝에 바위로만 이루어진 2개의 섬으로서 이 중 우리 독도경비대원들이 생활하는 섬은 동도라 부른다.



독도의 바람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세기로 불어온다. 매섭다는 말이 딱 맞는 말이다. 파도는 높고 거칠기가 이루 말할 수 없이 대단하다. 독도경비대원들의 유일한 친구로는 갯이갈매기가 있는데 독도는 이 새의 주요 서식지 중 하나이다. 이러한 독도는 입도가 쉽지 않고, 개발이나 정비가 매우 어려운 지역이다. 물도 없어 바닷물을 걸러서 마시기도 하고 몸을 씻는데 사용하기도 한다.

그래서 항상 물이 부족하다. 이러한 독도에서 만약 생활용수 시설이 고장난다면 어떻게 될까? 아마도 독도경비대원들의 고생도 고생이지만 그만큼 독도를 경비하는 전력에 큰 손실을 가져오게 될 것이 분명하다.

그래서 관련부서와의 협의 끝에 우리가 직접 나서기로 했다. ‘고장나기 전에 먼저 점검하고 개선하자’ 경북지방경찰청에는 함께 재능을 나누고 있는 기술직공무원들이 많다. 이들과 즉각 솔루션팀을 구성했고, 여러 사람들의 재능과 기술력으로 긴급수리와 생활안전시설 급배수, 전기시설 안전점검 등을 실시했다.



지금도 독도에 필적이고 있는 태극기를 보면 가슴이 뭉클하다. 광복절에 TV에 나오는 독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자랑스러운 독도경비대원들이 그나마 편히 생활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면 가슴이 벅차오른다.

기억에 남는 일은 또 있다. 모두가 소중한 활동이었지만 어느 해 크리스마스 날에 고쳐준 보일러와 방바닥 난방코일 작업은 마치 천사가 된 듯한 착각에 빠지게 했다. 에너지부족 세대 어르신들이 모여 계신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는 대구 북구 어느 아파트 뒤 깊고 그늘진 동네로 들어섰다.



보일러 고장과 방바닥 난방코일 누수 등으로 추위에 떠는 어르신들을 보고 아연실색했다. 어떻게 이런 곳에서 겨울을 나실까?

회원들은 보일러만 수리해서 될 일이 아니다 싶어 누가 말을 하지 않았는데도, 보일러, 연통, 난방코일 등 관련 제품과 부속품들을 구매했다. 난방시설이 완전히 망가져서 복구가 아니라 전체를 새로 바꾸어야만 하는 상황이었던 것이다.

밤늦게까지 이어진 작업에 할머니가 끊어오신 어묵탕은 지금도 그 맛을 잊을 수가 없다. 우리를 바라보시는 눈빛에서 고마움과 감동을 느꼈다.

특히 4가구 중 어느 댁 할머니는 보일러가 너무 자주 고장나 몇 년째 냉방에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손자를 어렵게 돌보며 거주하고 계셨는데, 우리의 도움으로 따뜻한 겨울을 보내게 되었다며 눈물까지 보이셨다. 장애를 가진 손자

가 웃으며 손짓하는 모습이 지금도 떠오른다.

봉사활동은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어떤 것이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무언가를 남에게 베푸는 일이라면 모든 것이 다 봉사활동인 것이다. 어떤 봉사든 열심히 주어진 조건에서 참여도를 높여 가고, 사회 구성원들의 기술 또는 능력에 맞추어 활동한다면 금전을 기부하거나 일반적인 노력 봉사보다 높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가진 재능으로 만들어 내는 기적들은 더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씨앗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



우수상

행복한 이야기가 있는 따뜻한 동행



사람사랑스토리봉사단(보건복지부 국립춘천병원)

아프리카 속담에는 이런 말이 있다. “혼자 가면 빨리 갈 수 있지만 함께 가면 더 오래 가고 멀리 갈 수 있다.” 그렇게 2009년 겨우내 잠들었던 모든 만물들이 움트는 3월.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에 뜻을 같이하는 동료직원들과 함께 사람사랑 이야기는 시작되었다.

우리들은 병원 근무 특성상 3교대 근무를 하는 직원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그래서 주말은 물론이고 주중에도 시간을 맞춰야 봉사활동이 가능했다. 수소문 끝에 어르신들이 50여 명 계시는 경로당을 먼저 찾아 꾸밈꾸밈 준비해 간 보파리를 풀어 놓았다. “안녕하세요. 어르신~” 두 손을 꼭 잡으시며 안아 주신다. “어디서 왔다고?” “아. 네~. 저희는 국립춘천정신병원에 근무하는 직원들입니다!” 동양화 점 10원 내기 화투를 힘껏 내리치며 ‘쓰리고~’를 외치시던 어르신 분들도 고개를 돌리시며 관심을 표하신다.



그동안 수많은 세월 동안 우울증, 조현병, 치매 등 마음의 병을 가진 분들을 치료하고 간호한 우리들이지만 이곳 어르신들 표정에서 또 다른 의무감이 뇌리를 스쳤다.

“지금은 건강 100세 시대입니다.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루를 살더라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셔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선은 잘 드시고 잘 주무시고 잘 웃으셔야 합니다. 어르신~ 혈압체크, 혈당체크, 우울척도검사, 수면검사 등 의료봉사활동을 시작했다. 허리가 굽은 어르신, 다리가 불편하여 지팡이에 의지한 어르신, 방금 도착하여 숨이 차 힘든 어르신까지 모두 우리 앞에 와 팔을 내밀며 혈압, 혈당을 체크해 달라 하신다.

어르신들께서는 “정상입니다”라는 말씀에 밝게 웃으며 기분 좋아하시고 또 어떤 어르신은 혈당수치가 높게 나와 걱정을 하신다. 혈압, 혈당 측정과 함께 예방교육 및 식이요법 교육, 치매예방 수칙에 대한 교육도 잊지 않고 해드렸다.

항상 진행한 웃음치료 프로그램은 제일 즐거워하는 시간이다.

오늘 이 순간만큼은 마음의 짐도 생활의
고단함도 다 내려놓고 마음껏 웃으시며 즐
거워하시는 어르신들 모습이 너무 좋아 보
였다.

또한 춘천시 자원봉사센터 직원 분들의 도움으로 교육, 발굴, 지도를 받으며 봉사활동의 깊숙한 곳으로 빠져들기 시작하였다. 2010년에는 또 하나의 봉사 장소인 시립복지원으로 달려갔다. 이곳은 천주교에서 운영하는 오갈 곳 없고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보살피는 곳이었다. “선생님~ 선생님~” 우리를 보고 환하게 웃으며 반겨주시는 그곳의 여러 회원들은 또 다른 느낌으로 우리들과 만나며 인연을 만들어갔다.

그동안 손이 모자라서 겨우내 묵혀놓았던 커다란 김치 통을 창고에서 하나 하나 꺼내어 옮기고 씻으며 우리는 한 가족인 양 함박웃음을 지으며 정리정돈을 했다. 청소를 마치고 우리들은 복지원 강당에서 회원들과 스트레칭, 파워댄스, 웃음치료 등으로 함께 뛰고 웃으며 관계를 더욱 돈독히 쌓았고, 얼마 안 되지만 회원들이 십시일반 모아준 성금도 전달하였다.



시립복지원에 계신 분들의 행복과 건강 궤
유도 함께 기원하며 또 다른 감사와 행복
이 우리들 가슴에 남게 되었다.

그 후 우리들은 한 달에 두 번 정도 복지원을 찾아 의료봉사 및 프로그램을 진행했으며, 직업재활 현장을 찾아 함께 볼펜도 만들고 치킨 봉투도 접으면서 5년이란 시간을 함께 보냈고, 그들을 우리의 친구로 만들어 갔다.



교차로에 직진, 좌회전, 우회전, 비보호 등이 있듯이 인생을 살다보면 앞만 보고 갈 수는 없지 않은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활동이 도움이 되는지는 모르지만 누군가에게 희망의 씨앗이 되고 용기가 될 수 있다면 우리는 이 길을 계속 걸어갈 것이다.

2011년 바람에 한들한들 흔들리는 노란 은행잎이 아름다운 곳, 소양강이 휘돌아 흐르며 따스한 햇살이 비추는 고즈넉한 곳에 애민보육원이 자리잡고 있었다. 이곳에는 많은 사연을 갖고 해맑은 웃음으로 희망을 쏘내려가는 아이들이 있었다. “애들아, 풍선 좋아하니?” “네~” 작은 체구와는 달리 풍선이야기가 나오자 아이들이 관심을 보인다. “난 노란 풍선이 좋아!” “난 빨간 풍선이 좋아!” 하면서 자기만의 존재를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었다. “좋아! 그럼 우리 풍선으로 멋진 꽃을 만들어 볼까?” “네~ 선생님!” 발을 구르며 신나서 좋아 어쩔 줄을 모르는 아이들을 보면서 우리들은 이곳에 또 다른 동지를 틀기 시작했다.

우리 봉사단의 풍선아트 전문 강사님과 함께 여러 가지 동물, 꽃, 장검 등을 만들어 보면서 우리는 아이들과 서서히 가까워지기 시작했다. 예쁜 풍선 꽃

도 만들어 붙이고, 티넬도 만들어 주고 서로가 도와 가며 열심히 봉사하고 있었고 우리도 함박웃음을 지으며 열심히 응답하고 있었다. 아이들을 위해 식사 준비를 하고 또 다른 팀은 어린 아기들을 돌보고 놀아주고 방청소 등을 깨끗하게 하였다. 놀다가 돌아온 아이들은 깨끗하게 정리된 방을 보고 어떤 표정을 지을지 궁금했다. 행복해 할 아이들을 생각하니 미소가 절로 지어졌다. 저 멀리서 해맑은 아이들의 목소리가 들려온다. 준비해간 선물보따리를 아이들에게 전달하고 돌아오는 길은 너무도 행복했다. 바람이 불어온다.

아이들의 가슴에도 희망이라는 따뜻한 바람이 불어오기 바라며 약속해 본다. 사랑한다. 애들아~

그동안 사랑사랑봉사단은 지역사회 어르신들, 장애인 복지시설, 보육원 등 춘천시내 여러 곳을 다니며 봉사활동을 해왔지만 처음 춘천호스피스에 봉사를 가던 날이 자꾸만 생각난다. 잣나무 숲속에 둘러 쌓여있고 앞으로는 춘천시내가 아련하게 내려다보이는 원창고개에 아담하게 지어진 춘천호스피스. 이곳은 세상살이의 온갖 시름과 걱정을 다 내려놓고 천국행 마지막 열차를 기다리는 환자들을 위한 안락하고 편안한 공간처럼 느껴졌다.

주변의 갖가지 아름다운 꽃들과 정성껏 가꾸어진 채소밭, 그리고 관계자분들과 자원봉사자분들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어우러져 더욱 더 송고하게 느껴졌다.

일반인들에게 익숙한 곳이 아니기에 약간의 두려움도 있었고, 비록 우리가 병원에 근무했지만 일반 병원과 달리 말기암 환자만 계신 곳이라 조금은 조심스러웠다. 그리고 과연 우리가 그런 분들에게 무엇을 해드릴 수 있을지 걱정도 없지 않았다. 작지만 우리의 마음을 담아 환자 분들이 사용할 화장지와 위생 물티슈를 구입해 도착하니 호스피스 회장님, 총무부장님 등 관계자 분들이 반갑게 우리를 맞아 주었다.

짧게 호스피스 역사, 현황 소개를 듣고 나서 우리는 팀을 나누어 세수, 손발톱 깎아드리기, 휠체어 태워 산책하기 같은 환자돌봄, 침대시트·환자복·수건 빨래 돌리기, 여름 동안 사용한 선풍기 청소를 진행했다. 아빠 엄마를 따라나선 우리 꼬마 학생들은 배추밭, 꽃밭에 물을 주었고, 마지막으로 환자들을 위한 웃음치료를 진행하였다. 헤아릴 수 없는 육신의 아픔과 고통 속에 계실 환자들에게 웃음치료를 진행한다고 생각하니 묘한 감정이 밀려왔다. 조심스러운 부분도 분명 있지만 이들은 고달팠던 세상 여행을 마치고 영원한 안식처로 떠나야 하는 분들이다. 그렇기에 때로는 달기도 하고 쓰기도 했던 세상살이를 추억하며 잠시나마 통증의 고통에서 벗어나 밝은 모습으로 웃어볼 수 있었으면 하는 것이 우리들의 바람이었다. 그러한 우리의 바람을 고스란히 환자들에게 전해주는 데는 우리의 귀여운 꼬마천사들이 한몫을 해주었다. 그들의 천진하고 귀여운 모습에, 또한 용기를 내어 환자들에게 큰 웃음 주려고 애쓰는 모습에 반하지 않을 사람은 없을 것 같았다.

휠체어에 앉아 계신 환자분들, 그것마저 안 되어 침대에 누운 채 나오신 환자분들도 잠시나마 육체의 고통을 뒤로 하고 박수와 웃음으로 짧은 시간이지

만 함께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았다. 이날의 봉사활동은 사람사랑을 실천하여 지역사회의 정신건강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사랑봉사단 단원들뿐 아니라 엄마 아빠의 손을 잡고 함께 왔던 소중한 우리 자녀들에게도 귀중한 체험의 시간이 되었을 것이다.



인생은 가는 길만 있지 되돌아오는 길은 없다고 한다. 모든 것에 지나친 기대나 욕심을 내지 말고 내가 가진 작은 것도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 작은 것도 여의치 않다면 사랑이 가득한 내 마음을 아프거나 힘든 누군가에게 나누어 줄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이렇듯 회원 분들의 마음 한 줌, 정성 한 줌을 모두 모아 알차게 보내다 보니 춘천시장으로부터 여러 번의 표창장을 받으며 자신감도 더 생기고 우리의 활동범위도 점점 확대되어 갔다. 특히 2015년부터는 독거노인, 시설입소노인, 정신장애인 등 지역사회 소외계층 분들을 병원에 초청해 다양한 행사를 펼쳤다.

5월 가정의 달에는 감사 행사로 어르신들 가슴에 카네이션을 달아 드리고 점심식사를 대접하는 것은 물론, 혈압·혈당체크, 정신건강상담, 우울척도 외 각종검사를 무료로 진행해드리고 민속춤과 웃음치료를 흥을 돋궈드리기도 했다. “병원문은 언제나 열려 있으니 힐링이 필요할 때 초록을 느끼며 산책하시고 싶을 때 언제든지 방문해 주세요”라는 멘트도 잊지 않았다.



9~10월이면 한가위대잔치 행사를 진행했다. 명절을 가족들과 보내기보다는 시설이나 병원에서 쓸쓸하게 보내야 하는 외로운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와 따뜻함을 전하고자 함께 송편을 빚고 장기자랑 및 민속춤 공연도 했다. 송편을 빚으면서 어릴 적 산에서 솔잎을 주워오면 할머니, 어머니와 함께 앉아 고사리 같은 손으로 반죽을 만들고 예쁘게 빚으려고 인간힘을 썼던 기억들이 떠올랐고, 자원봉사자의 무용과 민요 공연을 보면서 그간 자원봉사자들이 전국에 뿌린 봉사의 흔적을 느낄 수 있었다. 이렇게 정성스레 준비한 우리의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졌는지 “웃을 일이 없었는데 덕분에 많이 웃고 간다”는 한 어르신 말씀이 아련하여 오래도록 마음속에 남았다.

어르신들께서 환하게 웃으시는 모습들에 우리 봉사단원들도 더 크게 웃을 수 있었던 시간으로 기억되고 있다. 덕분에 지역사회로부터 긍정적인 평가와 큰 호응을 얻어 3년째 어르신들을 병원에 초청하는 행사를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춘천시 자원봉사활동 우수프로그램 공모에 100만 원, 100만 원, 120만 원 총 3번 당선이 되었는데 이 상금으로는 정신건강 전문 분야의 특색을 살려 지역 내 정신장애인들과 함께 등반(문배마을) 및 걷기대회(김유정 실레이야기길).

강촌레일바이크체험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였다. 병원 외래진료 외에는 바깥나들이가 처음이라는 회원님의 말씀에 코끝이 찡하고 가슴이 뭉클하기도 했다. 이와 같은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면서 정신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에 앞장서고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정신건강서비스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더욱 더 펼칠 수 있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더 많이 나누고 실천하는 봉사단체로서 지역 소외계층 어르신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소통·공감할 것이다.

또한 대상자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지역주민들과 함께하는 사람사랑스토리가 되도록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열정적인 송영옥 회장님과 회원들이 있어 세상이 힘들지만은 않은 것 같다.



사람사랑스토리가 만들어가는 아름답고 행복한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이다. 2018년에도 사람사랑스토리 봉사단의 따뜻한 손길이 필요로 하는 곳에 더 많은 이야기가 전파되기를 기대해 본다.





장려상

푸르고 질긴 외뿔처럼 울곧은 삶을 꿈꾸다



김창근(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서울전파관리소)

외국 근로자 대상 한국어 교사로 활동

어린 시절, 시골에서 초등학교를 마치고 집안 형편으로 중학교에 진학하지 못한 채 서울로 올라온 저는 조그만 교회에서 운영하는 고등공민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어린 저를 불러 마주 앉히고 제 손을 꼭 잡은 채 공부 열심히

하라고 격려해주시던 선생님의 그윽한 눈빛을 잊을 수 없습니다. 저는 그 선생님의 눈빛을 항상 떠올리며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를 거쳐 대학원까지 마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언제나 선생님의 은덕을 받드시 되갚고 싶은 마음을 간직하며 살았습니다. 어느덧 오십 중반을 넘어서 저는 한국어 교사 자격증을 취득하였고, 김포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에 나가서 매주 일요일마다 외국 근로자들에게 무상으로 3년간 한국어를 가르쳤습니다. 네팔,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지에서 온 외국 근로자 학생들이 제 눈에서 그 어릴 적 선생님의 눈빛을 보았다면 더 이상 바랄 게 없겠습니다.



2018년 말에 정년퇴직을 하게 됩니다. 퇴직 하더라도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한국어 강습을 제 힘이 닿는 데까지 계속할 생각입니다.

음악 재능 나눔 활동

어릴 적부터 아버지의 남도 창 소리, 어머니와 누나들의 흥얼거리는 노랫소리가 제 가슴 속에 메아리처럼 여울져 흘렀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우연히 얻게 된 낡은 기타로 저는 비록 서툴지만 서서히 그 소리들을 탄주할 수 있게 되었고, 새로운 노래를 만들어 기타에 실을 수 있었으며, 하모니카의 선율도 곁들여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학시절 학교축제 가요 콩쿠르에 나가서 창작곡으로 은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세월이 흘러가면서 작곡 편수도 조금씩 늘어났

고 기타와 하모니카 연주 실력도 늘어났습니다.

2003년 명동 YMCA 소극장, 2008년 대구필
하모닉 오케스트라와 협주, 2008년 명동 삼일로
창고 극장에서 창작곡 발표 공연을 하였고, 포크음
악 동호회인 “포크 청개구리 친구들” 다음카페 운
영자, 헤르츠필터스 밴드, 소슬랑 음악동호회를 조
직하여 공연을 계속하는 등 때로는 회장으로 멘토로 활동하면서 거의 15년 동
안 기타와 노래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특히 현재 고촌 현대 힐스테이트 기타
동호회 “베짱이” 회장과 멘토를 맡아 4년 동안 매주 월요일 모임을 지속해오고
있습니다.



2018년말 퇴직이후에도 프로 전문가 수준
은 못되지만 더욱 열심히 음악 동호회 등
음악 재능나눔 활동을 활발하게 펼쳐나갈
생각입니다.

🌱 문학(시조창작) 재능 나눔 활동

공업고등학교 시절, 적성에 맞지 않은 기계실습 과목 시간이 되면 저도 모
르게 발길이 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도서관에 꽂혀 있는 많은 소설과 시집이
저의 어두운 마음을 다독여 주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공장 생활 속에서
도 손에서 책을 놓지 않았고 결국 문예창작과를 들어가서 문학을 공부하게 되

었습니다. 군대 제대 후 공직에 들어섰으나 제 바람대로 세상은 흘러가지 않았고 가슴 속은 재로 가득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란 가슴 속에 들끓는 글귀들을 꺼내어 햇살 아래 적어서 다독여 잠재우는 일밖에는 없었습니다.



나이 오십이 되던 2007년, 가슴 속을 휘젓던 아픔과 열망이 문단 등단이라는 결실을 맺었습니다.

전통 시 전문 잡지인 “현대시학” 공모에서 제 시조 작품이 당선되었습니다. 늦깎이 시인인 저는 부지런히 창작활동을 하여 2013년 서울문화재단 창작지원금 공모에서 당선되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제 시조시집 ‘푸르고 질긴 외뿔’을 발간하여 직장 동료들과 지역 주민들, 지인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직장 교육시간과 음악동호회 모임 시간에도 수시로 시간을 할애하여 시조 창작법을 강의하기도 하고 작품을 낭송하기도 하였습니다. 하느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고유한 재능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지 않고 감춰두고만 있으면 하느님에 대한 불손을 저지르는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자꾸만 깊어지는 초로의 계절에 저는 와 있습니다. 남은 생의 기간 동안 하느님이 저에게 주신 미옥한 재능이나마 다른 사람들과 즐겁게 나누며 건강하고 힘차게 올곧은 삶을 누리고 싶은 마음만 간절합니다. 감사합니다.





장려상

세상을 밝히는 무료급식소



오일수(포항지방해양수산청)

‘1억 5,000만 원으로 무료급식소를 지었을까? 아니지. 절대 그런 일은 없었을 거야.’

돌이켜보면 그때 가진 돈 전부를 투자해서 식당을 짓는 것부터가 숙명이었

는지도 모릅니다. 2007년 아내는 느닷없이 식당을 하고 싶다면서 식당을 개업 하였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면서 ‘하면 된다’는 생각만으로 개업한 식당이었지요. 비록 아내가 하는 식당이었지만 부부 사이에 네 것 내 것이 따로 없었습니다. 처음 하는 식당업이라 돈 버는 재미에 나름 열심히 아내의 일을 도와주었습니다. 식당을 운영하면서 나만의 원칙도 세웠습니다.

“이 식당 음식은 내 가족이 먹는 것이다. 음식을 팔아서 내 배만 부르고 손님이 배가 고프다면 비록 오늘 내 배가 부를지라도 내일은 배가 고파질 것이다.” “내 집에 오시는 손님이 만족하면 나 역시 만족할 것이다.” 그리고 투자는 미래라는 생각에서 장기적인 비전도 세웠습니다.

늦잠이 많던 제가 처음 몇 달 동안 정신없이 새벽잠을 설치며 시장을 보면서도 피곤할 줄 몰랐습니다. 물론 이렇게 일하다 보니 제 생활은 전혀 없었습니다. 퇴근 후에는 식당일을 거두고 토요일일도 아내가 식당을 운영하니까 혼자만 시간을 낼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그때는 돈을 번다는 생각으로 스스로를 위로하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 구석에는 ‘이게 아닌데’라는 생각이 불현듯 일어나곤 하였습니다. 언제까지 장사를 해야 하지? 이렇게 장사만 하다 내 삶은 어떤 결과가 올까? 돈이 전부일까? 복잡한 생각이 들 때쯤 장모님의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경로당에서 점심때마다 노인들이 점심을 해드는데 무척

힘들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순간, '이거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장모님. 그러면 경로당에서 점심식사를 하시지 말고 우리 식당에서 경로당 어르신들과 함께 식사하시면 어때요?”라고 하니 장모님도 무척 좋아하셨습니다.

이 일이 계기가 되어 점심시간을 이용한 어르신 밥 한 끼 대접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장모님 경로당 어르신만 오셨는데 알음알음 소문이 퍼지면서 한 분 두 분 모여들기 시작하더니 식당종업원으로만으로는 급식봉사가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그렇다고 달리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었기에 무척 힘들었습니다.



식당을 하다 보니 봉사라는 생각도 못해 보고 난감한 처지에 이르렀을 때, 제 아내가 동네 동생들을 모아서 “우리 이번 기회에 좋은 일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고 제안을 하여 오은봉사회를 조직하게 되었고, 이때부터 본격적인 봉사로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급식봉사는 원활하게 운영이 되었습니다. 장사가 힘들어도 내 힘으로 소외된 이웃 어르신들께 따뜻한 밥 한 끼 대접할 수 있었기에 보람도 느끼며 하루 하루 열심히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무렵 뜻하지 않게 제 아내의 오라버님께서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마음을 의지하던 오라버님이 돌아가시고 나니 마음의 상처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슬픔을 달래는 삶이 무엇인가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며칠을 생각한 끝에 우리 두 사람은 한 가지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바로 전적으로 봉사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으로 당장 할 수 있는 봉사가 무엇일까 생각해보니 가진 것이 너무도 많았습니다. 자식이 이 길을 택했을 때 누구보다도 양가 부모님들이 전폭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또한 봉사할 수 있는 장소도 마련되어 있었고, 많지 않지만 장사하면서 벌어놓은 돈도 조금 있었습니다. 저 또한 탄탄한 직장인이니까 이것만 있으면 누구의 도움 없이도 잘할 수 있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이 모든 조건을 바탕으로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살아야겠다는 마음이 생겨 2009년 말 식당을 폐업하고 오천무료급식소 간판을 걸어 어르신들의 무료급식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스스로 한번 해보자고 맹세했습니다. 그런데 2년 정도 운영하다 보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어 3개월 동안 밥값으로 천 원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오시던 어르신 120명 중에서 약 1/3 정도가 줄었습니다. 밥 한 끼가 절실해도 돈 천 원에 오르지 못하는 어르신을 생각하니 죄스러운 마음이 들어 결국 돈을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오랜 기간 무료급식소를 운영할 수 있었던 것은 가족의 적극적인 후원과 지지가 큰 도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재는 포항시로부터 50명에 대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나머지 비용은 저와 후원자님들의 자발적인 후원금으로 충당하고 있으며, 급식소를 운영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곳은 바르게살기, TCC한진지원사업부, 동국산업 디딤돌, 포항여고봉사단, 에어릭스 자원봉사자들과 지역봉사자님의 봉사로 효를 실천하는 봉사의 장이 되었습니다. 2014년부터는 거동불편 이웃에게 매주 1회 반찬배달 봉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봉사활동을 생각하고 있지만 실행에 옮기지 못하는 예비 봉사자들에게 이렇게 권하고 싶습니다.



내가 누구를 도와준다는 편견을 버리고 내 작은 봉사가 누구에게는 행복이고 희망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망설이지 말고 바로 실행에 옮기라는 것입니다. 봉사는 받는 상대가 고마운 것이 아니라 봉사하는 나 자신이 행복해집니다. 지금 바로 실천해 보세요.

오천무료급식소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운영됩니다. 오전 10시부터 음식준비에서 배식, 설거지까지 다하고 나면 오후 1시가 됩니다. 처음 무료급식소를 운영하면서 혹여 우리가 봉사자 분들을 고생시키는 것은 아닌지,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그때 봉사자 분들이 오히려 봉사할 수 있

는 공간을 만들어 줘서 고맙다고 말해주었기 때문에 더욱 용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봉사는 사람의 마음과 얼굴 모습도 변하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인생에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살아야겠다고 시작한 것이 지금은 좋은 분들 많이 만나면서 오히려 고마움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어르신을 대하는 호칭도 '엄마, 아버지'입니다. 이곳을 찾아오시는 어르신들에게 항상 이런 말을 합니다. 밥 얻어먹으러 온다고 생각하지 말고, 자식 집에 밥 한 끼 대접받으러 온다고 생각해 달라고 말입니다. 어르신들은 밥과 반찬이 중요하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와 관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무료급식소를 운영하면서 좋은 일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주위에서 어른들을 이용해서 돈을 벌려고 한다, 정치하려고 한다 등 시샘하는 말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시샘에 귀 기울이지 말자고 다짐했습니다. 처음부터 남들이 알아주기 위해 이 일을 시작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개의치 않았습니다. 저희들은 지금까지 경계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 사람들 착한 일하네”라는 말입니다. 내가 진짜 착한 일 한다는 생각이 자리 잡게 되면, 사람이기 때문에 교만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부는 우리에게 칭찬하는 것을 귀담아 듣지 말자고 항상 다짐합니다. 누군가 우리를 칭찬 해주지 않아도 우리 부부는 모든 것에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저희는 큰 꿈이 있습니다. 비영리단체인 급식소를 복지법인으로 등록시키고 동시에 요양시설을 짓는 일입니다. 어르신들의 비보 기사를 접하면서 우리 지역에서만큼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에 무료급식소 2층에 무의탁 독거노인을 위한 주거시설을 건립하고, 나아가 어린이 시설 운영도 하고 싶습니다. 이를 위한 1차 목표로 복지법인으로 등록하는 일이지요. 오천무료급식소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급식과 함께 매주 수요일 반찬배달봉사 및 무료 미용봉사 저소득층아동 대상 공부방 운영을 위한 공간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고 싶은 일은 많은데 능력이 미치지 못해 늘 아쉽습니다. 하지만 꿈은 언젠가 이루어지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도 마음속으로 이렇게 다짐합니다.

‘봉사는 세상을 밝고 맑게 하는 빛과 소금이다.’





장려상

봉사는 베푸는 것보다 그들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것이다



부산경찰 동백 ICT봉사단(부산지방경찰청)

연말이 다가오는 요즘, 우리 주위에는 어려운 이웃을 위해 선행을 베푸는 사람이 많다. 특히 연예인, 운동선수 등 유명한 직업을 가진 이들이 어려운 이웃에게 봉사하고 사랑을 나누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는데, 친숙한 만큼 그들의 봉사는 사회적으로 파급력이 크고, 추워지는 겨울에 소외된 이웃을 다시

돌아보게 하는 힘이 있다. 하지만 막상 봉사활동을 시작하려고 해도 막연하고 나보다 못한 사람에게 물질적으로 도움을 주거나 많은 인원이 일부러 시간을 내어 실천해야 하는 게 아닌가 이런저런 고민으로 망설이다 생각에만 그치는 경우가 많다.



유명인 못지않게 시민 곁에서 늘 함께하는 경찰로서 범인을 잡는 강인한 모습만이 아닌 어려운 주변의 이웃을 살피고 먼저 다가가는 따뜻함을 가진 또 다른 모습으로 다가가기 위해, 그리고 물질적으로 표 나게 봉사활동하지 않아도 우리가 가진 재능에 성실함을 더해 꾸준히 실천해 나가는 것을 목표로 부산경찰청 동백 ICT봉사단은 출발하였다.

부산경찰청 동백 ICT봉사단은 경찰뿐만 아니라 학교, 민간 등 지역 구성원의 자발적인 모임으로 활동이 시작되었고,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있기에 더 의미가 있다. 2013년 7월 30일 부산경찰청-동서대학교 IT공학부가 정보통신기술(ICT) 활용 사회안전망 구축(MOU체결)을 계기로 경찰과 학교가 함께 참여하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정보화기술과 봉사활동을 접목하여 지역사회 장애인재활 시설 및 아동보육시설 등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재능나눔 기부활동을 시작하였다.

처음에는 다들 생색내기 봉사활동으로 조금 하다 그만두는 게 아닐까 하는 우려도 있었지만, “무슨 일이든 시도해 보지 않으면 실패도, 성공도 없다”는 말처럼 우리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알려 부산경찰청과 동서대학교로 시작한 동백 ICT봉사단. 하지만 지금은 KT, NC정보기술 등 민간과 부산경찰청 산하 15개 경찰서 직원들까지 참여해 부산지역을 5개 권역으로 나누어 봉사활동을 실시해 오고 있다.

기관에서 1년에 한 번 참석할까 말까 하는 일회성 봉사활동의 틀에서 벗어나 '동백 ICT봉사단'이라는 이름으로 지역 인근의 복지시설을 1년에 4차례 정도 꾸준히 방문해 직원들의 정성껏 모은 성금으로 간단한 생필품도 지원하고, 청소나 주변 환경도 정비해 주었다. 더불어 전공 분야인 컴퓨터, 전화, 통신시설, 차량 등을 정비해 주는 재능나눔 활동을 통해 봉사활동이 더 친근하게 다가오고 흥미와 보람을 느낄 수 있었다는 참가자들도 많이 생겼다.

'동백 ICT봉사단'은 어디든지 달려갔다.
2014년 8월, 부산 기장 장안읍 침수피해
복구현장 봉사활동이 대표적이다.



피해 현장은 참혹했다. 이날은 경찰·학교·민간으로 구성된 32명의 봉사자들이 긴급히 모여, 담당구역을 정해 복구현장에 뛰어들었다. 어느 현장은 강가에 위치한 집이었는데, 물이 빠지고 난 뒤 방안까지 진흙으로 덮였으며 마당은 흘러들

어은 쓰레기 더미와 진흙으로 엉망진창이 되었다. 방안 가구며 모든 생활용품들이 오염되어 사용할 수 없었다. 우리는 그것들을 모두 밖으로 들어내고, 마당을 뒤덮은 흙더미와 쓰레기를 치우는 작업을 진행했다. 수재민의 망연자실한 모습을 보니 그들의 마음에 공감이 가고 혼자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있다는 사실을 느끼게 해주고 싶었다. 내가 사는 집이 이런 피해를 입었다면 하늘이 무너지지 않았을까? 힘든 작업을 하면서도 진정으로 이들이 하루 속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고 싶다는 마음으로 봉사일정을 마쳤다. 돌아오는 길에서도 수해로 인한 안타까움과 그들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어루만져 준 시간이었다.



그리고 2015년 9월에는 지적장애인시설 '선아의 집'을 방문하였다. 어느 때와 마찬가지로 전화, 팩스, 컴퓨터, 차량을 정비하고 시설 환경정리를 하였으며, 남은 시간에 지적장애인과 산책을 하면서 처음으로 여러 얘기를 나누었다. 시설 장애우 분들은 봉사단원과 산책하는 그 자체가 좋다고 했다. 그들은 화려하고 거창한 것을 바라지 않는다. 단지 이 순간, 이 공간에 같이 있어주는 것만으로 좋다고 말한다.

♡ 나이와 성별과 관계없이 평범하게 그냥 손

잡고 산책하는 것에 행복해하는 분들을 보며 그들에게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다. 서로 정을 느끼고 사랑의 온기를 나누는 것, 이것이야말로 봉사하는 묘미가 아닐까?

부산경찰 동백 ICT봉사단은 2013년 12월 이후 지금까지 22회, 13개 시설을 매 분기마다 다녀왔다. 거창하지도 빛나지도 않는 봉사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 그들과 소통·공감하려는 마음만 있다면 그것이 봉사활동의 최대의 원동력이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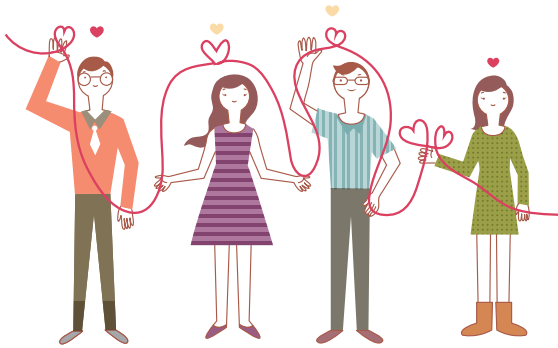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 다양한 재능을 나누며 사회적 약자를 위한 봉사활동을 지속해 나갈 수 있도록 경찰학교민간이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갈 것을 기대해 본다.



장려상

봉사, 나눔, 헌신의 자리에는 언제나 서산교육행정나눔회가 있다



서산교육행정나눔회(서산교육지원청)

“어이, 김 주무관, 도배 한 번도 안 해봤어. 귀퉁이 부분에 풀칠을 충분히 해주어야지.” 양 팀장이 화통 삶아 먹은 듯한 큰 소리를 질러댄다. 여기저기서 역할 분담으로 도배 일을 거들던 회원들의 웃음소리가 넘쳐난다. 이번 달은 서산교육행정나눔회(이하 나눔회)에서 독거노인 도배 봉사를 나온 날이다. 새벽

에 교육지원청 주차장에 모일 때만 해도 제법 얼굴에 연지, 곤지 찍고 기초화장 정도는 하고들 오신 것 같은데 오후에 보니 온통 얼굴에 풀칠이 덧칠해져 있다. 집 주인 할머니는 무엇이 미안하신지 우리 회원들을 보면서 얼굴을 제대로 들지도 못하고 계신다. “점심이라도 따뜻하게 대접해야 하는데...” 그냥 안 타까운 마음이 와 닿는다. 그 할머니의 마음이 우리에게는 푸짐한 점심이다.



예로부터 서산은 모든 물산이 풍요로워서 내포 일원에서도 넉넉한 서산인심을 자랑하던 곳이다.

전통적인 낙토(樂土)인 서산에는 넉넉한 서산인심을 대표하는 '서산교육행정나눔회'가 있다. 우리 나눔회는 봉사, 나눔, 헌신이라는 숭고한 가치를 함께하는 서산교육지원청 산하 교육행정 공무원들이 주축이 되어 조직된 봉사단체이다. 2007년 5월, 80여 명의 회원으로 시작하였으나 2017년 현재는 180명의 회원이 참여하고 있으며, 매월 1만 원의 회비를 모아 독거노인 거주지 방문 등 몸소 실천하는 노력봉사와 저소득층 학생 및 불우학생 장학금 및 급식비 지원 등을 10년간 이어가고 있다.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매월 모금하여 활동 자금을 마련하고 관내 불우이웃을 돕는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2007년 12월 태안 유류피해 당시 회원들 모두가 동참한 태안 구름포 기름띠 제거작업, 2010년 태풍 곤파스 피해 복구 작업, 2012년 태풍 불라벤 피해 복구 작업 등은 지역사회의 미담으로 자리한 바 있다. 이런 미담 사례는 아무리 감추려 해도 덮여지지 않는 꽃향기처럼 알려져 지난 2008년 우수봉사자 표창을 비롯하여 지역기관 등으로부터 9회의 수상 실적도 가지고 있다.

지역사회의 행복은 사랑과 나눔, 봉사와 헌신에서 시작된다며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이 모이다보니 진행되는 활동도 무척이나 다양하다.

매월 셋째 토요일에 관내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하여 노력봉사(목욕, 실내청소) 및 생필품 전달 등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있다. 또한 지역 봉사단체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소외된 이웃들을 살피는 활동에도 열심히 참여하고 있다. 서산시 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해 매월 셋째 토요일에 독거노인 및 어려운 농촌 일손돕기에 참여하여 도배, 청소, 주변 잡초제거 및 농작물 수확 등의 활동에도 전념하고 있다. 그밖에도 2007년부터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 및 장학금 지원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17년에도 관내 초등학교 난치병 아이들 돕기를



비롯하여 다양한 봉사활동을 시행하고 있다.

“올해 겨우 12살. 웹툰 작가가 꿈인 평범한 초등학교 5학년 기극이. 환한 미소로 마을을 뛰어놀던 기극이지만 갑작스러운 경련과 호흡곤란으로 쓰러진 후 벌써 두 번의 뇌수술을 받고 열흘 만에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늦은 밤 응급실에 실려와 MRI 검사를 진행한 다음날, 부모님은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접해야 했습니다. 얼마 전만 해도 태권도 시범에서 2단 옆차기로 격파를 선보일 만큼 씩씩했던 기극이의 머리에 주먹만한 종양이 자라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기극이는 곧장 수술대에 올라 뇌에 찬 물을 빼내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장장 12시간에 걸친 큰 수술. 아이의 체력이 견뎌줄지조차 확신할 수 없는 상황에 부모님은 근심을 가득 안고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극이는 중환자실로 옮겨진 후 나흘간 깨어나지 못하다 기적적으로 눈을 떴습니다.”

(출처: 같이가치 with kakao)



관내 초등학교생의 안타까운 사연을 접한 회원들이 뜻을 모았습니다. 비록 적은 액수이지만 아이의 완쾌를 기원하는 회원들이 염원을 모아 200만 원의 성금을 전달한 것입니다. 우리 회원들은 향후에도 나눔회가 계속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봉사활동 영역을 다각화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소외되는 일 없는 행복한 세상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장려상

신나는 문화봉사!

뿌듯한 집 청소 프로젝트 완료!



우본 행복나눔 봉사단(우정사업본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 조용한 복지관 내에 음악과 함께 노랫소리가 울려 퍼지면 무뚝뚝한 어르신들의 얼굴에는 희미하지만 고운 미소가 걸리기 시작한다. 다소 쓸쓸하던 복지관을 훈훈한 온기로 가득 채우는 이들은 우정사업본부 중창 동호회 등으로 구

성된 '편&편 문화유랑단'이다. 2014년 12월 우정사업본부가 세종시로 기관이 이전되면서 우본 행복나눔 봉사단과 세종무용단, 세종문화원풍물단, 오카리나 봉사단 등이 함께 모여 만든 재능기부 단체 '편&편 문화유랑단'은 세종시 사회복지시설이나 경로당 등 소외된 지역을 찾아가 중창, 각설이, 오카리나, 색소폰 연주로 열심히 문화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정부기업으로서 사회 소외계층을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꾸준히 매월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는 우본 행복나눔 봉사단은 본부장 및 임직원을 비롯하여 전 직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우정사업본부 봉사단체이다.

2000년 우정사업본부 발족 후 17년 동안 묵묵히 봉사활동을 펼쳐나가고 있는 우본 행복나눔 봉사단은 단순 봉사활동에서 탈피하여, 정부의 공적지원이 미치지 못하는 도움이 절실한 어려운 이웃을 발굴하여 맞춤형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요건에 부합되지 않아 나라에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독거 어르신들의 주거 대청소를 비롯하여,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놀이지도, 멘토링 봉사 등 다양한 활동으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

작년 4월 쯤 찾아뵈던 조치원에 살고 계시는 어느 할머니의 집 대청소는 정

말 잇을 수가 없다. 동네 어귀에서부터 풍겨오는 악취를 시작으로 마당, 화장실, 두 칸의 방을 가득 채운 쓰레기 속에 간신히 몸 하나 누울 수 있는 곳이었다. 이곳에서 살고 계시던 할머니의 모습은 아무리 마음이 차가운 사람이라도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다. 까맣게 곰팡이로 뒤덮인 밥, 썩어서 새카만 가구들. 방문을 열어도 쓰레기로 가득 차 사람이 들어갈 수 없었던 그 집에서 혼자 지내셨을 할머니의 건강이 정말로 걱정되었다.



우선 할머니를 다른 곳으로 모신 후 우분 행복나눔 봉사단의 집청소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다.

제일 처음 필요했던 건 쓰레기를 버리는 일이었기 때문에 1.5톤 쓰레기 청소차량을 불러 쓰레기를 치우는 작업을 시작했다. 수십 개의 썩은 물질이 담겨있던 장독대 치우기를 시작으로 방 안 장롱을 열어 이불을 버리기로 했다. 이불을 꺼내는 순간 수십 마리의 바퀴벌레와 이름 모를 벌레들이 쏟아졌다. 우리는 도저히 덮을 수 없는 그 이불들을 모두 쓰레기 청소차량으로 이동시켰다. 이불을 치운 다음에는 화면이 나오지 않는 TV를 비롯하여 밥그릇, 썩은 물이 담겨 있던 밥솥, 수십 개의 화분과 서랍장 등을 치웠다. 어마어마한 쓰레기 양 때문에 1톤의 쓰레기 청소차량을 추가로 불러 결국 2.5톤의 청소차량이 넘칠 정도로 쓰레기가 채워졌다.

쓰레기 청소를 끝낸 뒤 새 싱크대 설치작업과 도배 및 장판 교체 작업도 실시하였다. 도배를 하기 위해 이전 도배지를 벗기는 순간 천장에서 후두둑 쥐똥

들이 쏟아져 내렸다. 그렇게 바닥으로 모두 떨어진 쥐똥을 제거하고 산뜻한 도배작업이 마무리 된 할머니의 집은 몰라보게 달라져 있었다.



힘들어 지쳤던 마음이 한 순간에 스르르
녹아내리며 뿌듯함으로 가득찼던 건 비단
나 혼자만이 아니었을 것이다

더러워진 옷과 까만 먼지가 뒤덮인 우본 행복나눔 봉사단의 얼굴이 환하게 빛나 보였던 건 무언가 나눌 수 있어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어서 행복하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청소가 끝난 후 집에 오신 할머니는 결국 눈물을 흘리시며 연신 고맙다고 말씀하셨다.



깨끗해진 방에서 편하게 누워 주무시는 할머니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돌아오는 길 내
내 얼마나 즐거웠는지 모른다.



그리고 지난 7월에 찾아 뵈신 산 할아버지네 비닐하우스도 잊지 못할 곳이다. 전화도 잘 걸리지 않는 산 속에 혼자 살고 계시는 할아버지의 집은 비가 오면 집에서 물이 빠지지 않는 곳이었다. 집에 고여 있던 물이 썩어서 냄새가 많이 났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배수로를 설치하는 작업부터

시작하였다. 배수로 설치를 위해 무성한 풀을 베는 작업을 시작하였는데 평소 써보지 않았던 낫이 손에 익지 않아서 시간이 오래 걸렸다. 손을 다치지 않게 조심조심 무성했던 풀을 베어내고, 그 자리를 삽으로 파서 물길을 잡아주었더니 물이 외부로 흘러나가기 시작했다.

물을 뺀 후 마당에서 장판을 걷어냈는데 여전히 물기가 많아 새 장판으로 깔지 못하고 물이 잘 빠지는 석분으로 교체하여 깔았다. 수십 번의 석분 이동 작업을 거쳐 완성된 집은 굉장히 시원하고 깔끔해 보였다. 그리고 까만 봉지로 가득 차 잘 열리지도 않던 냉장고의 쓰레기를 모두 꺼내 청소하였다. 산중이라 설거지 중간에 물이 나오지 않아서 힘든 고비도 있었지만 더러워진 밥그릇과 가재도구들을 모두 말끔하게 씻어냈다. 더불어 못 쓰는 가구를 버리고 새 싱크대를 설치하니 할아버지의 얼굴이 싱글벙글. 봉사단의 얼굴에도 웃음꽃이 방실방실 피어올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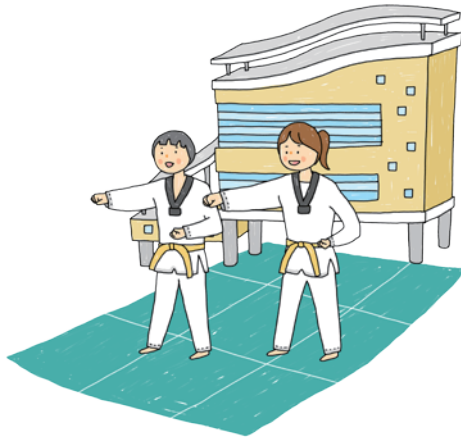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바뀌어나가면 되겠지.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행복한 사람이 더 많아지겠지. 서로를 토닥이며 산에서 내려오는 봉사단의 발걸음이 가볍고 신나 보이는 건 어찌면 당연한 일이 아닐까 싶다. 우분 행복나눔 봉사단의 즐거운 발걸음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이다.



특선

보육원에서 꿈을 펼친 태권소년과 교도관 사범님



고상원(법무부 수원구치소)

“사범님, 저 합격했어요!”

마침내 기다리던 문자가 왔다. 입시생을 둔 부모의 마음이 이리하리라. 전날 시험을 보러 간다고 할 때부터 얼마나 조마조마하고 마음이 뛰던지, 진인사

대천명(盡人事待天命)을 수없이 되뇌었지만 ‘혹시라도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면 어쩌나라는 걱정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었다. 그런데, 합격이라니? 정말 기다리던 소식에 얼마나 반가운지 모른다.

초등학교 4학년 때 보육원에서 태권도로 인연을 맺은 학생이 어느덧 8년의 세월이 흘러 고등학교 3학년이 되었다. 내 눈에는 아직도 꼬마의 모습이 선한데, 그동안 열심히 노력하더니 자신이 목표로 하는 상지대학교 태권도학과에 최종합격했다는 문자를 보내온 것이다. 그 어느 소식보다 반갑고 축하할 일이라 얼른 전화를 했다.

“지혜(가명)야, 축하한다. 정말 잘했다. 네가 성실히 운동한 덕분이니 앞으로도 초심을 잊지 말고 행복한 인생을 설계했으면 한다.”

“사범님,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이제야 사범님께 감사하다는 말을 합니다. 사범님 전 사실 태권도에 태자로 몰랐는데, 사범님의 말씀씨와 매주 과자를 사주신 덕분에 재밌게 운동을 하게 됐는데 이렇게까지 됐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 이제 더 큰 꿈을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보자.”

“네, 사범님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열심히 해서 사범님처럼 사회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될 거예요. 그러니 앞으로도 꼭 지켜봐 주세요.”

태권도로 대학교에 합격했다는 것도 좋았지만, 항상 긍정적이고 밝게 주위 사람을

기쁘게 해주는 말을 할 줄 아는 아이의 모습이 정말 보기 좋았다. 지난 8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눈앞에 스쳐 지나갔다.

아이가 태권도를 시작한 것을 초등학교 4학년 때 나를 만나면서부터다. 어쩌면 나와 태권도 입문 동기생(?)이라 할 수 있다. 나 역시 초등학교 4학년 때 태권도를 시작했으니 정말 묘한 인연이라 생각했다.



나는 초등학교 2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홀어머니 품에서 3남 1녀 중 막둥이로 자랐고, 아버지가 없다는 이유로 항상 위축된 채로 초등학교 생활을 했다. 내성적이었고,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다 보니 더욱 내성적으로 변했다. 모습을 보고 안쓰러웠는지 열 살이 많은 큰형이 인근 태권도장에 소개를 해줬다. 나중에 알고 보니 큰형의 1년 후배가 사범으로 있는 체육관이었다. 그곳에서 나는 태권도를 시작했다. 정말 좋았다. 집에 있을 때는 괜히 위축되고 사람들 만나는 것이 싫었는데, 태권도를 하면서 온몸에 땀을 짖고 나면 온몸이 가볍게 날아갈 것만 같았다. 당연히 행동에도 변화가 일어났다. 타고난 재능도 즐기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고 했던가? 나는 정말 태권도를 좋아했고, 즐기는 마음으로 열심히 했다. 그 덕분에 중·고등학교 때는 대회에 나가 상도 참 많이 났다. 국가대표가 되어서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는 꿈도 꿔지만, 지금도 아쉬움으로 남는 젊은 날의 꿈이 되고 말았다.

어쨌든 태권도는 내 삶을 송두리째 변화시켜 주었다. 그것도 매우 긍정적인 방향으로 내 인생을 이끌어 주었다. 군대에 가서도 태권도로 좋은 실력을 발휘해서 남들에게 부러움도 많이 받았다. 지금 교도관으로 일할 수 있었던 것도 태권도 덕분이 아니던가? 태권도는 내 인생의 동반자나 다름이 없다.

서울구치소에 근무할 때 퇴근 후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서 직장 근처에 있는 보육원을 찾아가 재능기부로 일주일에 한 번씩 아이들에게 태권도를 가르치고 싶다고 했다. 원장님은 정말 고맙다며 반가워했다. 그렇게 시작한 재능기부 태권도 시간에 정말 태권도를 좋아하고 즐기는 아이를 보는 순간 나는 그 무렵의 나를 보는 느낌이었다. 나도 저 무렵에 정말로 태권도를 좋아했고, 그 태권도 덕분에 오늘의 내가 있는 것이 아니던가? 그래서 나는 이 아이에게 더욱 관심을 두고 가르쳤다.



하지만 초기에는 일주일에 한 번만으로 뭔가 부족해서 늘 아쉬움이 남았다. 옆친데 닳친 격으로 내가 근무지를 옮기면서 거리가 멀어지고, 야근이라도 있을 때면 어쩔 수 없이 함께할 수 없을 때가 많아서 더욱 그랬는지도 모른다. 다행히 그 무렵에 알게 된 태권도 도장이 있었다. 내 신분을 밝히고 운동하고 싶어서 왔다고 했더니 관장님은 사범들과 대련을 시켜 보이고는, 굳이 등록하지 않아도 되니 오고 싶을 때 마음대로 오셔서 운동하라고 했다. 정말 잊지 못할 소중한 인연. 김재호 관장님이었다. 김 관장님은 아이를 보고는 두 말 없이 받아 주셨다.

“걱정하지 마세요. 나중에 잘 키워서 우리
도장 사범으로 만들 게요.”

내가 어렸을 때 사범님이 했던 것처럼 똑같은 말을 하면서 아이를 받아 주었다. 다른 아이들에게 전혀 티 나지 않게 똑같이 대해 주시는 모습에 감동했다. 아이는 나와 관장님을 실망시키지 않았다. 내가 그 나이 때 그랬던 것처럼 아이는 진심으로 태권도를 즐겼다. 보육원에서 인덕원, 인덕원에서 산본역까지 몇 번의 차를 갈아타고 다니는 것에도 피곤한 기색을 보이지 않고 열정적으로 연습했다. 태권도로 대학에 진학해서 사회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겠다는 목표를 갖고 정말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아이를 볼 때마다 나는 뭔가 해냈다는 뿌듯함을 느끼곤 했다. 언젠가 그 아이도 나처럼 태권도로 재능기부를 하며 받은 만큼 돌려주는 삶을 즐기면서 살아갈 날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니 큰 보람이 느껴졌다.

“선생님, 저 합격했어요!”



이 말을 들었을 때 기뻐던 마음을 그 무슨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 아이가 태권도로 대학교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전해왔을 때 그 기분은 정말 한 마디로 표현할 수가 없을 정도였다.

오늘은 월요일~~ 퇴근후 가벼운 발걸음으로 길을 나선다.

“사범님, 오늘은 일찍 오셨네요?”

“자, 애들아. 모두 도복 입고 집합!”

의왕시 청계동 산골짜기에 위치한 한 보육원 아동복지시설. 처음 시작한 것이 2009년이니 어느덧 9년이 되어 간다. 요즘도 보육원 입구에 들어서면 꼬맹이들이 줄넘기, 축구 놀이를 하다 반갑게 맞이한다.

“삼촌, 아니 사범님, 오늘은 뭐 사오셨
나요?”

“사범님, 맛있는 것 사 오셨죠?”



아이들은 역시 아이들이다. 해맑게 인사 하고는 바로 내 손에 들려 있는 것부터 살피기 시작한다. 찾을 때마다 한 번도 빼놓지 않고 간식거리를 사 갔더니 이제는 아주 당연한 일이 되어 아이들은 나 못지않게 간식거리를 기다리는 모습이다. 가끔은 간식거리부터 챙기는 아이들을 볼 때도 나는 전혀 밉지 않다. 오히려 하루 근무로 쌓인 피로와 스트레스가 확 사라지는 기분이다. 나 역시 아이들에게 태권도를 가르치면서 몸을 풀 시간이 아니던가? 보육원에는 유치원생부터 사춘기 중학생, 고등학생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아이들 50여 명이 있다. 원장님을 포함해서 관계자 분들 15명이 함께 살고 있는데, 정부지원을 받는지만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은 뻔하다. 그래서 내가 태권도로 재능기부를 하고 싶다고 하실 때 아주 반갑게 받아주셨던 원장님의 환한 미소가 기억에 생생하다.

내가 이곳 보육원을 찾기 시작한 것은 앞서도 말했듯이 어렸을 적에 받았던 것을 나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누군가에게 돌려주고 싶었기 때문이다. 한 때는 근무지가 멀어지면서 힘들었을 때도 있었다. 그래서 몸으로 못하는 것만큼 주머니로 대신하고 싶어서 태권도복과 장비, 그리고 해마다 있는 태권도 심사비와 각종 대회비를 온전히 내 몫으로 지원하고 있다. 물론 내게도 전혀 부담이 되지 않는 금액의 돈은 아니다. 하지만 더 큰 가치를 위해 지원은 아끼지 않을 생각이다. 형편이 어려운 보육원이나 아이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기에 집사람도 말없이 내 선택을 존중해 주었다.



다행히 아이들은 각종 품새 및 겨루기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올리고 있고, 또한 시군 줄넘기 대회에도 매년 2회 이상 참가하여 좋은 성적을 올리고 있다. 중요한 것은 성적보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운동을 하다 보니 표정이 밝아졌다는 것이다.

처음에는 태권도에 재능이나 흥미가 없어 보였던 아이들도 1년 정도 지나면 적극적으로 더욱 노력해 가는 모습을 보인다. 친구들이 대회에서 성과

를 얻기 시작하니 자신도 용기를 갖고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는 것이다. 얼마 전에는 국기원 승품단심사에 5명이 참가해서 모두 합격하는 영예도 누렸다.

아이들이 열심히 하니까 주변에서 도와주는 분도 생겼다. 1990년대 세계대회 및 국내대회를 평정한 겨루기 국가대표 출신인 윤송희 사범. 현재는 대한태권도상임심판과 국제심판으로 활동하고 있는 멋진 사범이다. 지해도 이렇게 국제적으로 유명한 태권도인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 소개시켜 주었다. 멘토와 멘티 관계가 유지되어 더욱 발전적인 태권도인이 되길 바란다. 또한 직장 태권도 동호회, 같은 사무실에서 일하는 오철승 선배 등은 아이들을 위해 간식거리를 챙겨주고 있다. 또한 안양에서 태권도장을 운영하는 관장님은 태권도복 40여 벌을 기증해 주셔서 얼마나 고마운지 모른다.

나는 태권도 6단에 합격하고, 경기도태권도협회 겨루기 상임심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국기원 승품단 심사위원 자격을 취득했다. 내 어렸을 때 꿈을 이루게 해준 태권도 수련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집에 아이들도 아빠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잘 자라주고 있다. 세상에 모든 것을 얻는다 해도 자식이 올바르게 키우는 것만큼 기쁜 일이 또 있을까? 아이들에게는 잘하라는 잔소리보다 함께 어울려주고, 놀아주며 스스로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해주는 것이 최고라 생각한다. 내가 구치소에서 인성교육을 담당하면서 항상 주안점을 두는 것은 '실천'이다. 아무리 좋은 강의를 듣고, 아무리 좋은 내용을 달달 외운다 하더라도 작은 실천이 따르지 않으면 전부 무용지물이다. 지식은 조금 부족하더라도 더불어 사는 삶 속에서 행복을 찾고, 뭔가 의미를 찾아 나가면 그것만큼 행복한 삶도 없다고 본다.

“작은 일에 감사하고, 누군가를 위해 일할 수 있음에 감사하자”

인성교육을 할 때 수형자들에게 강조하는 말이다. 사실 이 말은 나 자신에게 끊임없이 하는 말이기도 하다. 세상은 혼자 살 수 없는 곳이다. 더불어 사는 사람들이 늘어날 때 세상은 더욱 아름답게 빛날 수밖에 없다. 지금 나는 행복하다. 내가 좋아하는 직업을 가져서 행복하고,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어 더욱 행복하고, 더불어 사는 삶을 실천할 수 있어 더욱 행복하다.

그리고 보니 내 주변에도 나와 뜻을 같이하는 이들이 생기기 시작했다. 내 말 한마디만 믿고 지혜 양을 받아주고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는 국가대표 아리랑 태권도장 송남정, 방경애 관장님이 있고, 국기원이사과 경기도태권도협회 상임부회장으로 활약하시는 황인식 회장님, 의왕시태권도협회 박정곤 회장님께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을 묵묵히 지켜보고 응원해주는 아내와 마음씨 착한 아이들이 있어 정말 좋다. 앞으로 제2의 지혜를 발굴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



특선

나눔과 봉사로 얻은 행복



박상재(서울당중초등학교)

내가 교직의 길을 걸어온 지도 어언 40년이 흘렀다. 1977년 2월에 교육대학을 졸업한 나는 그해 봄 전북 순창에 있는 산골학교로 첫 발령을 받았다. 지금은 학교가 폐교가 되었지만, 그때의 제자들을 지금도 이따금씩 만나곤 한다. 그곳에서 동화를 창작하여 아이들에게 들려주고 동요를 열심히 가르쳤다.



그 결과 지금은 100여 권의 저서를 출간하여 방정환문학상과 한국아동문학상 등 유수한 상을 받은 동화작가가 되었고, 300곡이 넘는 동요를 작사한 작사가가 되었다.

1983년 내가 새벗문학상에 장편동화가 당선되고, 이듬해 한국일보 신춘문예를 통해 동화작가로 정식 등단하면서 서울로 직장을 옮기게 되었다. 서울의 초등학교에 근무하며 꾸준히 동화책도 내고, 학업도 계속하여 1998년 2월 단국대학교에서 문학박사 학위도 받았다.

나는 1980년대 후반 무렵부터 인기 동화작가로 자리잡게 되었다. 1991년 12월 한국갤럽에서 서울시내 12개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국내동화작가 인기순위 1위를 차지한 적도 있었다(1991.12.26.경향신문 보도). 그 인기에 힘을 얻어 나의 모교를 비롯해, 모교와 환경이 비슷한 어려운 여건의 벽지학교를 찾아다니며 재능기부로 '작가와의 만남'을 실시하기 시작했다. 그때마다 내가 쓴 동화책들을 학교도서관에 기부하기도 했다.

나는 스스로 노력하여 동화작가도 되고, 박사학위를 받아 대학과 대학원 강단에서 아동문학 강의를 하고 있다.

나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자기계발의 중요성을 깨닫고 평생교육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2000년 서울구일초등학교 재직 시부터 자기계발에 관심

을 갖고 매년 재직하는 학교의 평생교육 프로그램(독서지도, 문예창작)을 개설하여 재능기부 강사로 활동하며 학부모들의 생애계발에 노력하였다.



2004년부터 5년간 서울 영일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할 때에는 평생교육에 관심을 갖고 매년 학교 평생교육 프로그램(독서지도, 문예창작)에 재능기부로 참여하여 작가를 배출하기도 했다.

2010년, 나는 서울 강서구에 있는 화일초등학교 교감으로 발령을 받았다. 교사로 있을 때는 내 반 아이들만 잘 지도하고 가르치면 되었지만, 학교 관리자가 되니 학교 전체 아이들은 물론, 지역 청소년들까지 눈여겨 볼 수밖에 없었다. 그곳 학구는 다세대주택 밀집지역이라 교통사고 위험도 높고, 주변에 산이 있는 우범지역이라 비행청소년들도 많이 있는 곳이었다. 나는 강서경찰서 청소년 선도위원회에 가입하여 공원을 배회하는 비행청소년을 선도하고, 청소년 범죄 예방에 힘쓰는 한편,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상담활동을 강화했다. 이를 위해 방학을 이용하여 단국대학교에 등록하여 전문상담교사 자격증을 받기까지 했다.

2012년 6월 19일에는 서울지방경찰청 김용판 청장으로부터 명예경찰(경사)로 위촉받아 지역 우범지대를 순찰하고, 학교폭력 가

해아동을 상담하며, 아동 청소년 비행과 범죄 예방에 더욱 힘썼다.

한편 2012년부터는 내가 살고 있는 구로1동 인근 가리봉동 작은도서관(구 새마을도서관)의 고문으로 위촉받아, 문고 일을 도와주면서 그 지역에 다문화 가정의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는 매일 한 주 토요일마다 다문화 아동을 대상으로 독서 논술을 지도하기 시작했다. 다문화 아동들은 가정환경적인 영향으로 대부분 읽기와 쓰기 능력이 부족하다.



나는 교사시절 학력 부진아 지도 경험을 되살려 그들을 열심히 지도했다. 그에 대한 공로로 이성 구로구청장으로부터 표창을 받기도 했다(2012.9.12.)

나는 어린이들이 한글 해득을 잘못하는 것은 그들과 함께 사는 부모의 영향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아이들을 데리러 오는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매월 1회씩 한글지도를 시작하였다. 그 결과 중국동포 이원 씨가 태평양물산 주최 2015년 결혼이민자 생활수기 공모에서 대상을 차지하였고, 상금으로 중국 흑룡강성을 다녀올 수 있게 되었다. 그로 인해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했다는 공적으로 행정자치부 장관 표창을 받기도 하였다(2016.10.20.).

2010년 서울 화일초등학교 교감으로 근무할 때 교사들이 생활지도에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고 생활지도 동요 '남김없이 먹어요' 등 학교생활에서 지켜야

할 규칙을 동요로 만들어 16곡을 보급하고 2011년 서울 덕수초등학교에서 제1회 생활동요 발표회를 개최하였다. 2013년 서울 강월초등학교에 근무할 때부터는 송택동 작곡가와 함께 인성동요 연구회를 조직하여, 그해 12월 11일 서울 강월초등학교에서 제2회 인성동요발표회를 개최하였다(한국교육신문 2013.12.16일자 교총 24시&사람들 참조). 그리고 행사 때 동요CD와 동요집 '들길을 가면'을 만들어 보급하였다.



2015년 11월 25일 서울 강월초등학교에서 제3회 동요발표회를 열었고, 2016년 11월 30일에는 제4회 동요발표회를 서울 수명초등학교에서 열었다. 또한 2017년 7월 8일에는 제5회 동요발표회를 경희대학교 중앙도서관에서 실시했다. 제6회 발표회는 2017년 11월 29일 교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서울 당중초등학교에서 저학년 동요를 중심으로 발표하였다.



2012년부터 55년 전통의 한국글짓기지도회 회장을 맡아 전국어린이글짓기대회를 실시하고 매년 사비를 들여 11월 말 시상식을 개최하여 대한민국 어린이들의 사고력과 글짓기 능력을 신장시키는 데 이바지하였다. 또한 우수한 작품은 책자(글짓기나라)로 만들어 보급하였다.

2013년부터는 가리봉 작은도서관 고문 자격으로 고척근린공원 '구로책 축제' 행사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였고, 매년 8월 안양천 물놀이장에서 구로 작은도서관 연합회 회장단들과 함께 피서지 독서문화교실을 운영하여 책 읽는 풍토를 확산시켰다. 이러한 재능기부와 봉사활동으로 2014년 제2회 대한민국 인성교육대상(교육부장관상)과 2017년 3월 남강교육상을 받는 분에 넘치는 영광을 얻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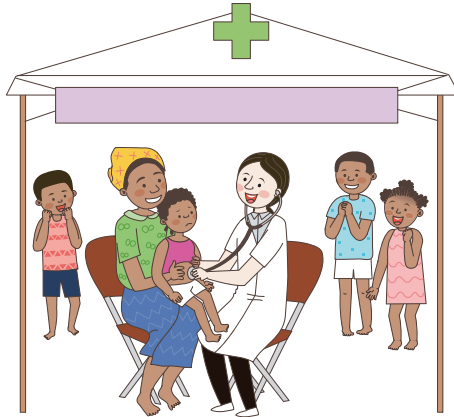
이제 2018년 2월 말로 보람찬 교직을 떠나
 게 되면 내게 주어진 재능기부를 더욱 많
 이 하고 봉사활동도 더 열심히 펼칠 것이
 다. 나눔과 배려가 인생의 참된 행복임을
 체험적으로 깨닫고 있기 때문이다.





특선

내 인생의 전환점에서 나눔의 부메랑



윤애경(경찰병원)

1987년 경찰공무원이었던 남편이 교통사고로 중증 뇌손상을 입었다. 생사를 넘나드는 중환자실에서 남편을 간병을 하면서 의학과 간호에 대한 지식이 없었던 나는 새로운 세계에 대한 도전을 시작하였다. 결혼 후 두 남매 출산과 양육에 전념하며 남편을 내조하며 평탄한 삶을 살고 있던 나에게 남편의 교통

사고는 청천벽력과도 같았다. TV 뉴스에서나 접하던 기사가 내게 일어난 것이다. 남편은 중증뇌손상으로 무의식 상태에서 인공호흡기에 의지해 미동도 없이 침대에 누워 있었고 다발성 늑골 골절과 장기 손상으로 이어져 바람 앞의 촛불과 같은 생명 연장을 이어가고 있었다. 어린 두 남매를 쳐다 보며 하염없이 눈물이 흘렀고 갑작스런 상황을 헤쳐 나갈 방법도 떠오르지 않았다. 두 남매를 양육하며 남편 간병에 전념하면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으려고 노력한 결과 1991년 간호조무사 학원을 다니게 되었으며 1991년 11월 경찰병원에서 임시직으로 근무를 시작하였다. 그리고 1992년 3월에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9월1일 간호조무사로서 당당하게 공무원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다. 이는 남편 간병과 두 남매 양육을 위한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계기가 되었다. 남편 간병도 계속 이어졌고 두 남매도 몸과 마음이 건강한 아이들로 성장하였다. 그 과정에서 나 역시 계속 주경야독으로 학업을 이어나갔다. 1993년 방송통신대학교 전자계산학과에 입학하여 1998년 학사 학위를 취득하였고, 2000년 경원대학교(현 가천대학교) 정보통신공학 석사과정에 입학하여 2002년 여름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뿌듯했다.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된 것이다.



남편의 교통사고 후 15년 이 사건은 내 인생에 정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내 주변에 어려움을 겪으며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자연스럽게 봉사활동에 눈을 뜨게 되었으며 2000년 전국병원 불자연합



회 창립 멤버로 의료봉사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다.

5개 병원이 연합회를 결성해서 휴일을 이용해 전국을 다니며 의료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우리는 산골지역, 농촌지역, 사찰, 사회복지시설, 외국인 노동자, 장애인단체, 요양원, 해외 의료봉사 등 여러 지역을 다니며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이어나갔다.

봉사활동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나는 2005년 경찰병원 불자회 의료봉사단을 창립하여 총무로서 연 4회 의료 사각지대를 찾아다니며 무료진료 봉사활동을 하였다. 2007년에는 경찰병원 나눔 의료봉사단으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종교와 무관하게 명실상부한 원내 봉사 동호회로 새롭게 출발하는 발판이 되었다. 2017년까지 10년 동안 총무 소임을 맡아 어려운 난관이 닥쳐도 묵묵히 봉사활동 장소 섭외와 사전 답사, 봉사단원 모집, 봉사 날짜 협의, 봉사물품 구입 및 정리, 봉사단 후원금 관리, 봉사 자료 정리 등 10년 동안 36회의 봉사활동과 1만여 명에게 무료진료 및 물품 후원을 할 수 있도록 주도적으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사찰, 봉사단체, 장애인복지관 등에 정기적으로 후원하고 있으며, 자원봉사단체에서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간호 및 간병과 관련해서 수차례 강의도 진행했다.

동호회 회원들과 동남아 국가에서 취미생활로 스킨스쿠버를 즐기면서 의료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빈민층을 대상으로 의료봉사활동에도 참석하고 있고,

종교가 불교인 사람들의 의료봉사단을 통해 미얀
마, 라오스, 스리랑카, 몽골, 필리핀, 캄보디아 등
불교국가 해외 의료봉사에도 간호조무사로 연가
를 활용해 지속적으로 참가하고 있다. 2016년 국내 태국 노동



자들의 쉼터인 태국법당에서 큰 법회를 했다. 이때 법회장 한쪽에서 의료봉사
를 진행했는데 태국 스님으로부터 태국 노동자를 위해서 무료진료와 무료투약
을 해줘서 고맙다는 표창장도 받았다.

정년퇴직이 얼마 남지 않은 공직생활이지만 퇴직하는 순간까지 자부심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원내 의료봉사단을 잘 이끌어갈 것이며, 외부 의료봉사 활
동에도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퇴직 후에도 가능한 봉사활동을 계속 이어나갈
생각이다. 30년이 넘는 세월을 투병 중인 남편과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소외계
층, 취약계층에 있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사랑의 손길을 전하는 아름다운 동

행에 함께하고 싶다. 2018년에는 해외 의료봉
사지역으로 네팔지역이 선정될 것 같다. 지금
부터 차근차근 준비해서 부족함 없는 봉사활
동이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행복을 나누면 두 배로 행복해지고 슬픔
을 나누면 슬픔이 반으로 줄어 든다. 앞으
로도 행복과 슬픔을 이웃과 함께 나누는
삶을 살아가고 싶다.



특선

나에게 기회를 준 많은 이들에게 감사하며...



이송민(부산경찰청)

봉사(奉仕)의 사전적 의미는 '국가나 사회 또는 남을 위하여 자신을 돌보지 않고 힘을 바쳐 애쓰는' 것인데, 나는 사실 그렇게 거창한 생각을 가지고 봉사활동을 시작했던 것이 아니다. 2005년 중국에서 학교를 졸업하고 한국으로 귀국한 뒤, 내가 잘하는 중국어로 남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

까 하는 단순한 생각을 했을 뿐이다. 그러다가 전화를 통해 통역봉사를 제공하는 사단법인 BBB코리아를 알게 되었고, 면접을 통해 자원봉사자로 선발되어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다.

전화가 끊기기 전에 통역을 요청하신 분들이 해주시는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라는 말 한마디가 큰 기쁨이었고, 나의 재능으로 남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사실에 크나큰 매력을 느끼는 계기가 되었다. 당시에는 내가 경찰이 될 것이라 생각하지는 못했는데, 가끔 경찰관서에서 걸려오는 통역요청을 포함해 중국어가 필요한 다양한 전화를 받게 되면서, 한국의 일상생활 속에서 생각보다 외국어가 필요한 다급한 상황이 정말 많이 발생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어쩌면 소소하게 시작된 나의 봉사활동이 나를 경찰로 이끄는 계기가 된 것인지도 모르겠다.

그러던 중 2005년 12월에 경찰 외사요원 특별채용으로 공직에 첫발을 내딛게 되었다. 타 지역에서 수년간 근무 후 2012년 부산지방경찰청으로 발령받았고, 우연한 기회에 알게 된 복지시설 선생님께서 내가 중국어를 활용한 봉사활동을 한다는 것을 아시고, 시설에 언어학습이 필요한 아이들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셨다. 대학생 시절 파트타임으로 중국어학원 강사도 해본 적이 있고, 중국어 과외도 해본 적이 있지만 스스로 가르치는 데 그렇게 능숙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기에 기대 반 두려움 반으로 중국어를 가르치게 되었다.



단기간에 중국어를 능숙하게 구사하도록 하는 게 목표가 아니라 누구나 노력하면 외국어를 구사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면서 장기적으로 자신감을 심어주는 것이 목표였다.

때문에 기존 교재로 가르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해서, 아이들의 진도에 맞춰서 어설피게나마 매주 교재를 만들고, 그 교재를 이용하여 가르치게 되었다. 무자격(?) 선생의 강의도 열심히 들어주는 아이들을 보면서 처음에는 매주 주말에 한 번 가던 것을 일주일에 두 번씩 시간을 할애하여 꾸준히 가르치게 되었다.

사실 2013년~2014년은 직장 내 일들로 개인적으로 많이 힘든 시기였는데 전화통역을 포함한 이러한 봉사활동들은 내가 버틸 수 있는 힘의 일부이기도 했다. 특히 복지시설 관할 지자체 연계로 중국 공무원이 시설을 방문하였는데 아이들이 중국어로 자기소개를 하였다는 말을 전해 들었을 때, 스승의 날이라고 손으로 직접 쓴 카드를 주었을 때, 창작수업 시간에 배웠다며 직접 만든 팔찌를 주었을 때 등 많은 순간이 큰 힘이 되었다.

2013년에는 원래 영유아가 없던 해당 복지시설에 영유아가 입소하게 되면서, 관련용품이 부족한 상황이 발생했다. 영유아용품은 생각보다 가격이 비싼 편인데, 시설에서는 필요하지만 마음껏 구매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다. 안타까운 마음에 내가 사가기도 했지만 한계가 있어 주변 지인들에게 알리기 시작했다

는데, 비슷한 나이의 아이를 키우고 있던 지인들이 거의 새 것이나 다름없는 의류와 교구 등을 보내주면서 한결 마음을 놓게 되었다.

이 지면을 빌려서 조건 없이 정말 큰 도움을 준 친구 배건영 등 지인들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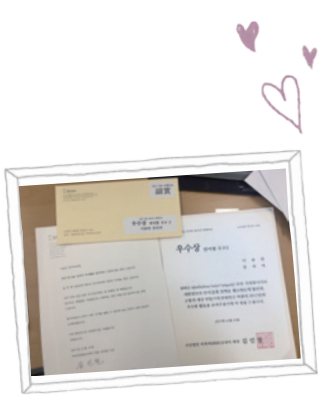
2015년에는 BBB코리아에서 언어불편 없는 세상을 만드는 데 10년 이상 헌신한 자원봉사자에게 수여하는 BBB로열멤버 인증패를 받게 되었는데, 사실 헌신했다고 말하기도 부끄럽지만 끈기가 부족한 내가 무언가를 오랫동안 지속해 왔다는 것에 대한 칭찬을 받은 것 같아 쑥스럽지만 기뻐다.



2017년 연말에는 공무원 자원봉사재능나눔 우수사례 특선에 선정되었고, BBB코리아에서도 우수자원봉사자로 선정되어 기쁨이 두 배가 되었다.

내가 진심으로 존경하는 상지대학교 장향실 교수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있다. 교수님은 항상 많은 부탁을 받으시고 항상 타인을 도와주신다. 아주 오래 전에 교수님께 귀찮지 않으시냐고 여쭙봤더니 워낙 바빠서 따로 착한 일 할 시간도 없는데 부탁을 하는 사람들은 착한 일 할 수 있게 기회를 주는 거라 오히려 고마

운 이들이라 하셨다. 중국어라는 재능을 활용할 수 있게 기회를 준 아이들과
통역봉사를 할 수 있도록 전화를 주신 분들이 있었기에 상을 받는 영광을 누
리게 되었고 그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세상사람 중 절반만이라도 개인의 재능으
로 타인에게 조금이라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에 보람을 느끼고 꾸준히 이를 행
한다면 세상은 훨씬 더 따뜻해질 것이다.
아직도 많이 부족하지만 앞으로도 나의 소
소한 재능이 타인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도록 더 노력하는 내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



특선

따뜻함을 함께 나누요.



경기도 학교보건강사봉사회(경기도 교육청)

토요일 아침. 따뜻한 이불 속에 누워 있고 싶은 마음을 추스르고 우리들이 향한 곳은 용인 소재 Y노인정신요양원 앞마당이다. 이곳에서 우리들은 벌써 12년째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우리 동네 김장하는 날’ 행사에 참여하고 있다. “김장 봉사 가능하신 분 댓글 달아주세요”라는 글이 단체 카톡에 올라오면 “김

장 봉사 가능해요.” “참석합니다.” “참석할게요.” “저희 집 김장일이 변경되어 저도 참석 가능합니다”라는 참여의 손길이 여기저기서 이어진다. “김장팀 따뜻하게 입고 오세요. 주말에 많이 춥대요.” “장○○ 선생님께서 김장 봉사팀 먹으라고 사과 주스를 후원해 주셨습니다” 등의 따뜻한 응원도 빠지지 않는다. 올해 김장일에는 예년에 비해 봉사원의 수가 적었지만 배추 양이 적고 생각보다 춥지 않아 일찍 끝났다.



바깥에서 오랜 시간 서서 하는 작업이었지만 이곳의 생활인들이 겨우내 먹을 김장을 담았다는 뿌듯함으로 모든 피로를 날려 버릴 수 있었다.

“엄마. 나 제주도 갔다 왔어.”

“엄마. 나 파마했어.”

“엄마. 나 요기 다쳤어.”

“엄마. 다음에 또 올 거지?”

“엄마. 정말 보고 싶었어.”

매월 셋째 주 토요일에 만나는 이곳의 생활인들이 우리들을 부르는 호칭은 늘 ‘엄마’다. 우리들은 그분들의 ‘엄마’이기에 다른 일을 제쳐두고 이곳을 찾는

다. 처음에는 ‘노인체조 보급’을 목적으로 이곳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했지만, 현재는 건강 체조, 미니올림픽, 공연(색소폰, 플루트 등), 장기자랑, 산책, 그림 그리기(명화 공동 작업, 달걀 그림), 사진 찍기, 바자회에서 생활인의 물건 구입 돕기, ‘우리 같은 걸음으로’ 행사(생활인과 자원봉사자가 함께 하는 행사) 참여, 김장 봉사, 생활용품 지원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매달 우리들을 기다려주고, 만날 때마다 “엄마”하고 달려와 우리들에게 안기고, 손잡고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아이처럼 순수하게 재잘재잘 이야기해 주는 가족들이 있어 우리들은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우리들의 봉사활동을 좋게 봐주신 덕분에 2016년에는 10년 이상 장기 봉사를 해온 봉사팀(적십자사 건강체조팀)에게 주어지는 표창장을 수상했고, 장애인 인권보호를 위한 협의체 위원으로 위촉받아 활동하고 있다.

매달 둘째 주 토요일이면 어김없이 우리들을 기다리는 어린이 친구들이 있다. 바로 수원 소재 J지역아동센터 친구들이다. 보건교사라는 강점을 활용하여 기초학습지도, 성교육, 구강보건, 흡연예방교육, 일상생활과 건강 등의 보건교육을 필두로 현재는 미술활동(스크래치페이퍼 명화 그리기, 민화부채 만들기, 카네이션 만들기 등), 요리 실습(과일 화채 만들기, 떡볶이, 송편 빚기 등), 과학 미술, 음악 공연(우쿨렐레, 플루트, 오카리나 등), 놀이 활동, 생태 체험 등을 통

해 어린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 매년 추석 즈음이면 센터의 아이들과 '송편 빚기'를 한다. “송편 언제 만들어요?”, “보견쌤들은 언제 오세요?”, “올해도 저희 할머니 갖다 드리게 제가 만든 송편 싸 주실 거죠?” 등의 질문이 우리들이 방문하기 며칠 전부터 쏟아진다고 센터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다. 넉넉하게 준비한 익반죽과 아이들이 좋아하는 깨와 설탕을 섞은 소로 송편을 만들며 아이들은 신이 났다.



“선생님, 제 것 좀 보세요? 똥 모양이에요.”

“제 낀 가래떡 모양요.”

“제가 만든 송편, 완전 반달 모양인데 정말 예쁘죠?”

“송편을 잘 만들면 예쁜 신랑 만난다는 건 사실이에요?”

이런 질문들과 함께 아이들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피어나곤 한다. 찜솔에서 송편이 익어가는 시간. 친구들과 신나게 놀면서도 자꾸 자꾸 주방을 기웃거린다. 찐 송편을 접시에 담아 한 김이 나간 후, 드디어 송편 시식 시간. 자신이 만든 송편을 찾아서 골라 먹고 가족들에게 갖다 줄 송편을 챙긴 아이들 중 하나가 “선생님, 저희 더 놀고 가면 안돼요? 집에 가도 아무도 없는데… 토요일에는 왜 2시까지밖에 못 있어요?”라는 질문으로 우리들의 코끝을 시리게 했다. 헤어짐을 아쉬워하며 집에 가기 싫어하는 아이들을 “애들아, 우리 12월에는 크리스마스 기념으로 케이크 만들기 하자”라는 말로 달랬다. 회원들과 사전협의

를 통해 역할을 정하고, 케이크 재료를 준비해 가면 어떤 모양으로 케이크를 만들지 고민하며 행복해 할 아이들의 모습을 상상해 본다. 올 한해도 멋지게 마무리할 수 있겠다.

매월 첫째 주 토요일에는 수원 소재 P요양원을 방문하여 정기봉사활동을 한다. 이곳에서 우리들은 노인 건강 체조, 정서 및 말벗 지원, 어버이날 기념 카네이션 달아드리기, 치매예방 게임 및 놀이, 청소년과 함께 하는 봉사활동(Y여중 RCY 단원, 꽃가꾸기, 나무 심기, 장기자랑, 위문공연 등), 추석맞이 송편 빚기, 바자회 참여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매년 진행되는 사랑의 바자회 행사에는 직접 판매 부스를 운영하여 수익금을 전액 기부해 오고 있다. 2017년 10월 15일(오전 9시 30분~오후 4시)에도 과일주스와 커피 판매 부스를 직접 운영하여 수익금 60여만 원을 기부하였다.

바자회 뒤풀이 행사에서는 앞치마를 입고 춤과 노래로 시설 거주 어르신들을 기쁘게 해드렸다. “앞치마, 누가 고른 건지 참 잘 골랐다”, “무용단 유니폼보다 예쁘다”, “바자회에 와서 짐 날라주고, 판매까지 도와주는 누구누구 남편들 멋쟁이다”라는 후기를 나누며 내년 바자회 행사를 위해 원색 의상 한 가지씩 장만하기, 공연할 춤과 노래 연습하기 등의 의견을 나누면서 행복한 하루를 마감했다.

경기도 학교보건강사봉사회는 1982년 소외계층을 위한 의료봉사활동 및 지역주민의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지식 보급을 목적으로 대한적십자사 소속 경기도 학교보건강사봉사회(경기도 교육청 소속 보건교사로 구성)로 결성되었다. 적십자의 이념에 따른 순수 자원봉사단체로 35년간 취약계층 의료봉사활동, 보건교육(구강보건, 약물 오남용 예방, 일상생활과 건강, 청소년의 성문제 등),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문화체험활동 및 바자회, 시설방문 봉사활동 및 위문공연, 노인 건강 체조 보급, 노인 건강검진(대한결핵협회의 후원), 1m 1원 걷기대회 의료봉사, 에이즈예방 캠페인 전개 등의 다양한 봉사활동을 실시해왔다. 35년 동안 시대의 흐름에 따라 모든 것이 변했다. 의료시설이 취약한 지역 및 시설 방문 의료봉사활동, 감염병 예방 보건교육, 외국인 근로자 무료 건강검진, 식사 봉사 등의 활동은 아쉽지만 축소되었다. 2000년도 중반부터는 3개의 시설을 정기 방문하여 봉사하는 것으로 정해 매월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에 각 팀별로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팀별로 운영하지만 봉사인원이 많이 필요한 행사에는 팀에 관계없이 발 벗고 나서서 함께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경기도 학교보건강사봉사회 회원 모두가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 달
 려가 봉사할 수 있는 마음을 늘 간직했으
 면 한다. 우리들의 작은 나눔을 통해 따뜻
 함, 감사, 기쁨 등을 보너스로 받는 축복을
 얻기를 소망해 본다.



특선

해양경찰인성교육은 '봉사활동'으로 시작합니다



해양경찰교육원 신입경찰 봉사활동단(해양경찰교육원)

해양경찰교육원은 전남 여수에 위치한 해양경찰 교육기관으로 신입과정 교육생들은 이곳에서 5~12개월간 예비 해양경찰관으로서 올바른 인성을 갖추고 바다를 꿈꾸며 배우고 다양한 교육을 받은 후 일선 현장에 배치됩니다. 해양경찰교육원은 실무에 필요한 기술과 지식뿐 아니라 공직자로서 갖추어야 할 기

본덕목인 봉사정신을 신입과정 교육생에게 심어주어야 한다는 교육원장의 확고한 교육방침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실천하는 인성교육의 일환으로 다양한 봉사활동의 기회를 마련하고 자발적인 참여의식이 확산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먼저 학생지도교수들이 여수에 위치한 사회복지관 및 여수시청 관련 부서 등을 직접 방문하여 지역 내 봉사활동 수요를 파악하고, 각 기관과 연락체계를 마련하여 2016년 3월부터 신입 교육생들이 봉사활동에 첫발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봉사활동을 처음 시작할 때는 주변의 시선이 그리 곱지만은 않았습니니다. ‘공공기관에서 보여주기식 1회성 이벤트’, ‘언론 홍보용 행사일 것이라는 편견 속에서 신입교육생들은 오히려 진심을 다해 성실하게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 다가가려고 노력했습니다.

신입교육생들은 평일에는 쉴 틈 없이 계속되는 학과수업과 실습, 당당한 해양경찰이 되기 위해 이수해야 되는 여러 자격증 취득 등 빠듯한 일정을 소화하고, 겨우 한숨 돌릴 수 있는 소중한 주말을 스스로 포기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여수에 있는 장애인종합복지관, 삼혜원(아동복지시설), 돌산노인요양원, 성산공원 무료급식소 등 봉사활동 장소로 달려갔습니다. 특히 여수 쌍봉사



회복지관에서 주관하는 성산공원 내 무료급식소에서는 서투른 칼 솥씨로 음식 재료를 자르고, 어려운 분들에게 따뜻한 국과 밥을 퍼드리면서 함께 배부르고 따뜻해지는 마음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돌산노인요양원의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의 말벗이 되어주고, 식사도 도와드렸으며, 청소 등 내부 환경미화도 하면서 외로운 노인들의 손자, 손녀가 되어드렸습니다.



여수에는 외로운 아이들이 생활하는 삼해원이라는 시설이 있습니다. 시설 내 아동을 처음 만났을 때 많은 눈망울을 보면서 이 아이들의 멋진 삼촌, 이모가 되어 주겠노라 다짐하였습니다.

아이들과 축구, 농구 등 체육활동을 하면서 마음의 상처를 털어내 주고,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고 추억을 공유하면서 이제는 한 가족처럼 지내게 되었습니다. 삼해원에서 지내던 어떤 아이는 해양경찰교육원 신입 교육생들의 봉사활동을 통해 해양경찰을 처음 알게 되었고, 드디어 해양경찰이 되어야겠다는 꿈을 갖게 되었다고 전하였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성장한 아이는 2016년도 해양경찰 신입 의무경찰 375기로 입대하여 현재 해양경찰서에서 국민을 위해 봉사하고 있습니다.



이 의경은 전역 후 해양경찰관으로 합격하여 삼해원을 방문해 자신에게 희망을 안겨준 신임 교육생처럼 멋진 해양경찰관이 되는 꿈을 키우고 있습니다.

또한 미평동에 자리하고 있는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는 장애인 체육대회 행사를 지원하고 장애인 생활보조, 시설보수 등 힘든 일을 도맡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종합복지관이 신축 시설로 이전할 때 두 팔을 걷고 힘든 이사 및 짐정리 등을 도와주었습니다. 매년 연말 장애인종합복지관 주관으로 실시되는 감사음악회에 해양경찰교육원 신임경찰 봉사활동단이 주요 내빈으로 초청될 정도로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항상 고마움을 표시하고 있고, 신임경찰 봉사단이 없으면 안 된다고 할 정도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공공기관의 1회성 이벤트로 끝나버릴 것이라는 편견을 떨쳐내는 데는 오랜 기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매주 주말 진심을 담아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주면서 신임교육생 봉사단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졌고, 이들의 진심을 이해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삼해원에서는 자체 소식지(당신이 희망입니다. 196호 13페이지)에 신임교육생 봉사단의 활약을 소개하는 등 각 시설에서 우리들의 봉사활동을 소개하고 감사를 표시해 주었습니다. 조금씩 봉사단의 활동이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오히려 해양경찰교육원에 봉사활동을 해줄 수 있냐고 문의 해오는 복지시설까지 생겼습니다.

신임 해양경찰 교육생들은 이러한 다양한 봉사활동을 통해 주변의 소외된 이웃들을 도우면서 오히려 본인들이 따뜻한 사랑을 받았고 힘든 학과과정 중에 받은 스트레스가 치유되는 도움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소외되었지만 마음이 깨끗하고 맑은 눈을 가진 이들과 함께 웃고, 함께 울면서 봉사라는 참된 의미와 보람을 알았다고 회고합니다.



신임해양경찰 교육생은 1년에 최소 2기수 이상이 입교하고 있습니다. 향후 신임교육생들이 입교 때마다 봉사활동단을 자체적으로 구성하여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봉사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며, 여수시청 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하여 현재 정기적인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기관 이외에도 필요한 곳에는 언제든지 달려가 도움의 손길을 전달할 계획입니다. 또한 봉사활동의 종류를 다양화하여 재능기부 봉사, 작은 공연 등 다양한 형태의 봉사활동을 실시하여, 소외된 이웃들에게 작은 희망을 심어주고 싶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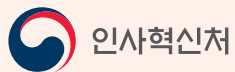
2016/2017 공무원 재능나눔 · 자원봉사 우수사례집

발행처 인사혁신처 연금복지과 044-201-8423

발행일 2018. 3.

디자인 · 인쇄 디자인크레파스 02-2267-0663

이 책의 전문은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30102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어진동) 세종포스트빌딩 6층~12층
www.mpm.go.kr